



3

199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3. 3호

(루게 545)



◆◆◆◆◆◆◆◆◆◆ 차 례 ◆◆◆◆◆◆◆◆◆◆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모든 작가들은 사회주의위업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는 전위투사가 되자.....	4
인민의 경사.....	6
다시 오신 포평	7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송가.....	8
위대하여라 김정일동지.....	8
렬차간에서 만난 장군.....	9
당이 부르면.....	10
김정일장군 만세.....	11
불 사 신 (외 2 편).....	11
여 기 다 !.....	13
푸른 구내숲 (외 2 편).....	13
명언해설	15
우리의 날과 날은.....	16
장중편소설 100 편.....	17
언제나 일선에는 병사들이 서있다	19
안개낀 국사봉	20
명제해설	22
우리의 흥남.....	23
보통 휴식날에	24
우리는 서있다	25
초 불	26

민들레꽃	35
인물들의 성미를 무시하지 말자	36
나는 좋더라 이 사람들이	40
믿음과 보답	41
너의 그 웃음에 (외 1 편)	43
열대수림속에서	44
추억과 소원	55
영웅앞에서 부른 노래	58
새벽노을	59
대회는 끝나지 않았다 !	62
조국에 대한 심오한 형상	63
고향을 생각할 때면 (외 1 편)	65
이대로 더는 못살아	66
금강산의 소년목수	73
절규	74
쇠물빛	77
불굴의 인간상앞에	78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모든 작가들은 사회주의위업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는 전위투사가 되자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함께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신년사를 뚫어오르는 감격과 열정으로 받아안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당, 전민, 전군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존엄과 행복한 생활은 착취계급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며 그것은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보장될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도 래일의 희망도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는 곧 우리 인민의 생활이며 생명이다. 오랜 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이 길만이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삶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다.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며 드립이 없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매우 중요한 력사의 시점에서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운 터전우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력량이 재편성되고 사회주의운동이 재건되는 력사적시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이 세계사적과정은 사회주의문학의 보루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작가들에게 더욱 무겁고 영예로운 임무를 부과하고있다.

당의 령도따라 헌신적인 창작활동으로 사회주의위업을 충실히 받들어온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앞장에서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당의 작가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 식 사

회주의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빛내어나가는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우리 문학부문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기본분야이며 현시기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가장 첨예한 전초선이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은 반사회주의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사상문화적공세를 강화하는데 예봉을 돌리고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고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짓부시고 사상문화전선을 튼튼히 지켜나가자면 모든 작가들이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사회주의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기 위한데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물질만능의 원리가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생명이라면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상이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하나로 단결하면 사회주의는 승리하고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병들면 사회주의는 망하게 된다. 력사적경험은 사상이 변질될 때 노동계급의 당도 사회주의제도도 변질되고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된다는것을 심각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 사상전선을 지키는데서 기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우리 당 사상문화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영예와 책임감을 간직하고 창작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당의 위대성,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체득시키는 적극적인 사상교양자, 선전자가 되여야 하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자, 동원자가 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인민들에 대한 선전교양자, 조직동원자가 될뿐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의 사상적대결에서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자본주의사상에 대한 사회주의사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사가 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사상적대결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에 승패를 판가리하는 첨예하고 심각한 투쟁이며 총포성없는 전쟁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사상적공세에 일대 사상적역공세를

주동적으로 들이대어 사회주의리념의 진리성, 사회주의위업의 불패성을 힘있게 중시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당의 품속에서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 자라난 우리 작가들을 크게 믿고있으며 기대를 가지고있다.

우리 작가들이 당의 신임과 기대에 맞게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선봉투사의 역할을 하자면 누구보다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지녀야 한다.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곧 우리들자신의 운명이며 미래이다. 오늘 자본주의가 복귀되고있는 나라들의 현실은 사회주의의 좌절이 곧 작가들의 파멸을 의미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누구보다도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고 그것을 인생관화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는 우리 사회의 혈연적누대야말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력을 담보하는 혈맥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티없이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며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한다.

작가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 혁명화, 로동계급화 된 참다운 혁명가로서의 정신도덕적풍모를 철저히 갖추어 수 있으며 당의 문학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날 항일혁명선열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우고 풍찬로숙하면서 오직 혁명을 위해 한몸바쳐 싸웠던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락과 영달을 바라지 않으며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다운 집단주의적생명관을 지니고 한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아가야 한다. 항일유격대의 선전원, 공작원들처럼 살며 싸우는것, 이것이 오늘 우리 작가들이 지녀야 할 생활의 신조로, 좌우명으로 되어야 한다.

올해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오늘의 정세는 우리 인민이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발휘한 그 투쟁정신과 기백을 가지고 계속 힘차게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전화의 나날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무비의 영웅성으로 일관된 이 혁명정신은

우리앞에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오늘의 행복이 크면 클수록 더운 피를 뿌리며 불타는 강을 건느던 그때의 정신과 기백을 잊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그때처럼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작가들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추호의 어길수 없는 지상의 과업으로 여기고 우박치는 탄우와 불타는 전호가에서 결전의 나팔수가 되어 투쟁의 노래를 높이 구가하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투쟁하며 창작하여야 한다. 비록 환경과 조건,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 작가들의 심장에는 그런 정신이 언제나 맥박쳐야 한다.

현시기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성실히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실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작가의 밑천은 지식과 재능이며 작가의 역할은 중요하게 창작적재능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에 습관되어 피타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는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한시도 용납할수 없는 금물이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분발하여 떨쳐일어나 세계적수준과 견주어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분초를 아껴가며 완강한 의지로 창작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피타는 노력을 경주하여 주체문학의 위력과 높은 형상수준을 과시할수 있도록 창작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당과 혁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길은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려면 문학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문학은 예술의 선행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주체문학예술발전의 선행관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본분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문학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작품의 사상적지향을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람들을 힘있게 이끌어주는데 총집중하는것이다. 여기에서도 핵으로 되는것은 신념과 의지, 혁명적관관주의를 형상으로 옹계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지난해에 것처럼 모진 광풍이 불며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발광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위업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일수 있는것은 신념과 의지가 있었기때문이며 신심과 락관이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위협에 굴복하여 신념과 원칙을 버릴 인민이 아니며 그 어떤 바람이 분다고 하여 자기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나아갈 인민이 아니다. 우리 인민이 지난 전쟁시기에도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간악한 침략에도 끄떡하지 않고 조국을 수호하였으며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강경하게 맞서 사회주의기치를 영예롭게 고수할수 있는것은 우리 혁명의 중국적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지녔기때문이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가장 옹바른 혁명로선이 있으며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있는 한 우리의 혁명위업이 백전백승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오직 사회주의원칙이 가리키는 길로만 억세게 전진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혁명승리에 대한 락관을 간직하고 자력경쟁,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시대의 전형을 더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밝혀준 주체적문제 사상과 이론을 문학작품창작에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문학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나라의 현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원리에 맞게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문학작품의 전반적인 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아직 우리의 모든 문학작품은 날로 높아가는 시대와 미학적요구에 원만한 형상적해답을 주지 못하고있으며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이 문학으로 혁명에 이바지하자면 문학작품의 형상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언제나 즐겨 읽도록 하여야 하며 그를 통하여 인간의 참된 삶과 운명개척의 옳은 리정표를 찾고 살며 투쟁해나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인민의 사상정서생활을 더욱 풍만하고 윤기있는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잘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의 현실체험은 가장 간고하고 엄혹하였던 시기 항일유격대의 선전원, 공작원들처럼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종군작가들처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종군작가들이 총포탄이 울부짖고 포연이 서린 화선천리를 달리며 투쟁의 노래를 불렀다면 오늘 우리 작가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진행되고있는 총포성없는 사회주의건설전선에서 그 어떤 난관과 애로가 앞을 가로막아도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현실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준엄한 현실세하에서 당의 뜻을 받들고 붓으로 당을 옹위하는 참된 당의 작가, 혁명가의 참모습이다.

작가들이여 !

우리에게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로속하고 세련된 혁명의 수뇌부, 위대한 령도자가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

주체적문제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주체사실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문학전선을 지켜가는 우리 작가들에게 점령 못할 문학의 요새란 있을수 없다.

모두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문학작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전위투사가 되자.

가사

인민의 경사

김선지

백두의 광명성 솟아오른 날
우리모두 춤추며 노래부르자
2월의 명절은 인민의 경사
온 세상 하늘높이 축포, 축포 울리자

가슴에 넘치는 격정을 터쳐
우리모두 춤추며 노래부르자

2월의 명절은 온 세상 경사
세계의 봄명절로 기쁘게, 기쁘게 맞자

조선의 영광인 김정일동지
인류의 심장에 높이 모셨네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우리모두 축원의 인사, 인사 드리자

다시 오신 포평

안고령

60 여년만에
어버이수령님
다시 찾아오신
력사의 지점 포평나루터 !

나라 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지던 그날엔
얼음 덮인 나루가에
눈보라만 가슴을 허비였더니

다시 오신 이날
물결은 출렁이며
잊지 못할 그날을 불러 기슭을 치고
나루터의 꽃들은 기쁨의 망울 터치는데

감회도 깊으시여
회억도 깊으시여
어버이수령님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여라

-일천구백십구년 삼월일일은
이내 몸이 압록강을 건넌 날일세...
산천에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노래의 메아리여 !

아, 수령님 안아오신 락원의 강산에
꽃들은 다투어 향기를 풍기고
누리에 눈부신 해빛은
기쁨에 겨워 옷어반기여라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장장 수만리길 헤쳐오신 수령님
오늘도 력사의 나루터에
변함없이 짝여가시는 거룩한 자욱이여 !

어제에 이어 래일에도
혁명의 길 가고가실 위대한 결심을 안고
한평생 다 바쳐 찾아주시고 꽃피워주시는
내 조국을 더 높이 빛나는 령마루로 이끌고가실
크나큰 뜻으로 울려가는 메아리여

가야 할 혁명의 만리길
어버이수령님 내다보시는
구름너머 저 멀리
아, 노을은 붉게 타고있어라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송가

넬손 모레스 데 아말라

1

위대한 태양이시여
당신은 천재적예지와 헌신성
존엄과 긍지의 빛발로
조선의 방방곡곡을 따사로이 비쳐주십니다
온 누리를 밝혀주십니다

3

당신의 존함을 떠나
당신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사회주의 지상락원을 생각할수 없고
인민이 누리는 끝없는 행복을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2

광휘로운 그 빛발
위대한 귀국의 원썬들에게는
무서운 복수의 철추로 되거니
오, 당신은
투쟁하는 인민들의 탁월한 사령관이십니다

4

탄생일을 맞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이시여
불멸의 업적으로 위대하신 당신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옵니다
(필자는 꾸바고전음악방송국 방송원임)

위대하여라 김정일동지

호세 안토니오 페노리오

김정일 동지
그이는 인민의 행복 위해
자신의 모든것 바치시는분
인민은 그이를 믿고 따르네

그이를 모신 인민
온갖 원썬 무찌르며
행복 위해 투쟁한다네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네

그이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인민은 효성다해 그이를 따르네

의리와 신념으로 그이를 모시네
걸음걸음 새 구상 펼치시고
부닥치는 난관을 헤쳐가시는 그이
인민과 생사고락 나누시며
불면불휴의 로고 바쳐가시네

그이의 따뜻한 은정
불치의 병도 씻은듯 낫게 하고
그이께서 결심하시면
온갖 풍파 밀려가고
온 나라가 혁신으로 끓는다네

(필자는 니까라과 작곡가임)

렬차간에서 만난 장군

서울역을 떠나 부산으로 달리는 렬차의 1 등간에는 조선총독부 일본고급관리 스미야 미노루가 앉아있었다.

중절모에 은테안경을 끼고 앞가슴에 시계줄을 늘린 스미야는 살집이 좋은 얼굴에 갓 면도질을 하여 푸릿해진 구레나룻때문에 퍼그나 위엄이 있어보였다.

맞은편의자에는 준수한 얼굴에 깨끗한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조선사람이 태연한 자세로 앉아있었다.

러행길에서는 흔히 쉽게 통성이 되고 서로 정이 빨리 통하기마련인데 그들은 벌써 여러개의 역을 지나가도록 서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스미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아가 났다.

반도인이 감히 총독부의 고급관리를 본체도 하지 않으니 그가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에게서는 함부로 범접할수 없는 위엄이 풍기어 먼저 말을 걸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스미야는 애써 태연한체하며 두어번 기침을 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어디 가는 뉘신지요? 우리 서로 통성이나 하고 즐거운 러행을 합시다.》

스미야는 애써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품속에서 명함장을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으며 사례를 했다.

《처음 와보는 고장이다나니 아름다운 산천경계에 정신이 팔려 그만 레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명함장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명함장에는 조선총독부 고급관리 스미야 미노루라는 이름과 집주소가 써여있었다.

그 사람은 명함장을 받아보고나서 자기도 품속에서 천천히 명함장을 꺼내 그에게 주었다.

그 사람의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몸가짐에 스미야는 어쩐지 자꾸만 위압되고 주눅이 드는감을 느꼈다.

스미야는 그 사람의 명함장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명함장을 받아든 그는 웬일인지 얼어붙은듯 꼼짝않고있었다. 지어는 눈알마저 쫓쫓해져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서야 스미야는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명함장을 들여다보았다.

분명 거기에는 항일유격대 대장 김일성, 집주소는 백두산이라고 써여있었던것이다.

다음순간 스미야는 명함장을 건사할 생각도 못하고 와들와들 떨기 시작하였다.

《왜 자꾸 그러십니까? 얘기나 좀 나눴시다. 스미야선생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스미야는 그래도 자꾸 떨기만 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재차 물어서야 겨우

《부...부부산에 갑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김일성장군은 그에게 담배도 권하고 과일과 음료도 권하시였다.

장군님께서 하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허물없이 말씀하시자 스미야는 약간 긴장이 풀려 담배도 겨우 받아서 입에다 물었고 음료도 약간 마셔 목을 추가였다.

장군님께서 스미야에게 조선은 조선사람이 주인이니 일본사람들은 어서 제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스미야에겐 우뢰소리처럼 들리였다.

장군님께서 계속하시여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것은 강도가 백주에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주인을 내쫓고 제가 주인이라고 하는 행위와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스미야는 연신 머리를 갑작거리며 잘못했노라고 빌었다.

그러느라니 렬차는 어느덧 대구를 가까이하고 있었다.

《스미야선생, 이제 나는 다음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을 깊이 생각해보고 량심에 꺼리지 않게 사십시오.》

장군님께서 스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천히 두루마기를 벗겨 입으시더니 가방을 드시였다.

기차가 몇자 승강대로 나가 흠으로 내려서신 장군님께서 다시한번 스미야에게 손을 드시여 잘가라는 인사를 하고는 개찰구로 걸어나가시였다.

대구역에서 렬차는 오래동안 서있었다.

스미야의 머리는 매우 착잡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경찰에 알릴것인가? 잘못하다간 내가 봉변을 당할수 있다. 그렇다고 가만 있을수도 없지 않는가?

스미야의 가슴에선 일본사람의 피가 끓고있었다.

스미야는 장군님이 개찰구로 나가 보이지 않자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스미야의 증명서를 보더니 나무막대기처럼 쑥쑥해졌다.

스미야는 웬일인지 말이 잘 나가지 않았다.

《김 ... 김...》

스미야는 한참동안 갑자르더니 드디어 겨우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 빨리 체포하라.》하고 소리쳤다.

경찰은 웬일인가 하여 스미야를 흘끔 쳐다보았다.

은테안경은 벗겨져 한쪽귀에만 걸리고 눈은 동자가 한쪽으로 돌아갔는데 제정신 있는 사람같지 않았다.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 빨리 체포하라!》

그러나 경찰들은 스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다.

렬차간의 손님들과 역에 있던 사람들도 그를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는 눈길로 곱지 않게 흘겨보았다.

얼마만에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스미야는 렬차에서 내려 역장과 대구경찰서장을 불렀다.

그리고 자기의 명함장과 김일성장군한테서 받은 명함장을 꺼내보이며 빨리 총출동하여 체포하라고 울려했다.

대구는 벌통 쑥서놓은것처럼 소란하였다.

연사흘을 법석 끓였으나 놈들은 김일성장군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닷새만에 어느 파출소에서 김일성장군을 《체포》하였다고 떠들어댔다.

스미야가 급히 나가보니 렬차칸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 분명하였다. 모자며 입은 양복이나 얼굴모습이 같았던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었다. 스미야는 렬차칸에서 열이 나가 김일성장군을 자세히 보지도 못했던것이다.

왜놈들은 《김일성장군을 〈체포〉하였다.》고 신문에까지 크게 내고 떠들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을가, 스미야에게는 편지 한장이 날아왔다.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똑똑히 적혀있었는데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없었다.

스미야는 어디서 오는 편지인지 알수가 없어 급히 뜯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편지는 백두산에서 김일성장군이 보낸 편지였다.

《영 ?》

스미야는 덴갑을 하였다. 한동안 편지를 든채 별별 떨던놈은 한참만에야 조심조심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서 김일성장군은 스미야를 준렬히 꾸짖었다.

려행길에서 만난 손님이여서 왜놈이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대해주었는데 짐승보다도 못하게 배반한 스미야를 격분하여 준렬히 꾸짖으시면서 앞으로 그 값을 꼭 치르게 될것이라고 쓰시고 잡아들인 그 사람을 빨리 놓아주라고 하시었다.

스미야는 그길로 경무국장에게 찾아가 잡아들인 김일성장군이 가짜라고 말하고 내보내도록 의견을 말하였다.

그후부터 스미야는 어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았다.

우리만 울어도 혹시 김일성장군이 조화를 부려 하늘에서 자기에게 벼락이 내리지 않을가 겁이 나서 목을 움츠리였고 어디에서 편지 한장 와도 선뜻 마음놓고 뜯어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기를 펴지 못하고 살던 스미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종내 염라국에 가고말았다고 한다.

가사

당이 부르면

랑덕모

어느때나 어느때나 당이 부르면
누가 먼저 기발 들고 떨쳐나서라
가슴에 피가 끓는 청춘은 선구자
아, 언제나 첫대답 우리가 하리

그 어디든 그 어디든 당이 부르면
심장을 아끼라 젊음을 아끼라

희망으로 설레는 청춘은 개척자
아, 언제나 첫걸음 우리가 떼리

백번 다시 천번 다시 당이 불려도
불타는 한마음 변함있으랴
어려울 때 앞서가는 청춘은 돌격대
아, 언제나 위훈의 첫자리 서리

김정일장군 만세

한찬보

장수는 예로부터 산에 난다 하였더라
백두산에 고고성 봄우뢰로 울렸으니
그이 벌써 장군인줄 사람들은 알았더라

지닌것은 제일강산 맑은 정기 푸른 기상
안은것은 위대한 두 장군의 붉은 혈통
그래 그이 장군이 됨은 하늘의 뜻 아니더냐

오늘은 일당백 천만대군 거느리고
반제의 진두에서 자주성새 지키시나니
우리의 최고사령관 세계가 우러르더라

비범하니 그 지략 멸적의 총검이요
나래치니 그 빛발 승리의 기치로다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만만세 !

불 사 신 외2편

유성옥

어둠을 태우는 불길이런가
붉은기 날리는 처창즈근거지로
적의 토벌대들 밀려들 때
총탄! ...총탄이 떨어진 고지를 향해
탄약통을 이고지시고
남먼저 앞장서 달리시던 항일의 녀전사
문득 뒤를 돌아보시며 웨치시였네
-동무들! 빨리 와요!

사나운 총소리... 또 포소리...
그속을 뚫고 달리는 대원들앞에서
피주린 악마의 울부짖음인양
휘파람 불며 날아든 포탄,
거센 폭음 울리며 터져오르는 순간
땅에 엎드렸던 대원들
일제히 머리들며 근심에 잠겨

다급히 찾으며 소리쳐 불렀네
-김정숙동지! ...
-김정숙동지! ...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안타까이 부르짖는 대원들의 눈앞에
뒤덮였던 초연이 넓어지자
대원들은 보았다네... 어느새 고지우에 서시여
불달린 군복자락 날리시며
자기들을 말없이 불러일으키시는 그 모습-
아! 총포탄의 광란도 무색케 하시며
일신의 위험도 아랑곳없이
탄약통을 지시고 고지로 치달아오르신
영웅불사신의 그 목소리만이
폭음보다 더 크게 울려왔다네
-동무들! 난 여기 있어요!

심장과의 대화

진눈에 폭 젖은 군복가슴이
추위에 얼어드는 초소의 밤이면
나는 때로 항일의 녀전사를 생각하며
심장과 조용히 이야기한다

-심장아!
너도 그렇게 뜨거이 불탈수 있느냐?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드는
백두설령의 행군길에서
장군님의 젖은 옷 몸에 품고 걸으시며

자신의 체온으로 말리워드리신
김정숙동지의 그 심장처럼...

분계선너머 가증스런 적들이
분별없이 나의 초소로 총포사격 가하며
침략의 도발에 미쳐날뛰 때
나는 때로 항일의 녀전사를 생각하며
엄숙히 내 심장에 묻나니

-심장아!
너도 그렇게 크고 억셀수 있느냐?
대사하치기의 불타는 언덕
지휘소의 사령관동지를 향해
입벌린 적의 총구를 선뜻 막아서신
항일의 녀성영웅 그 심장처럼...

진정 나는 묻는다
내 심장에 묻는다
그처럼 뜨거운 불이 될수 있는가를
적의 총구앞에 방패로 나설수 있는가를

-오, 심장아, 나의 심장아!
이 나라 충신의 절정에서 빛나시는
김정숙동지의 그 심장!
너 그처럼 열도높은 심장이 못될진대
너 그처럼 크고 억센 심장이 못될진대
차라리 내 가슴속에서
뛰어나 말아다오! ...
뛰어나 말아다오! ...

조국의 재부

이것은 호화로운 고대광실에서
무위도식하는 사치한 녀인들이 애용하던
그런 금반지가 아니다

준엄한 항일의 길 헤쳐싸우신
녀전사의 전투공로를 표창하시여
장군님 안겨주신 금반지!

하늘의 별보다 많은 군공을 세우셨건만
빼앗긴채 피흘리며 신음하던 그날의 조국은
하나의 훈장도 달아드리지 못했거니

한일없는 내 가슴조차 금빛훈장 가득해도
한생에 받으신 표창의 전부로

이 작은 금반지만을 남기신 김정숙동지!

그 어떤 세기적위훈을 떨친
수훈자의 값높은 금별메달인들
이 수수한 금반지에 비길수 있으랴

혁명의 사령부를 옹위한 첫 세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녀전사의 가슴에 안겨진
민족의 첫 훈장을 대신한 금반지!

오, 이것은 참된 삶의 영원한 사적으로
후세의 영광과 불멸의 위훈을 불러오는
위대한 훈장-조국의 재부도다!

여 기 다 !

리근지

출강 !
기쁨의 샘을 터쳐놓는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쇠물 !
쇠물 !

여기다
이글이글 끓는 쇠물을 짝어
담배불 흐뭇이 붙여물고 터치는
용해공 담찬 사나이들 웃음을 타고
하늘과 땅에 밝은 빛이 뿌려지는곳

여기다
쇠물
쇠물을 위해
우리 수령님 마음의 한끝을 두고 가신
여기 !

수령님 우리러

끓는 피로
쇠물을 녹이고
시인도 기자도 배우도
온 나라의 마음이 그 언제나
함께 있는곳

여기다
몸소 보안경 끼시고
쇠물이 잘 익었다고
수령님 지으시던 기쁨의 미소
낮이나 밤이나 뜨겁게 그려보는곳

아, 쇠물 !
쇠물 !
수령님 가장 환하게 웃으시며
온갖 시름 잊으시던곳
그날의 그 순간만을 안고 끓는
온 나라의 심장이 쇠물로 끓는곳
바로 여기다 !

푸른 구내숲 외2편

권강일

한차지 쇠물 흠뻑 끓여내고
쇠란간에 높이 서서 가슴 헤치면
안겨온다오 다가선다오
푸르른 구내숲이 구내산 푸른 숲이

보안경 건듯 들어올린 눈에
서늘하니 비껴드는 그 푸른 빛
탄산수에 비기겠소 그 시원함
땀젖은 가슴을 식혀준다오

어머니도 다 모르는 우리 마음을
친애하는 그이께선 헤아리셨소
-아낌시다

늘쌍 불을 보는 용해공들이
제일 좋아하는 푸른 숲인데

구내산기슭을 허물어 철길을 놓으려는
일꾼들을 다시금 타이르시며
저 숲을 보물처럼 지켜주셨소
힘이 줌 들더라도 멀리 에돌자고

천만금이 들더라도 저 로들에
먼지잡이설비를 잘하여
잎잎이 청청하게
꽃도 활짝 피여 향기 풍기게 하자고

아 부어주신 그 사랑 자양분으로
싱싱하게 자아오른 숲이라오
못잇을 그날의 해빛을 안고
구름가에 설레이며 속삭인다오

이런분이라오 그이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어버이로 모시고

자동화된 공장에서 공원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용해공들은 행복하다오

푸른 빛 시원함은 자연의 리치지만
은정어린 그 사랑에 가슴이 젖는다오
수천도 불과 열에 쇠물은 끓지만
구내 숲 선들바람에 우리 가슴 끓는다오

출강할 때는

그것 참 이상하지 출강할 때는
모여오는 사람들 많기도 하지

한생을 로와 함께 사는 로장도
번마다 쇠란간에 비스듬 났을 잃고
어느새 오는지 수채 가까이
지배인도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우등불에 둘러서듯 해돋이를 바라보듯
저아래서 남비공들도 올려다보고
천정기증기운전공도 내려다보고

구내화차 기관사도 건너다보고

눈부신 백광 억만 불꽃보라...
바라보는 그들 생각 어이 알랴만
이것만은 아네 하나만은 명백하네
모두 쇠물에 두고사는 마음들인것을

쇠물로
조국을 위하고 당을 받들며
로보다 먼저 제 가슴속에
쇠물을 끓이는 충신들이라는것을

이사도 오기전에

새로 솟아오른 새살림거리
건설자들 한참 창문들을 다는데
저 아래층엔 벌써 내걸었구나
새살림식료상점, 공업품상점...

즐비한 거리 시원한 큰길에
어울리는 큰 문 맑은 창유리
대리석 알른대는 그안에서는
벌써부터 흘러나는 명랑한 웃음소리

아직은 어느 한집
이사도 안왔는데
먼저 달려와 차려놓누나
기다려 새거리에 첫살림을 펴는구나

팔고 산다는 그 의미보다는
공급이라는 뜻으로
공급소라는 말로
정겨웁게 안겨오는 저 기쁨

이제 이사해올 우리 집 새살림도
들고나리 저 집 저 큰문을
빠질세라 인민반 세대들까지
헤아려 퍼내주는 저 기쁨을

밀물쳐오라 생활이여 새 구역으로
근심 걱정 모르는 축복받은 생활이여
저기 언덕에선 새 학교가 기다리고
진료소엔 벌써부터 의사들이 기다린다

집집은 따로이 살림을 펴도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것을
한집처럼 한집처럼 말아안고 돌보는
아 내 나라는 사회주의 인민의 나라

둘러보아 정다워라 정이 스며라
우리 거리, 우리 집, 저 푸른 하늘...

명언해설

《〈지원〉의 사상, 3 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 이것이 내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유산의 전부였다. 그것은 모진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유산이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유산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중에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지이신 김형직 선생님께서 물려받으신 유산에 관한 명언이다.

이 얼마나 우리의 사색을 더해 주는 뜻깊은, 수천수백마디의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철학적이면서도 눈물겨운 명언인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은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생명을 준 아버지인 동시에 그이께서 어렸을 때부터 혁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 준 스승이시며 지도자이시였다.

《지원》의 사상, 3 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

이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청렴하고 혁명가로서 결백하게 한생을 조국과 인민, 혁명 위해 바쳐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만이 나으리신 아드님에게, 미래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실 아드님에게 넘겨주실 수 있는 고귀한 사상, 정신적, 물질적 유산이었다.

예로부터 유산이란 자기 선조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놓는 재산이라는 뜻이다. 다시말하여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일러왔다.

누구에게나 다 유산이 있고 그 량에 있어서 풍부하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재산상속으로 이름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다 유산이라 할 수 없으며 그것이 다 가치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어찌 물질적재부만 유산이라 할 수 있으랴.

유산중에서도 가장 값지고, 가장 빛나는 유산이 다름아닌 사상, 정신적재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지으로부터 재물이나 금전상으로 상속받으신것은 하나도 없으시였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시기 대대로 소작살이로 온 가족이 기를 쓰고 일했지만 겹질도 벗기지 않은 수수로 타개죽을 쑤어먹어야만 했던 이야기, 고기가 먹고싶으면 화기가 좀 낫으면 했던 이야기, 벼시계가 없어 남다 자는 새벽 이웃집 울타리밖에서 쪼그리고앉아 시계종이 땡땡 날때까지 기다리곤했던 이야기.

이런 빈곤한 생활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것은 농쟁기와 가정도구뿐이었다.

하지만 만경대고향집에 놓여있는 그 손때묻은 농쟁기, 찌그러진 독을 비롯한 가정도구들은 모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할아버지로부터 넘겨받으신 재산이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신 유산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아버지로부터 사상이나 정신적면에서 물려받은것은 많다고 하시면서 아버님의 그 남다른 유산이 자신을 비탄의 눈물속에서 일으켜세워주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지원》, 3 대각오, 동지획득, 두자루의 권총-모진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받으신 유산의 전부였다.

《지원》의 뜻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어리신 아드님의 손목을 잡고 만경봉에 오르시여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의 애국심과 투쟁사에 대해서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면서 진정 나라를 사랑하려면 큰 뜻을 가져야 한다고 교양하시였다.

《지원》이란 문자 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영달이나 립신양명을 넘두에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이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 이 나라를 광복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한다시던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을 한몸에 그대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피어린 투쟁속에서 이 땅에 오늘의 락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실수 있는것은 아버님의 남다른 유산에서 힘을 얻고 인민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기때문이 아니라.

혁명가는 어디 가나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처음 먹은 원대한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3 대각오.

동지를 위해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수 있다는 동지획득의 사상, 두자루의 권총.

이것은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 혁명승리의 요인들에 대한 아버님의 사상정신적 및 물질적 유산이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을 다 합치고 합친대도 견주지 못할 가장 값진 유산으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한가정의 울타리를 초월한 조국의 유산으로 되며 그 가치에 있어서 그 모든 유산의 최고봉을 이룬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독립하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 다지시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걸음을 동지들을 얻는 일로부터 시작하시였다. 모진 고난과 강추위 속에서도 《지원》의 사상을 혁명적 신념과 의지로 버리시였고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인간애, 동지에 대한 혁

명적 사랑과 믿음, 혁명적동지애로 우리 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마련해오시지 않았던가.

두자루의 권총이 있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민의 진정한 첫 무장대오가 탄생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오늘은 주체적이며 현대적군사기술로 장비된 강위력한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되지 않았던가.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책동과 자유화바람이 휘몰아쳐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을 모르고 계속 혁명의 불길속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의 완성을 위해 억세게 변함없이 나아가고있다.

우리의 날과 날은

허창일

쇠물을 많이 뽑았다고
나라에서 달아준 금빛훈장
환해진 가슴팍 자랑하고싶어
서둘러 집에 들어서니

기다리고있구나
3대혁명기수 되었다고
번쩍이는 휘장 척 달고
식료공장에 다니는 안해가

기다리고있구나
전국알아맞추기경연에서
1등을 한 중학생 딸애
표창장과 선물을 아름답게 앞에 놓고,

볼수록
들을수록
뜨거운것이 치밀어 눈물이 펴 도는
이 기쁨 어쩡다 말할수 없이
수령님과 지도자동지 초상화만 우리르는데

때마침 통신원이 전해준
두툼한 한장의 편지
최고사령관동지와 함께 기념사진 찍었다는
군대나간 아들의 반가운 소식

아, 명절도 아닌 보통날
평범한 로동자 우리 가정에
이렇듯 련이어 차례진
행복이여 !

영광이여 !

우리 집만 자랑을 독차지한것 같아
나도
안해도
딸애도 마주보며
할말이 모자란듯 그저 싱글병글인대

어떤 기쁨이 찾아왔는가
옆집에도 웃음소리
앞집에서도 웃음소리
우리처럼 웃음소리 높고높구나

아, 이것이 우리의 날과 날이구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여
우리의 날과 날은 보통날도 명절처럼
기쁨의 날이구나
웃음의 날이구나

그래서 우리 나라에 와보는 사람마다
조선의 첫 인상은 밝은것이라고 하나부터
우리 나라 낮이 다른 나라 낮보다
더 밝은건 아니건만

내 나라는 어디 가나 우리 집처럼
대낮보다 더 밝은 기쁨과 웃음으로
짜 차있어 !
짜 차있어 !

《악동하는 현실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사상단련의 용광로입니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장중편소설 100 편

장중편소설 100 편창작사업은 그 담당자들인 작가들의 높은 사상적각오와 함께 창작적기량을 요구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00 편의 장중편소설 창작에서 가장 중심적인 애로로 나섰던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매 분기마다 기간과 장소, 강습내용들을 일일이 보살피시며 전국 작가들의 강습을 조직하도록 해주시었으며 여러가지 참고소설들과 통보자료 등 작가들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도서들을 따로 출판하여 열람할수 있는 체계까지 세워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특히 1980년 1월 8일 작가동맹 제3차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작가들의 정치적식견을 넓히며 예술적자질을 높이는데서 현실체험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작가들이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히 리해할수 있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무한한 충성심과 그들의 념원과 지향, 불굴의 의지를 깊이 파악할수 있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혁명적세계관을 완성해나갈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처럼 현실체험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작가들이 실지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들을 다 마련하여주시었다.

제3차 작가대회가 있는 얼마후 작가들은 또다시 크나큰 감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추운 겨울 현실속에 들어가 현실체험을 하게 되는 작가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한낱한시에 두툼한 솜옷과 폭신한 털모자, 려행용가방 등을 아낌없이 넘치게 안겨주시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솜옷으로 전투복차림을 하고 배낭을 멘 작가들은 공장과 농촌, 막장과 선단으로 나가 작품의 주인공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현실속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혁명적창작기풍을 세워나갔다.

현실을 깊이 체험하고 현실속에서 작품을 쓸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의 위대한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창작적성으로 훌륭한 열매를 맺었다.

안전모를 쓰고 검덕광산 깊은 막장으로 들어간 한 소설가는 몇해동안 광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깊이 체험한 결과 장편소설 《령마루》를 훌륭히 창작할수 있었으며 위생복을 입고 함흥의학대학병원의 의사, 간호원들과 함께 수술에도 참가하고 때로는 자기의 피와 살도 서슴없이 환자에게 바치며 로동당시대 보건의일군들의 뜨거운 정성과 사랑을 심장으로 체득한 한 소설가는 《행복》이라는 장편소설을 써서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남흥화학련합기업소 건설장에 나가 하늘높이 아아하게 솟아오르는 나프샤탑우에서 낮에 밤을 이어 용접의 불꽃을 날리며 로동자들과 함께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젊은 소설가는 첫 중편소설 《불꽃》을 써서 청년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실로 현실체험이 가져다준 창작성과는 크고 풍만하였다.

우리 나라 문학사에 특기할 이 창작성과속에는 매 작품들의 창작에 기울여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온 나라 인민들이 명절을 즐기고있던 어느해 설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부피 큰 장편소설의 원고를 친히 읽으시고 더 훌륭히 완성하도록 따뜻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한 소설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책임지시고 세심히 지도하시어 시대의 명작으로 만드시었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 창작에서 일련의 형상적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주인공 신철민의 성격창조와 부정인물 차병진의 형상문제였다.

이것으로 하여 작품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누구도 그 결함을 극복할수 있는 방도를 내놓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극복할수 있는 명철하고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인공 신철민의 성격창조에서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적인 품모를 응당한 높이에서 그리지 못한 근본원인은 작가가 그의 인간성만 그리는데 치중하고 혁명과 건설의 지휘성원인 당일군의 사업과 생활을 다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에 있다고 밝혀주시면서 신철민을 주체형의 당일군전형으로 형상하자면 그의 고상하고 풍부한 공산주의적인간성과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폭넓게 다면적으로 그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 형상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부정인물 차병진의 직책상문제도 명확히 풀어주시였다.

작품초고에서 차병진은 금속공업부 부부장으로 형상되였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까지 문학예술작품에 종파분자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직책상의 인물이 등장한 일이 없는만큼 대답하고 새롭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심중히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제기하였다.

이 문제 역시 창작지도일군들도 한마디로 딱 찍어서 결론을 내릴수 없었다.

이 작품의 주제적과업과 생리적특성을 깊이 헤아려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품의 주인공이 특급기업소 책임비서인것만큼 그의 갈등대상인물인 차병진을 부부장급의 인물로 설정해도 무방하겠지만 그대신 우리 시대 부정인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규정하고 형상을 보다 진실하고 설득력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군들과 작가는 깊은 밤 허허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갈길을 잃고 헤매다가 등대불을 발견했을 때처럼 눈앞이 환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작가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형상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그릴수 있었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였다.

장편소설 《축원》을 창작할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형상과 관련하여 여러저러한 의견들이 제기되어 작품완성이 지연되고

있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를 료해하시고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빠른 시일안에 작품이 완성되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00 편창작과제를 수행하는 작가들의 건강에 대하여 언제나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스히 보살펴주시면서 료양권과 휴양권까지 보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불사약을 받아안고 건강을 회복한 환갑이 지난 한 작가는 장편소설 《새로운 항로》를 청춘의 기백으로 써낼수 있었으며 그이께서 보내주신 보약을 쓰며 병치료를 한 다른 한 작가는 장편소설 《붉은 지평선》을 훌륭하게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00 편과제를 받아안고 장중편소설을 쓰던 일부 작가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그들의 유고작품들을 다른 작가들이 마저 완성하여 그 작가들의 이름으로 발표하도록 사랑의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믿음, 그 은정 속에 《푸른 숲》을 비롯하여 유고장중편소설들도 훌륭히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은혜로운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작가들은 6년 동안에 100 편이라는 방대한 량의 장중편소설을 창작할수 있었다.

이것은 종전에 비해 거의 3 배의 장성으로 된다.

실로 얼마나 비약적인 장성이며 얼마나 풍만한 소설대풍인가.

1970 년대말과 1980 년대초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한 소설풍년 !

이것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은혜로운 사랑이 따뜻한 해빛이 되고 비옥한 토양이 되어 종자를 싹틔우고 형상을 꽃피워 알찬 열매로 주렁진것이다.

그런데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00 편창작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를 작가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품들이 하나하나 출판되여나올 때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귀중한 재보로 아끼고 사랑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창건 30 췌 기념일을 계기로 여러편의 장중편소설들이 출판되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소설책들이 나온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중 여러편의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 올려 파분한 치하의 교시를 받도록 하여주시였

으며 작가들과 담당편집원들에게 은정어린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84년 4월 13일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앞두고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중편소설 100편 창작전투 보고서를 친히 보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작품제목에 붉은색으로 밑줄을 긋기도 하시고 때로는 작가의 이름에 밑줄을 그으시며 100편의 작품들에 대하여 한편한편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높이 평가한다는것을 전달하라고 쓰시었다.

이 분에 넘치는 평가와 치하!

그것은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작가들에게 안겨주시는 가장 큰 믿음, 가장 큰 표창, 가장 큰 사랑이었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주고싶어하는 친부

모의 심정으로 장중편소설 100편 창작전투에 참가한 작가들을 표창하며 생활상문제들도 보다 더 유익하고 문명하게 풀어줄데 대하여 따뜻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해 7월 평양에서는 전국의 작가들이 다 모인 가운데 성대한 수훈식이 진행되었다.

장중편소설 100편 창작전투에 참가했던 작가들과 편집원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작가들은 크나큰 감동을 안고 장중편소설 100편 창작전투를 또다시 벌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빛나게 실천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우리의 소설문학의 화원은 날을 따라 만발해갈 것이다.

언제나 일선에는 병사들이 서있다

최정용

휴가받은 병사들 달려온곳은
못잊어 그리던 고향땅이 아니었다
그들의 휴가배낭을 받아준 사람들이
고향의 정든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라고 어찌 그림지 않았으랴
손벽치며 발을 구르며 《오빠야! -》
목에 매여달릴 그 사랑스런 동생과의 상봉이
눈을 습벅이며 넓어진 아들의 어깨를
정겨이 쓸어만질 어머니의 그 손길이

하여도 그들은 고향을 찾지 않았다
오늘 우리 당이 앞자리에 내세워준
여기 비료공장 구내길에
병사들은 초소길을 이어놓았거니

멈춤없이 여기 비료전선에서도 흐른다
표창휴가의 길지 않은 한때조차
자신을 위해서 보낼수 없었던
아, 그 불같은 전사들의 복무시간은

눈비에 옷이 젖고 몸이 얼어들어도
사회주의 조국땅 그 한치한치를

피더운 가슴으로 안아지키는
그 보람으로 행복을 찾던 우리 병사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리고 믿어주고
그래서 우리 인민이
그리고 사랑하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

이렇듯 미덥고 림름한 병사들이
당의 부름 함께 받들기에
비료의 폭포는 더 힘차게 쏟아지고
비료산은 더 높이 솟아오르나니
그 어떤 원썩인들 감히 흔들랴
우리의 이 거창한 생활을

그렇다
비료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비료로 조국을 빛내이자고
우리의 병사들 여기에 함께 있다
아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전사들
변함없이 일선에서 전투임무 수행중에 있다

안개낀 국사봉

평양시 중심거리에서 강동쪽으로 뻗은 신작로를 따라 약 70 리쯤 가면 왼쪽으로 그리 넓지 않은 자동차길이 나진다.

그리로 20 리가량 올라가면 삼성리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유서깊은 혁명사적지가 있다.

삼성리뒤에 우뚝 솟은 산이 바로 국사봉이다.

우리 나라 지도를 펴놓고보면 여러곳에서 국사봉이라는 이름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로 설명되고있다.

그 연유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미루고 여기서는 다만 국사란 뜻이 신령님이라는 의미쯤 되는것임을 말해둔다. 그러므로 국사봉이라고 하면 신령님의 봉이라는 뜻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나 그 어느 고장이나 국사봉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을 가까이 있는 국사봉을 신성시하고있다.

자기들의 생활에서 피로운 일이 있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면 국사봉에 찾아가 구원해달라고 빌곤하였다. 고장마다 있는 국사봉에는 저마다 제나름의 전설들을 가지고있는데 삼성리에 있는 국사봉에도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전설이 깃들어있다.

그러나 지금 이고장 사람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설보다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생겨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전설을 더 즐겨 이야기하곤한다.

때는 조국해방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1950 년 여름 어느날이었다. 관학골에 사는 리로인은 날이 더워지기전에 김을 매려고 아침일찍 손자를 데리고 국사봉에 있는 조밭으로 올라갔다.

여기에 태를 묻은 리로인은 전년에 상처한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대에 내보내고 며느리마저 복구대에 나가있어 어린 손자와 같이 살고있었다.

그런데 이날 아침은 어느때없이 안개가 자욱히 끼서 한치앞도 내다보기가 어려웠다. 리로인은 손자녀석의 손을 꼭 잡고 늘 다녀서 눈을 감고도 걸을수 있는 오솔길을 따라 산으로 오르고있었다.

이때 어디선가 쿵쿵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리로인은 무슨 소리가 하여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끊쳤다가는 다시 나고 또 끊쳤다가는 다시 나곤하였다.

리로인은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조밭에 이른 로인은 밭머리에 앉아서 마라초 한대를 말아피우며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렸다.

안개는 좀처럼 걷히지 않았다.

로인은 기다리다 못해 호미를 들고 오금을 꺾고 앉아 뿔이 넘게 자란 조밭김을 매기 시작했다.

질은 안개는 호미질을 할 때마다 손에 칭칭 감겨돌아가서 조와 김을 가려보기가 힘들었다.

로인은 할수없이 호미를 놓고 그자리에 주저앉아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또 담배 한대를 말아 입에 물고는 부시를 쳐대고 불이 쑥 들어가게 연방 빨아대었다.

푸르스름한 담배연기는 입에서 내불사이 없이 안개에 묻혀버렸다.

이때 어디선가 땅을 울리는 쿵쿵소리가 또 들려왔다. 소리가 크고 땅이 울리는걸 봐선 분명 지척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와 함께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보니 쿵쿵 땅을 울리는 소리는 사람의 발자국소리인것 같았다.

(웬 사람일까?)

리로인은 부쩍 의심이 생겼다.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안개가 우유통에 빠진것처럼 뽕얇게 끼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땅이 쿵쿵 울리는 발걸음을 봐선 틀림없이 체구가 우람한 장수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이른새벽에 산에 올랐을까?)

리로인은 또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발자국소리와 말소리가 아까보다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쪽을 올려다보니 국사봉마루에 안개가 설핏해지면서 사람의 그림자 둘이 얼씬거렸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앞엔 안개가 쫓기듯 꿈틀거리며 흩어지는것이였다.

《아니, 저게 웬일이냐!》

로인은 놀라와 손자를 불러 그쪽을 바라보게 하였다.

손자도 이상한듯 눈을 슴벅거리며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누구나요? 옛말에 나오는 신선이 아니예요?》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하늘나라 신선들에 대한 옛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라 그 생각이 난 모양이였다.

《신선? 글쎄 그런가보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저런 조화를 부리겠느냐!》

로인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다가 로인은 《엉?》하고 험청난 소리를 질렀다.

그 신선이라는 사람들은 열살이나 될가말가한 어린 소년과 나이든 젊은 청년이었던것이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땅이 쿵쿵 울렸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 소년이 손을 들어 가리키는 쪽엔 안개가 살아움직이듯 꿈틀거리며 황황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소년이 리로인 있는 조발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자욱하던 안개가 서둘러 하늘로 날아오르고 잠시후엔 언제였던가싶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로인은 너무도 놀라와 불이 꺼진지 퍼그나 오랜 담배를 그냥 빨기만 하였다. 그저 멍하니 서서 어린 소년과 청년이 얘기를 주고받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있었다. 얼마후 관학골끝안엔 안개가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하늘에서 내린 신선이 아니구야 어떻게 저런 풍운조화를 일으킬까?》

리로인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안개가 걷히기 바쁘게 때를 놓칠세라 리로인은 조발길을 떠나갔다.

로인은 그 소년이 고마웠다. 안개를 걷히게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로인은 길을 못맸거나 뗏다 해도 해동갑해서야 끝냈을 것이었다.

로인은 점심시간이 좀 지나 조발길을 말끔히 끝내었다.

그는 손자를 데리고 산을 내려오면서 줄곧 어린 소년에 대한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로인은 손가락 하나로 안개를 밀어내는 신기한 조화를 부리는 그 소년을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부쩍 들었다.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사람의 도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어디 가야 그 소년을 만날수 있겠는지 알수가 없었다. 국사봉을 내린 리로인은 갈림길목에 서서 두루 궁리를 해보았다.

이때 《아-양》하는 고동소리가 들렸다.

미국놈비행기가 날아온다는 항공신호였다.

로인은 손자의 손목을 끌고 길옆 우뚝따한 흠타기에 몸을 피했다.

이윽고 우르릉- 소리와 함께 남쪽에서 갈가마귀떼같은 미국놈비행기들이 나타났다. 벌써 멀리 시내에서 기관총소리와 폭탄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하에 악독한놈들!》

로인은 이를 부드득 갈며 남쪽하늘을 노려보았다.

그는 갑자기 눈을 홑떴다. 바로 그 소년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 소년은 산기슭에 있는 독립바위로 달려가더니 그우에 우뚝 올라서는 것이었다.

《아니 저런... 어쩔려구? ...》

로인은 저도 모르게 몸을 쑥 일으켜 그리로 달려가려고 하였다.

미국놈비행기가 사정없이 날치는데 몸을 피하지 않았다가 무슨 변이라도 생기면 어찌랴싶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다.

그 소년이 독립바위우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른 남쪽하늘을 향해 주먹을 쳐들고 《이놈들아! -》하고 끝안이 쨍쨍 울리게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어떻게 된 일인지 새까맣게 달려들던 미국놈비행기들이 갑자기 기수를 돌리고 쾅무니를 사리는 것이었다.

리로인은 너무도 희한하여 한동안 얼없이 서있다가 독립바위를 향해 달려갔다.

로인은 길가에서 아침에 본 어린 소년과 같이 걸던 청년을 만났다.

로인은 그 청년에게 무작정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다.

《젊은이, 말 좀 물어봅시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서 물어보십시오.》

청년은 로인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깉듯이례의를 지켰다.

《아까 국사봉에서 저 신선님과 같이 있지 않았수?》

《예?》

청년은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듯 반문했다.

로인은 독립바위우에서 내려오는 소년을 가리키며 또 물었다.

《저 신선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는가 말이우?》

《신선님이라니요?》

청년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로인은 속이 달아 아침부터 있던 일을 그 청년에게 사실대로 쑥 다 얘기하였다.

그러자 청년은 리로인의 손을 다정히 잡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할아버지! 저분은 신선이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슬기를 그대로 지니신분이랍니다.》

《뭐? 김일성장군님의 슬기를 그대로 지니셨다구? 옹그러니, 내 글썽 범상한 소년이 아니라구 생각했네. 장군님의 축지법과 천지조화술을 그대로 이어받으셨네그러. 젊은이 용서하라구. 장군님은 조선의 하늘님이시구 저분은 바로 그 하늘님의 예지를 그대로 이으신분이신데 내가 주책머리없이 신선 정도로 보다니. 정말 내가 로망을 했네.》

리로인은 못내 자기를 자책하였다.

그후 리로인은 어리신 지도자동지를 직접 여러번 만나뵈웠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실수를 루루이 사과하곤하였다고 한다.

명제해설

《문학예술작품이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자면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우리 문학예술의 총적사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에서는 마땅히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시기 우리의 문학예술작품이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이다.

우리는 바로 다름아닌 조선혁명을 수행하고있으며 우리 문학은 바로 조선혁명, 다시말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주체의 혁명관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현시기 중요한 문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민족문제는 일찌기 일제의 침략에 의하여 빚어지고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로서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과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주체의 민족관이 투철히 구현되어야 한다.

주체의 민족관은 민족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라고 말할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민족관을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굳게 단결해야 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는것이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형상을 창조하는것, 여기에 바로 현시기 주체의 민족관을 구현하는 근본문제가 있다.

문학작품창작에 주체의 민족관을 구현함에 있어서 장편소설 《푸른 하늘》은 새로운 창작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장편소설은 민족과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체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남조선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감동적인 형상을 통하여 주체의 민족관을 투철히 체

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을 깊이있게 창조하고있다.

민족과 겨레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동포애를 그대로 체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는것을 그 어떤 적십자적인 인도주의로 간주하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피줄을 나눈 혈육에게 보내는 사랑과 육친의 정으로 간주하신다. 그렇기때문에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파렴치하고 악랄한 도전책동이 심해질수록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동포애의 뜨거운 사랑으로 적들의 모략을 짓부시고 구호물자를 보내도록 하신다.

작품은 이를 통하여 주체의 민족관을 투철하게 체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통일의 향도성으로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구상,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창작되고있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주체의 민족관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본보기이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혈분만국회》, 《꽃파는 처녀》,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에서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수난당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해답을 주신 빛나는 전통을 본보기로 하여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겨레가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주체적민족관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는 공산주의자들뿐아니라 민족주의자, 량심적인 종교인, 기업가를 비롯하여 각이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취급하고있다. 그들가운데는 지난날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일신의 안락과 영달을 위해 동분서주해온 사람도 있고 나라와 민족 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는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라와 민족의 편에 돌아서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않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지향되도록 인간과 생활을 처리하고있다.

이와 같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각이한 인물의 곡절많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이 세상 그 어디를 돌아다녀보아도 우리 수령님 같으신 분이 없으며 오직 수령님품에 안길 때에만 민족의 운명이 구원되고 자신의 삶도 빛내일수 있다는 진

리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우리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전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령도를 받는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의 흥남

리금녀

하는 말
듣는 말도 비료
보는것
품는 생각도 모두
비료

흥남
비료의 구내 딛고선 사람
이 흥남 하늘아래 선 사람이면
물논건 비료
대답도 비료

땅!
땅을 비옥하게 할 마음
쌀!
쌀을 더 낼 소원

똥다 똥는다
아,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그토록 믿고계시는
여기는 풍년비료생산기지
포성없는 전투장

반사회주의 미친 바람이
꽃피는 우리 제도 말리우려
때없이 불어대고
역겨운 날라리가
행복한 우리 살림 뒤엎으려
날뛰는 오늘

내뿜는 발생로의 숨결은
사회주의 거센 숨결
바늘끝 예민한 저 계기는
언제나 긴장한 우리의 마음

마치 한집식구의 끼식말은
어머니런듯
불뽕는 돌과구를 담당한
결사대원인듯
밤이 없고 낮이 따로 없는 일터
흥남이어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오시여
비료는 곧 쌀이라고
쌀은 곧 공산주의라고 하신
뜨거운 가르치심
심장깊이 새겨
비료를 실어내고 실어냈건만

이 비료
붉은 기치 고수하는 무서운 힘이 되고
이 비료
반사회주의에 퍼붓는
사회주의 우박이 되는줄
내 미쳐 다는 몰랐거니

비료가 쌀이라면
우리 효성이 비료
쌀이 공산주의라면
우리 충성이 그대로 쌀

아, 비료로 조국땅을 살찌워
만풍년의 가을 안아오듯이
우리 흥남이
주체조국의 밑거름이 되리라
우리의 흥남이
우리 식 사회주의
억년 마르지 않는
기름진 자양분을 보태주리라

보통 휴식날에

리종성

이른봄의 일요일이었다. 아직은 불어오는 바람결에도 찬기운이 느껴졌으나 봄이라는 감각속에 따스해보이는 날씨였다. 나의 온 식구는 오후의 햇빛이 호듯호듯 뛰노는 길에 나섰다. 일요일 오후면 의례히 있는 즐거운 산책의 순간인것이다.

물리학연구사인 남편도 이 시간만은 어김없이 짬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유희장도 가고 그 달의 계획대로 주변의 사적지나 극장관람도 하군했다. 아이들은 엄격한 아버지가 일요일 한것만은 마음이 무척 너그러워진다는것을 아는터여서 량쪽손을 갈라잡고 무던히도 많은 질문을 들이대며 걸었다.

나는 집에 들어와서도 사색이 중단될가봐 늘 서재의 문을 닫아매고 책속에만 파묻혀있는 남편이 일요일 오후에만은 복잡한 머리를 정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옆에서 쉬임없이 재깍거리는 아이들을 불러대었다.

남편은 안해의 그 마음을 눈치챘는지 싱긋이 웃으며 《놔두구려. 내가 아이들에게 바치는 시간이야 이것이 고작인데 뭘 그러오.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가?》하고 핀잔했다.

그러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애는 깨고소한듯 나를 돌아보며 두눈을 깜빡하고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고 용용 달려갔다. 남편도 그때에는 동심이 살아나서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그 동심에 맞춰주려는 심산인지 애들과 함께 달음박질을 쳤다.

나는 저도 모르게 벼글벼글 떠오르는 미소속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따라섰다. 그렇게 걷노라니 방금전에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고 하던 남편의 말이 다시금 귀전에 들려오는것이였다.

행복! 평범한 생활속에서 느끼는 행복!!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먹고 입고 쓰고살 근심걱정 없이 부부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식인으로서 사회를 위하여 힘껏 일하고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마음껏 배우며 무력무력 자라는 우리의 생활, 아무런 시름도 없이 휴식일의 하루를 한껏 즐기고 또다시 한주일을 자기의 사업에 전심하는 우리의 생활.

문득 남조선은 민중에게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사회이고 공화국북반부는 근로인민들에게 최대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안겨주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라고 소리높이 웨치던

한 의거입북자부부의 모습이 떠올랐다. 《빼앗는 사회》, 《안겨주는 사회》, 그들이 어찌면 그리도 신통하게 사회의 본질을 단 한마디로 표현할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삶과 존엄도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도 모조리 짓밟는 썩어빠진 사회의 밑바닥과 인간존중과 우애의 정신으로 가득찬 리상사회에서 살아본 그들만이 내릴수 있는 명철한 결론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나의 가슴을 후덥게 했다.

세상을 둘러보면 사회주의가 하루아침에 좌절되어 인민들이 재난을 겪고 일자리를 떼우고 살려야 살수 없어 정든 고향과 조국마저 버리고 망명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인간중심의 철학이 꽃피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틱을 같이 해나가고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의 피와 살, 뼈까지도 남에게 바치며 꽃나이 처녀들과 총각들이 영예군인의 일생의 길동무가 되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앞을 다투어 데려다 키우며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 고상한 정신도덕적미풍이 날에 날마다 꽃피어나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더듬노라니 지난 겨울 내가 만났던 일본 유니온항공 씨비스주식회사 판매주임 아끼라시 하쓰시의 얼굴이 떠오르는것이였다. 그는 조선방문의 어느날 려행도중 렬차칸에 20 여만팔라분의 외화지폐와 여러장의 은행권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두고 내린적이 있었다. 호텔에 돌아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으나 이제야 어찌 찾으랴 하는 생각으로 락심하고말았다. 그 돈가방에 회사와 자기자신과 온 가족의 운명을 걸고있던 그였지만 그 돈을 찾을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돈가방이 고스란히 주인을 찾아온것이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몇푼의 돈을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혈육간에 피를 흘리는 사건들이 매분 매초마다 벌어지고있는데 조선에서는 돈이 주인을 찾아오고있는것이다. 이 꿈같은 현실앞에서 아끼라시 하쓰시는 《조선은 사람모두를 깨끗한 랑심을 가지고 살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나라이다. 조선의 사회주의가 정말 좋다》라고 감동에 넘쳐 말하였다.

그의 말은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돈보다도 남을 위하고 도와주는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옥같이 깨끗한 량심과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감정으로 정화된 인간들이 모여사는 조선의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높은 찬양의 감탄인것이었다.
...

《어머니, 빨리 오세요.》

상념에 잠겨 걸음이 떠진 나를 돌아보며 딸애가 큰소리로 불러댔다. 생각에서 깨어나보니 저만치 앞서가던 애들과 남편이 웃으며 서있었다.

걸음발을 빨리하는 나를 돌아보며 아이들은 또 다시 아버지의 손을 잡아끈다.

저 앞쪽의 유희장에서 유희기구의 가락맞는 동음과 함께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하늘가득 메아리쳐왔다.

유희장을 향해 달음쳐가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서 태양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린다. 태양의 그 천만가닥 빛발도 이 땅의 구석구석에 그들을 남기지만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찬란한 빛발은 영원히 변색을 모르고 붉고붉은 한빛으로 우리 삶의 요람을 지켜갈것이라는 생각이 가득가득 들어찬다.

랑만과 열정에 끓는 청년들의 한패가 웃고 떠들며 나의 걸을 지나 유희장을 향해 바삐 걸어간다.

어디를 둘러보나 우리 생활의 반영인듯 시름없는 밝은 얼굴들이 마주오고 활기에 넘친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흐른다.

나도 그 행복의 물결에 실려 유희장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우리는 서있다

주광남

우리 걷는 막장길도 어제 다름없는 길
우리 다루는 착암기도 어제 다름없고
우리 캐내는 석탄도 다름바 없건만

가슴은 왜 이리 설레느냐
당앞에 혁명앞에
우리 맡아 지켜선 위치를 두고 생각할수록
궁지로 한껏 부푸는 가슴이어
책임으로 더더욱 무거워지는 어깨여

석탄을 그리도 중히 여기시여
어버이수령님
신년사의 첫머리에서 불러주신
우리의 전선

여기신 한걸음을 옮겨도
그이께서 제일 관심하시는곳
사회주의 대진군의 선두에 서있다는
자각으로 발걸음 억세여치고

여기선 발파소리를 새겨들어도
그이 뜻 받들어 고동치는
제 심장의 박동을 스스로 가늠하며

더운 숨결 가슴가득 끓이게 되나니

예가 아닌가
보고중에도 가장 기다리시는 보고를
기쁨중에도 가장 크나큰 기쁨을
석탄증산으로 마련해가는
성스런 혁명초소

정녕, 석탄이 우리 생활에
열을 주고 빛을 주듯이
우리 바치는 땀과 지혜로
어버이수령님 높이신 뜻 활짝 꽃피운다면
가장 큰 기쁨의 열매 맺게 한다면
세상에 더 바랄것 그 무엇 있으랴

오, 한생토록 누릴 모든 영광
오늘의 투쟁속에 다 꽃피우고싶은 마음
가슴부푸는 궁지를 담아
끓어오르는 맹세를 담아
심장은 웨치노라

우리는 서있다, 믿음에도 제일선에!
우리는 서있다, 보답에도 제일선에!

초 불

전세창

1

《자식이야 곁을 낳지 속을 낳나.》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들 말한다. 그런데 언제인 가 자녀교양을 잘할데 대한 인민반세대주회의에서 3층 2호집 세대주가 그런 말을 했다가 홍로인한테서 엄한 문책을 받은 일이 있었다.

《자네 예전시절에 우리 선친들의 운명이 어떠했는가를 모르지 않을테지. 자식을 낳고도 앞날을 기약할수 없는 처지를 허희탄식하며 제스스로나마 사람구실하기를 바래서 너두리처럼 그런 말을 했네. 현대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런 말로 자식교양을 잘하지 못한 허물을 가리워보자는건가? 그래 제 자식의 속을 누구더러 책임지라는건가, 학교선생들이? 아니면 우리 인민반에서?...하도 제도가 좋아 배꼽떨어지자부터 그 부모들이 어데서 무엇을 하건 골고루 입혀주고 먹여주고 무상치료, 무료교육에 세상 부러운것 없이 키워주니 그 은덕에 자식을 잘 키워 보답할 대신에...에키-이- 대다되지 못한 사람같으니, 그래 제 자식이 잘못되면 남의 탓이구 잘 되면 대끝에서 대가 난다구 아버지를 닮았다고 할텐가?》

그앞에서 3층 2호 세대주는 머리도 들지 못했다고 한다.

바로 그 홍로인이 몇해전만 하여도 ㄷ기계공장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홍판사》를 모르는 종업원은 없다고들 했다. 하긴 그가 《로동안전규정은 곧 법이야! 그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지 않을테지?》하고 로동안전규정위반자를 닦아세울 때이면 꼭 법정에 선 판사를 방불케 했다. 그앞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구구한 변명을 하다가는 로동안전규정에 따르는 엄한 판결을 받기가 일쑤였다.

《오늘부터 로동안전교양실로 출근하게. 3일간!》

규정위반자는 울며겨자먹기로 각종 사고원인을 그림으로 형상하여 주련이 걸어놓은 로동안전교양실에 앉아 우리 사회에서 왜 인간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학습을 해야 했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로동안전규정 재시험을 받아야 했다.

그렇듯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긴 생활의 흔적으로 해서인지 아니면 지금도 주위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일들을 잘 주관해주어서인지 일흔해전 귀빠진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법정이라고는 단 한번도 나서본일 없는 그를 두고 항간에서까지 성이 흥

가이고 이름이 판사이거나 한듯 즐겨 《홍판사》라 부르고들 있었다.

그 《홍판사》가 며칠전에 리원에서 살고있는 셋째아들 경수네 집을 다녀온후부터 왜서인지 생활을 전폐한 사람마냥 깊은 고뇌에 잠겨 입에 빗장을 지른듯하고있었다. 로인은 그 까닭을 묻는 사람들을 대하기가 싫어서인지 바깥출입마저 삼가하고있었다. 집안사람들에게조차 자기 심중을 터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홍판사》답지 않은 궁상스러운 정상이었다. 그바람에 안늙은이마저 폐식을 잃고 별치 않은 일에도 신경을 둔구곤했다.

그렇게 며칠을 두고 병어리랭가슴앓듯하던 로인이 오늘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침일찍 동사무소에 갔다오더니 대동강에 고기잡이 나갈 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원-무슨 망녕이 들었는지...매일 통신원이 그 무슨 편지를 가져오지 않나 기다리더니 이젠 아예 집에서 나갈 잡도리우?》

안늙은이가 미끼감과 펄뻑이, 낚시도구들을 배낭가득 채워넣는 령감을 보고 속이 뒤틀려 푸념하는 소리였다.

현대도 로인의 입은 여전히 닫긴 성문이다.

《속시원히 말 좀 하구려. 한데 겹쳐놓은 큰 대사를 눈앞에 두고 집안꼴이 뭐가 되나 말이우다...그래 경수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수?》

로인은 그제서야 잊었던걸 상기하듯 설분하는 마누라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형언할수 없는 서글픔을 담고있었다.

《내 미림갑문 낚시터에 가 있겠소.》

로인은 울대뼈를 꿈틀거리며 목이 잠긴 어조로 이렇게 동문서답하고는 집을 나섰다.

안늙은이는 내려오는 승강기불빛을 보면서도 걸어서 층계를 내려가는 령감의 뒤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칠순고령에도 예이제 자기몸을 태워 빛을 내는 초불처럼 손주며느리리터에까지 찾아다니면서 여생을 아끼지 않던 그가 지난 며칠사이에 서리를 맞은 떡잎마냥 몸도, 마음도 풀썩 늙어버린듯싶었다.

(경수네 집에 그 무슨 변고가 있어. 전사한 딸이의 시신앞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던 령감이 어찌 저 모양이 되었누...)

《내 아무래도 둘째한테 가서 리원에다 전화라도 걸어보라고 해야겠다.》

로파는 서둘러 옷장에서 나들이옷가지들을 꺼 내놓았다. 때마침 맘머느리가 숨이 턱에 닿아 들어 왔다.

《어머니, 아버님은 어데 가셨나요?》

로파는 머느리의 심상치 않은 물음에 어리둥절 하여 엉겁결에 입을 열었다.

《좁전에 대동강으로 나갔다. 그런데 일을 하다 말고 웬일이냐?》

《아버님이 동사무소에 가서 퇴거신청을 했다는 군요... 리원에 가서 살겠다면서...》

《리원에 가서 살다니?》

로파는 그 무슨 당치않은 소리냐는듯 채머리를 떨다가 머느리의 크고 서글서글한 눈에 함함이 눈물이 고이는걸 보자 령감에 대한 노여움이 굴뚝처럼 치솟아올랐다.

령감이 실성하지 않은 다음에야 생때같은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기둥처럼 믿고사는 맘머느리를 두고 가긴 어데로 간단말인가, 당장 잔치를 해야 할 손주머느리는 또 어떻게 하구...

《그래 동사무소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냐?》

안늬은이가 당장 동사무소로 달려갈것 같이 기가 나서 묻는 말에 머느리는 시어머니의 두손을 안타까이 잡으며 가까스로 입술을 번지였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어머니, 아버님이 무슨 연고로 그러시는지...》 하고 울음이 앞서 더 말을 잇지 못하고있었다.

로파도 금시 가슴속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으나 분명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령감이 가긴 어데로 간단 말인가. 흥두께가 투박해도 비단필만 다듬는다고 똑하면서도 다심한 그 성미에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은 만이를 생각해서라도 발길이 떨어지겠느냐 말이다...

로인은 여생을 맘머느리와 손주머느리결에서 보내겠다고 한두번만 말하지 않았었다. 그것은 맘머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있어서만이 아니였다. 군관으로 있던 남편이 군사분계선초소에서 전사한 마음의 상처가 가슴속 깊이 남아있었지만 자기 먼저 시부모, 시동생들을 생각하는 맘머느리였다.

두 아들의 어머니인 그는 여자옷공장 초급당비서로 일하고있다. 당사업경험이 많지 못한 그한테는 어려운 중책이었다. 하지만 그 바쁜 몸에도 집에 들어와 낮색 한번 변하는 일이 없었다.

세상에 미덕을 갖춘 녀인보다 더 사랑스러운 녀자는 없다고 시부모들은 물론 형수의 사람됨을 잘 알고있는 시동생들도 그를 돕는 일이라면 아끼는것이 없었다.

몇해전에 셋째아들 경수가 아버지가 나이많은 공장일을 그만두었다는걸 알고 낚시도구 일식과 큼직한 장기관에 배나무장기쭈까지 마련해보내면서 편지에 자기가 부모님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의향이 어떤가를 물어온것도 바로 그래서였다.

경수는 자식들중에서 그중 부모들의 속을 많이 태운 《미운》 막내였다.

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리원군 지방산업공장에 배치되었을 때만해도 그랬다. 마침 경수가 배치받은 그 공장에 아버지의 전우인 김갑석이가 있었다.

김갑석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30대에 아바이전사로 불리운 홍만표를 친형처럼 따르던 꼬마전사였다.

홍로인은 경수가 그곳에 가면 대바르고 의리깊은 갑석이가 있어 인차 안착될수 있을거라고 했다. 그런데도 경수는 평양에서 어떻게 하나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종당에는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엄한 훈계를 받고서야 행장을 꾸리였다. 그 일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경수도 세 남매의 아버지가 되었다. 경수는 지금 기업관리를 책임진 지배인사업을 맡아보고있다.

실로 홍로인이야말로 그 어느 자식한테 가든 공원에 모여앉아 장기판으로 해구멍을 막거나 낚시대로 세월을 보내는 늙은이들 못지 않게 여생을 근심 걱정없이 즐길수 있었다. 그도 낚시애호가, 장기《명수》였다. 하지만 로인은 셋째에게 보낸 회답편지에 이렇게 썼었다.

《네가 보낸 편지를 받고보니 옛날 너의 할아버지가 늙은이의 활기는 추억의 덕이고 젊은이의 생기는 희망의 덕이라고 하던 말이 생각되는구나. 내 오늘에야 그 말의 참뜻을 깨닫는가싶다.

지금 네 맏형수가 늘 시간이 모자라하는걸 보면 지난 세월에 별로 해놓은일 없는 내가 벌써 진갑고개에 올라서게 되였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구나...속담에 사람이 늙는것은 두렵지 않지만 마음이 늙는것이 두렵다는 말이 있다. 인생말년에 늙은이들의 행복이란 어떤거겠느냐? 물론 사람나름이긴 하겠지만 무위무능한 늙은이가 아닌이상 무위도식이냐 해서야 그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느냐, 내 아직은 오룩이 성하니 여기 걱정은 말고 제가 맡은 일에 항시 착실하여라. 늙은 부모들이 마음편고 살자면 자식들이 일을 잘해야 하느니라. 가풍을 잇지 말어라! 한가지 명심해둘것은 로쇠가 이몸에서 추억의 넘마저 앓아가는 그날까지 나는 네 맏형수결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이다. 그리 알고 형수를 봐서도 그런 편지를 두번다시 보내지 않는게 좋겠다. 험치 않은 일을 맡아보고있는 네 맏형수를 도와주어야 할 일들이 어디 한두가지겠느냐? 그것이 비록 크지 않은 일이라도 생활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있다...》

사실 그랬다. 로인은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듯 오즈음에 와선 더욱 활기에 넘쳐있었다. 하긴 둘째 손주머느리를 맞게 되었으니 그럴만도 한 일이었다. 지난해에 기계대학을 졸업한 둘째손자 지성이가 할아버지가 일하던 ㄷ기계공장현장기사로 자진해왔었다. 제 형 지혁이가 전사한 아버지의 충을 물려받았으니 자기는 할아버지의 대를 잇겠다는것이였다.

그 손자가 인물잡고 마음씨 착한 선반공처녀를 색시로 맞아들일 약혼식을 한 것이었다. 두벌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거라더니 로인은 약혼식날에 사돈컨에서 잔치날을 정하자고 하자 벌써 궁리가 있었던듯 해를 넘길것 없이 시월스무하루날로 정하자고 했다. 그날인즉은 로인의 진갑날인것이다.

《아버님 …》

로인은 시어머니가 될 맘머느리가 의아해하며 귀찮아하러 하자 알고있다는듯 호걸스레 웃으며

《내가 왜 그날을 정하는고허니 그날인즉은…》 하고 약혼식좌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46년 10월 21일, 바로 그날이 홍로인이 마누라와 짝을 무는 날이자 생일로 정한 날이다. 왜놈 세상에서 일찍 랑친을 여의고 외기러기신세가 된 그는 생일은 고사하고 설날에조차 자기가 몇살인가를 기억해두려 하지 않았다. 그러게 누가 몇살인가고 물을 때이면 《기미년에 태어나긴 했수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인 이놈의 세상에서 나이는 알아 뭘 하겠소.》 하고 입부르튼 대답이 고작이었다. 그도 징용에 끌려가 죽을 곡경을 한두번만 겪지 않았었다. 그가 장가들 생각을 한것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신 한뫼이 되는 그날에 모란봉에서 제사공장처녀를 만났을 때였다. 그 처녀 역시 장군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신 광장을 감회깊이 바라보고있었다. 알고보니 그 처녀도 왜놈들한테 팔려왔던 의지가없는 몸이었다.

나라에서는 가정을 이루려는 그들의 소망을 헤아려 왜놈들이 《랑반사택》이라고 일컫는 두칸방 벽돌살림집을 무상으로 주었고 잔치상도 차려주었다.

성례를 올린날밤, 그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벽찬 현실이 자기들에게 차례진것이 꿈이 아닌가? 꿈이면 깨지 말기를 바라며 소리없이 타는 초불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 어데서 무슨 일을 하건 우리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삶의 권리와 행복을 안겨주신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한생을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내는 저 초불처럼 살자구!》

《웁아요. 그 깊은 뜻을 새겨 이날을 당신의 생일로 정하자요!》

그러하여 홍만표의 신성한 공민중에 생일이 기록되고 새 가정의 가풍이 세워졌다…

홍로인은 감회어린 회억의 잔을 들며 두벌자식 잔치날을 세대가 바뀌어도 뜻은 하나이니 그 뜻을 대를 이어 고수하라는 리념에서 그날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좌중은 로인의 고결한 심덕에 감동되어 손주머느리가 진갑상을 받은 시할아버지께 먼저 인사를 올리고 자기 큰상을 받으면 그야말로 리상적인 잔치가 될거라고들 했다.

로인은 손주머느리를 접한 약혼식후부터 전에 없이 공장에 드나드는 일도 잦아졌다.

손주머느리가 선반기를 돌리는 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흐뭇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바람에 때로는 늙은 내외간에 칼로 물베는 다툼질을 하기도 했다.

《도대체 그애를 뭘루 만들자구 그러시우? 기계정비를 해준다, 공구를 갖추어준다…잘은 하우다. 지난밤엔 기계청소까지 해주었다면서요, 그러다 손주머늘애 버릇을 그릇치지 않나 보시우.》

홍로인은 안늙은이의 그런 지청구가 되려 기분을 돋구어주는듯 제편에서 큰소리로 웃으며 로친네를 나무람했다.

《안할소리, 결불안이라구 그래 경심이의 사람됨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할는건가?》

《알기때문에 그러는거우다. 그리구 아직 잔치도 안했는데 남들이 보면 웃어요.》

《어허- 웃다니? 약혼식은 뭐 세상에 대고 우리 손주머느리로 점찍어놓은게 아니라는건가? 고운꽃도 가꿀타이라고 했는데 그래 그애가 우리 가풍을 따르도록 하는데 웃긴 누가 웃어?》

로인의 말이 옳았다. 그건 안늙은이의 로파심이였다. 항간에서는 오히려 아낙네들까지도 청렴하고 근면한 로인의 생활일화들을 즐겨 입에 담으며 《홍판사》야말로 인생을 즐길줄 아는 사람이라고들 했다…

그런 령감이 환장하지 않고서야 맘머느리도 맘머느리려니와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은 손주머느리의 가슴에까지 못을 박는 그런 모진 마음을 먹을수 있겠느냐 말이다. 더군다나 경수네 집에서 여직 소식이 없는걸 보면 별일없이 지내고있는 모양인데 령감이 별치 않은 일을 가지고 괜히 로파심에서 그러는지 누가 알랴, 그러니 오늘저녁에 평양에서 살고있는 일가식솔들이 모여앉아 의논하느라면 령감이 심뇌하고있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한것이라도 쉽사리 풀수 있을것이였다.

로파는 확신이 생긴듯 무릅없이 자기생각을 털어놓으며

《…내 그래서 둘째네 집에 갔다오련다.》 하고 나들이웃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늙은이의 순박한 생각이긴 하지만 머느리도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 패히 동의해나섰다.

《어머니, 적은이네 집에 갔다오자면 빠스를 두세번 갈아타야했는데 제가 얼른 다녀오겠어요.》

《공장사람들이 기다리겠다. 내 걱정일랑 말구 어서 가서 말은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그리구 당부안해도 알겠지만 오늘저녁에 아버지 스스로가 퇴거신청을 냈다는 말을 꺼내기전에는 누구도 알은 체하거나 입빠른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야겠다. 나도 둘째한테 가서 그 말만은 하지 않으련다.》

시어머니의 얼기설기 주름살이 엉킨 모습을 애바른 눈으로 지켜보는 머느리의 입가에 서글픈 미소가 어려있었다. 마치나 그 주름살 하나하나에 부부 평생의 가지가지 사연들이 깃들어있기라도 한듯…

2

가을걷이 계절이라 날씨는 따뜻했다.

오전것이여서 드넓은 강변에도 바람 한점 없었다. 물속에 낚시줄을 드리우고 귀를 기울이면 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모여드는 소리도 들릴듯한 고요한 강변에 낚시꾼들이 한가로이 앉아있었다.

홍로인은 낚시터에서 좀더 올라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한적한곳에 자리를 잡았다.

강변에 나오긴 했어도 착잡한 가슴속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땀방이를 빚으려고 배낭을 헤쳐놓았으나 선뜻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그는 담배 한대를 다 태우고나서도 강물에 눈길을 떨군채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있었다.

《망할녀석 같으니...》

느닷없이 한숨속에 새어나오는 말이였다.

일렁이는 물결위에 셋째의 표상이 얼른거리면서 못견디게 심혼을 피롭히는것이였다.

(가풍은 고사하고 제형의 넋마저 저버렸단 말인가?)

로인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으며 경수네 집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한번 추리해보기 시작했다.

경수네 집은 양지바른 바다기슭에 있었다. 다층주택에서 살다가 지난봄에 새집들이를 한 세칸방문화주택이였다. 구기자를 올린 담장안에는 적지 않은 채마전에 꽃밭도 있었다. 한마디로 기업관리를 책임진 경수가 살림살이 걱정이 말은 일에 직심할수 있게 모든 생활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었다. 그집도 김갑석이가 주관해서 지은것이라고 했다. 로인은 자못 흠뻑했다. 마누라를 알세우고 오지 못한것이 후회되였다. 그러나 로인의 기쁨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나팔꽃마냥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로인은 이곳에 오면 의례히 손주애들이 작은 할아버지라 부르는 김갑석이부터 먼저 찾곤했다.

경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 처음 배치되어 왔을 때에 자기가 있는 한 합숙생활을 시킬수 없다면서 일부러 만아들을 세간내보내고 경수를 자기 집에 하숙시킨 김갑석이였다.

그는 공장초급당원이였고 경수네 부문당비서였었다. 경수가 결혼하자마자 새살림을 펴라고 아예 자기 집을 내어주고 마누라와 함께 만아들집으로 이사를 간 그의 인간됨을 로인의 가족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실로 김갑석이야말로 사업과 생활에서 경수의 둘도 없는 스승이였고 로인의 막역지우였다.

그도 이제 환갑나이가 되어 부업선에서 늙은이 대우를 받고있지만 지배인 증책을 지닌 경수를 돕는 일이라면 예이제 아끼는것이 없었다.

홍로인은 행장을 풀면서 김갑석이와 마주앉아 회포를 나눌 생각에 벌써 기분이 흐물씩하여 머느리에게 물었다.

《애들의 작은 할아버지도 별고없이 지내겠지?》

시아버지가 온것으로 하여 한껏 기분이 떠있던 머느리가 갑자기 말못할 질문이라도 받은듯 주저주저 대답했다.

《그 아버님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이라니?》

《전쟁때 부상입은 상처자리가 도졌나봐요.》

《어-엉?》

로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1953년 7월 전쟁승리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습격전투에 나갔다가 부상당한 갑석이를 업고 오던 일을 지금도 어제런듯 기억하고있었다.

로인은 몸에 감겨도는 응석받이 막둥손녀를 데리고 병원을 향해 집을 나서려다가 고등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손자녀석이 갑자기 저금통장을 찾으려 하며 큰변이 난것 같이 떠드는바람에 의아히 텔레비존 화면에 눈길을 던졌다.

텔레비존에서 추첨제저금추첨을 한다는것이였다.

어느결에 손녀애도 언제 할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했더니싶게 뽀르르 방안으로 달려들어가 저금통장을 찾아들고 나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맞나보세요.》

로인은 손주애들이 펼쳐보이는 여러장의 저금통장들을 바라보며 대견함을 금치 못해했다. 그 저금통장들이 생활이 유족해갈수록 살림살이를 더욱 잔지게 꾸려가는 셋째머느리의 알뜰함을 말해주는 듯싶어서였다.

《허허허... 저금통장이 많기도 하구나...》 하고 로인은 머느리를 돌아보며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손자녀석이 뭐가 못마땅해서인지 《다섯장이 뭐 많나요?》 하고 불부는 소리를 했다. 돈이 불어나자면 등수에 많이 들수 있게 저금통장이 더 있어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러자 손녀애까지 어리광을 부리며 맞장구를 쳤다.

《할아버지, 오빠는 정말 재수없어요. 나두, 언니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것두 모두 한두번씩 등수에 들어 돈이 불어났는데 오빠것만 한번도 맞지 않았어요. 해해해...》

《그래-허어, 거 정말 안됐구나...》

로인은 일부리스레 눈을 크게 떠보이면서도 마음은 별스럽게 불안해졌다. 애들의 눈빛에서 돈에 대한 탐욕과도 같은것을 느꼈기때문이였다.

(아서라. 내 무슨 생각을...)

이윽고 텔레비존에서 당첨번호를 알려주기 시작했다. 애들은 물론 머느리도 온몸이 눈과 귀가 되어 번호를 맞춰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때마침 역에 마중을 나왔다가 할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알려려고 아버지한테로 갔던 말손녀 지순이가 들어왔다.

로인은 작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다가 양식사업소에 집단진출한 지순이를 여간만 귀애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리원으로 오면서도 그나이또

래의 처녀애들이 요즈음 유행으로 들고다니는 자그마한 손가방도 자신이 직접 여러 상점들을 취가면서 그중 문양이 고운것으로 사왔었다.

《저런 철딱서니라구야, 할아버지가 하늘로 날아갈가봐 일이 바쁜 아버지를 데려오며 부산을 피우느냐?》

로인은 키도 몸도 더 우람해진듯싶은 아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도 손녀를 나무람했다.

듬직한 체구에 이목구비가 선명한 경수의 생김생김은 외견을 많이 닮았다. 다듬지 않은 솜덩이를 똑 잘라붙인듯한 토막눈섭과 고집스러워보이는 좁은 미간만은 한사코 아버지를 닮으려 한듯싶었다. 로인은 경수가 장난이 한창 심하던 시절에 저보다 키가 더 큰 아이앞에서도 토막눈섭을 무섭게 모아 세우며 지려고 하지 않는걸 볼 때마다 그래서 못 쓴다고 나무람하면서도 속으로는 (대끝에서 대가 나기 마련이지.) 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곤했었다.

경수는 기업관리를 책임진 몇년사이에 말투도 몸가짐도 성미가 유한 제 형보다 더 세련되고 틀져보이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은 기쁨을 금치 못해하면서도 입술이 가벼운 여자들과는 달리 말보다도 눈과 표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듯싶었다.

《아버지, 지금쯤은 병원에서도 저녁식사시간이겠는데 면회는 래일아침에 가시지요. 열차길에 시장하시겠는데.》

경수가 아버지를 넘려해서 하는 말이었다.

《일없다. 내가 여기와서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밥술부터 들겠느냐. 너도 만일이 없으면 함께 가자꾸나.》

로인은 아들과 함께 갑석이를 만나보고싶은 마음이였다.

경수는 왜서인지 선뜻 대답을 못하다가 미안한듯 어쭙은 표정을 짓고있었다.

《저는 행정일군협의회가 있어와서 공장에 나갔다 와야 합니다. 아버지, 요즈음 해가 떨어지면 해무가 많이 끼는데...》

《알겠다. 내 걱정일랑 말구 그럼 어서 나가 일을 마쳐 보고 오너라.》

로인은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왔지만 가정세태적인 생각보다 자기 직분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을 보는것이 만족한듯 주름잡힌 얼굴에 흐물씩 너그러운 미소를 담고있었다. 그 역시 아버지의 타성에서인지 다 자란 자식도 어린자식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다.

그가 갑석이한테 가지고갈 과실구력을 들고 막대문을 나서려는데 웬 처녀가 묻으며 털게, 해삼파위의 동해특산물들을 한버치 이고 들어왔다. 아마 지배인 아버지가 왔다고 하여 공장사람들의 성의로 가져오는 모양이었다.

(하아-이러지들 말아야겠는데...)

...군인민병원은 경수네 집에서 5리상거한 읍거리에 있었다.

홍로인이 병원문을 나선것은 해무낀 어두운 저녁녘이었다.

김갑석은 나오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병원정문앞에까지 따라나왔다. 짙은 해무속에 잠겨 갑석이를 돌아보던 홍로인의 입에서 부지중 꺼질듯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설마 경수가?)

랭기를 품은 습한 공기가 폐부를 적시였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연기가 찬듯 숨이 트이지 않았다.

갑석의 절절한 음성이 얼굴에 휘감기는 해무속에 그대로 숨배여있는듯싶었다.

《...형님은 그래도 나를 믿고 경수에 대해 마음을 놓고계셨었는데 나는 오늘에 와서야 경수를 옹계 돕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절감하게 되는구려. 결국은...》

경수는 기업관리에서 수자에 밝은 수완있는 일군으로 파단성있는 사람으로 인기있었다.

그런데 그 인기가 도를 넘어 월계획을 미달한 경우에도 조차도 전문계획일군마저 무색할 정도로 생산수자를 모리있게 둘러맏춰 종업원들한테 계획수행상금이 차례지게 했고 매달 금액상계회를 못해본 일 없는 주견있는 《일군》으로 이름을 날리고있었다. 생산지표별계획은 미달한채로 넘어갔지만...

김갑석은 그 《일본새》가 마음에 걸려 한두번만 걱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경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것이기나 한듯 책임은 내가 질테니 걱정말라는 자세였다.

김갑석이가 친지의 눈먼 사랑으로 하여 경수에게 자기로서 줄수 있는것은 다 주면서도 그를 바로 잡아주지 못한 자신을 사무치게 깨달은것은 부업선들을 수출입상사에 동원시키는 문제가 상정되었을 때였다.

공장에 있는 《4.15 기술혁신돌격대》가 생산설비들에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심분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은 이른바 수입설비에 현혹되어 부업선들까지 그 어느 수출입상사에 동원시켜 계획지표에 없는 《설비갱신》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완고했다.

김갑석은 걱정만으로는 그를 바로잡아세울수 없음을 절감했다.

정확한 진단에 약처방으로 안되면 수술을 해서라도 병은 제때에 고쳐주어야 한다.

부업선들을 책임지고있던 김갑석은 초급당확대위원회에 참가하여 진정으로 그의 정신상태를 신랄히 《수술》 해주었다. 모름지기 경수가 세상에 태어나 그날같이 아픈 비판을 받아보기는 처음일것이였다.

그런데 초급당확대위원회가 있는 달포후였다.

김갑석이와 마주앉은 경수가 뜻밖에도 이런 청을 했다.

《원로기지장에 책임적인 사람을 보내야겠는데...》하고 김갑석이더러 공기 좋고 물 좋은 그곳에 가서 건강을 돌보면서 일을 봐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원로기지장은 공장에서 이백여리 떨어진 외진 산골에 있었다. 김갑석은 지배인의 청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지배인이 경수일진대 더욱 그랬다. 그는 원로기지장에 가서야 자기를 그곳에 보낸 경수의 진속을 알게 되었다...

홍로인은 발걸음이 제대로 놓이지 않아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곤 했다. 김갑석이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문앞에 그대로 서있었다.

홍로인은 김갑석의 그 심정이 헤아려질수록 상실당한 마음의 의분을 누를수 없었다.

경수가 행정일군협의회가 있다면서, 공장에 다시 나간것도 실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오기 싫어서 그런것 같이 느껴졌다. 그러고보면 《특산물》도 지배인이 제손으로 들고오기 뒤흠하여 그 처녀를 시켜 가져오게 한듯싶었다. 늙은이의 선입견인지는 몰라라 어쨌든 《병든》녀석임에 틀림없었다. ...

그날밤 홍로인은 아버지의 좋지 못한 기상에 뒤가 저려나는듯 될수록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기를 피하려는 경수를 옷방에 불러앉히었다.

《...그래 김갑석의 충고를 성근히 받아들였느냐?》

낮으나 엄한 문책이었다.

《원-아버지두...지금도 저를 철부지로 보는것 같군요.》

《철부지?...차라리 철부지라면 버쩍 정신이 들게 불기를 치련만...그래 김갑석이를 원로기지장에 보낸 진목적이 뭐냐?》

《그거야...》

《진속을 말해라. 태없이 말하는건 오직 량심뿐이야!》

로인은 시종 경수의 표정에 시선을 박고있었다. 그 얼굴에 량심의 목소리가 씩여져있기라도 한듯.

아버지의 마음을 녹았해보려는듯 선웃음을 치던 경수의 그 유표한 토막눈섭이 고집스레 안으로 세워졌다.

로인은 《장수》눈섭이라고 자랑하던 그 눈섭이 이때처럼 미워보이는게 처음이었다. 아들의 모든 잘못이 그 눈섭에 있기라도 한듯.

《그가 어떤 사람이나? 그래 네눈엔 그가 김갑석이 한사람으로만 보이느냐? 피로써 조국을 지켰고 허리띠를 조여가며 땀으로 나라의 재부를 마련하여 너희들을 공부시켜 일군으로 내세워준 수많은 김갑석이들이 너를 지켜보고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느냐 말이다! 배은망덕하다...그런 네가 장차 우리 혁명위업을 저바리지 않는다고 누가 담보하겠느냐? 지금의 너를 두고 이 아버지도 담보할수 없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난 너희들을 키울 때 밤에 혼자서 공부하거나 사색에 잠길 때이면 전등을 끄고 초불을 켜라고 했다. 자기 한몸을 태워 빛을 내는 초불처럼 살고있는가를 거울처럼 보라고. 그런데 너는 지금 자식들한테 어떤 아버지를 보여주고있느냐 말이다...》

로인은 저도 모르게 어성이 높아졌다.

《덜된 녀석들이 직위가 높아지면 민중이 쑥대굴에 올라앉은것처럼 의리도 모르는 안하무인이 된다 더니. 네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있지 않느냐 말이다. 부업선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지, 그게 어떤 부업선이나?》

《아버지, 고정하시구 음성을 낮추십시오.》

경수는 당황히 아래방을 살피며 만류했다.

《홍- 내 더 긴말을 안하겠다. 명심해 듣거라. 네가 전사한 만형의 녀를 어지럽히지 않으려거든 그리구 자식들의 앞날을 책임진 아버지의 구실을 잘 하려거든 당조직앞에 량심을 헤쳐놓아라...》

로인은 잠시 말을 끊고 이윽히 아들을 여겨보다가 위엄있는 어조로 뒤말을 이었다.

《김갑석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여라. 기다리겠다. 너의 편지와 너의 사죄를 받은 김갑석의 편지를... 난 새벽차로 떠나겠다!》

로인은 아들을 아래방에 내려보낸후에도 그대로 앉아 담배만 태우고있었다. 그래서인지 머리가 어질거려 앉아있기조차 힘들었다. 했어도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다.

바다도 시름에 겨워 잠 못드는듯 파도소리마저 한숨소리같이 들려왔다. 로인은 은근히 아들의 숨결에 귀가 기울려졌다.

경수는 잠에 취한듯 이따금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모들이 마음편고 편히 쉴수 있는 《자장가》는 자식들의 고르로운 숨결이다.

그러나 이밤, 아들의 숨결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예리한 쇠붙이로 아물지 못할 상처를 쑤서놓는듯했다.

로인은 몽유병자마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발이 가는데로 걷고있던 그는 꿈결에서마냥 지척에서 처절씩이는 파도소리를 듣고서야 바다기슭에 수많은 자국을 남기며 지향없이 걷고있는 자신을 보았다.

해무덮인 바다도 무거운 시름에 잠긴듯 하얍없이 모래톱을 썰며 뒤채이고있었다.

우뚝 걸음을 멈춘 로인은 그대로 굳어진듯 움직일줄을 몰랐다. 공허했다. 줄지에 마음속의 기둥이 허물어져내린듯 가슴속이 텅 빈것 같았다.

인생말년에 자식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삶의 보람을 향유하던 가슴속에 커다란 공백이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듯싶었다. 허전하기 그지없었다. 어찌보면 해무속에 홀로 서있는 자신이 모처럼 아들집에 왔다가 자식을 잘못키운탓에 몸돌곳을 잃

고 적막한 바다기슭에 나와 외로이 시름겨운 파도 소리에 넋을 팔고있는듯싶었다.

문득 수평선 멀리에서 배고동소리가 들려왔다. 등대를 찾는 소리인듯싶었다.

로인은 비로소 옷깃속으로 스며드는 새침한 바다바람을 느낀듯 오싹 몸을 떨었다. 그가 막 발길을 돌리려는데 어데서인가 사람말소리가 들리는듯했다.

《으-웅?!》

로인은 무심결에 귀를 도사리었다. 파도소리를 잘못 들었는가? 아니, 바람결에 간간히 실려오는 사람말소리가 분명했다.

《머지않아 날이 밝겠는데...너무 무리하지 말고...지배인동무에 대해선 당조직에서 더 관심을 두고 방조를 줍시다.》

《비서동무 생각이...나도 인차 퇴원하여 그 사람을...》

(갑석이가?!) 로인은 감시병마냥 자세를 낮추고 바다를 배경으로 도래굽이 너럭바위쪽을 주시해보았다. 두사람의 형체가 너럭바위에서 일어서고있었다. 김갑석이가 분명했다. 또 한사람은 키가 후리후리한 경수네 초급당비서가 틀림없었다.

쨍! 로인은 가슴속에서 얼음장같은것이 꺼져내리는듯한 충격과 함께 육-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랐다. 와락 그들한테로 달려가고싶었다. 하지만 왜서인지 발에 뿌리가 내린듯 걸음을 내짚을수가 없었다.

로인은 멀어져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해무속에 꿈을 꾸는듯 서있었다. 이끌리는 마음갈아서는 그들과 함께 흥금을 터놓고싶었지만 그러지 않아마음을 쓰고있는 그들이 아닌밤중에 바다가에 나와 해매고있는 늙은이를 보면 더더욱 가슴이 저려날것이었다.

로인은 찌릿이 젖어드는 눈시울을 습벽이며 후-깊은 숨을 내뿜었다.

경수를 두고 그토록 심려하고있는 그들의 진정이 고마왔다.

(헌데 녀석은 발편잡을 자고있단 말이지.)

로인은 떠나기에 앞서 김갑석이와 초급당비서를 만났다.

그들은 한결같이 모처럼 왔다가 피로움을 안고 서둘러 떠나가는 로인의 정상이 마음에 걸려 그 잘못이 자기들에게 있기라도 한듯 진심으로 사과하며 만류했다.

경수가 아무려면 근본마저 잊었겠는가고 자기들을 믿고 마음을 놓으라고.

로인은 그들의 뜨거운 마음이 감득될수록 아버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책의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가슴속의 진액이었다....

로인은 낚시줄에 감겨도는 상념속에 하루해를 보내고있었다. 겨울동안 아가미를 봉하고있어야 할

잉어, 붕어사리들이 미끼타발을 하지 않는 가을철이라 방울소리가 자주 울렸지만 잡은 고기는 불과 몇마리 되지 않았다. 때로는 어데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군하는 갈매기에 넋을 팔고있다가 방울소리를 듣고도 미처 줄건사를 못하여 놓치기도 했지만 다분히는 경수가 성장하면서 새겨놓은 기억의 갈피갈피에서 되새겨보지 않을수 없는 그의 진면모가 뇌리에 밝히군해서였다.

방금전에도 그랬다. 느닷없이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있는 학교교실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안경을 낀 수학교원이 칠판에 수학공식을 풀고있다. 불쑥 학생들속에서 한 학생이 용수철 튕기듯 일어서며 선생이 풀고있는 공식이 틀리거나 한듯 자기가 알고있는 공식을 털거하기 시작했다. 선생은 어리광을 받아주듯 느슨한 미소를 보이며 그 학생을 칠판앞에 불러내었다. 학생들의 호기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 학생이 칠판한켠에 공식을 전개해나갔다. 공식은 달랐지만 답은 같았다. 그럼에도 그 학생은 자기연하여 보란듯이 으쓱해한다....

그것은 경수가 고등중학교 5학년때의 일이다. 경수가 집에 와서 제가 선생님보다 공식을 더 멋있게 풀었다고 자랑하는 말을 들은 로인은 《허허허...녀석두-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선생님앞에서 샷대질이나?》하고 나무람하면서도 장차 큰 일을 할 녀석이라고 여간만 대견해하지 않았었다. ...

로인은 가위에 눌린듯 미처 방울소리를 가려듣지 못하고있다가 눈결에 열레가 세차게 풀리는걸 보고서야 후닥닥 낚시줄을 잡아채었다. 그러나 고기는 벌써 《안녕히 제십시오》였다.

《놓쳤지... 놓쳤어 ...》

로인은 낚나간 사람마냥 그 한마디를 기계적으로 곱씹으며 우두커니 방울만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때 내가 애비의 본의를 지켜 녀석의 뺨을 쳤어야지.)

로인은 낚시줄을 손에 든채 사색의 심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돌이켜보면 경수가 그때 벌써 지금의 자기를 배태하고있었다.

그런데 애비라는 사람은 청맹과니처럼 자식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있었다. 총명하고 주견이 세고 승벽이 강한 큰일할 녀석이라고.

로인은 생각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자식을 낳아 사회에 내놓았다고 하여 아버지로서의 본분을 다한것이 아니다. 아들이 이젠 커서 반백이 되어간다해도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충신으로 되지 못하였을진대 애비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런 아들을 멀리 두고 이 늙은건 자기 할일을 다한것처럼 태평무사하여 여태껏 아들자랑이나 하며 살아왔다.

로인은 언제인가 《자식이야 걸을 낳지 속을 낳나.》하고 꺼리낌없이 말하는 3층 2호집 세대주를

문책하던 일이 생각나자 소래를 씹은듯 골상이 찌프러졌다.

(제주제에…그런 질책은 이 늙은게 받았어야 마땅했지.)

그런데도 당비서와 김갑석이네들은 오히려 자식을 설키운 늙은 애비를 위로하여 더 마음을 쓰고 있지 않는가.

로인은 《아우-아우-》 누구인가를 찾는듯 구슬픈 소리를 지르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동해에서 김갑석이가 그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날려보낸 갈매기인듯싶어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로인은 지난밤에도 종시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경거불서 잠이 드는듯하면 기다렸던듯 병상에 누워있는 김갑석이가 눈앞에 안겨오고 경수의 코고는 소리가 귀벽을 허비는듯하여 소스라쳐 눈은 뜨군했다. 그때마다 악몽에서 깨어난듯 이마에 식은땀이 내돈군했다.

로인은 지쳤다. 그리고 깨달았다. 하루빨리 번뇌를 털어버리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영영 자신을 잃고만다는것을…

로인은 고즈넉한 강변에 노을의 붉은 색조가 물들고 갈매기도 어데론가 깃을 찾아간듯 더는 보이지 않아서야 주섬주섬 낚시도구들을 거두기 시작했다. 낚시줄을 다 거두고나서 물에 담가놓은 고기구력을 들러다가 일렁이는 물결에 비쳐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전기에 감전된듯 굳어졌다.

《대동강변에 태를 묻은 내가 인생말년에 와서 이렇게 작별해야 하는가?》

일렁이는 물결을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그 모습은 그대로 몸부림치는것 같이 보였다.

로인은 달리는 할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인정하듯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구력을 집어들었다.

3

어둠이 깃들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로인은 안방에 불도 켜지 않고 앉아있었다. 거리에서 명멸하는 가지각색의 화려한 불빛들이 담배연기가 안개처럼 떠도는 방안의 어둠과 조화를 이루어 연연한 추억의 화폭들을 펼쳐보이는듯싶었다.

로인은 번뇌도 피로움도 시름도 다 잊고 회억의 세계에 잠겨 그대로 잠들고싶은듯 조용히 눈을 감고있었다. 그러나 뇌리에 밟히는 추억의 갈피속에서 그대로 묻어둘수 없는 무엇인가를 찾은듯 살풋이 눈시울을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비로소 어둠을 느낀듯, 아니 그 무엇인가를 현실로 재현시켜보고싶은듯 장농에서 초와 구리술잔을 꺼내놓고 성냥불을 켰다. 초불에 구리술잔을 비쳐보는 그의 눈빛은 깊은 감회에 젖어있었다. 마침 안늙은이가 조심스레 방안의 동정을 살피며 들어왔다. 로파는령감이 정말로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았나 하여 눈이 휘둥그레졌다.

《밝은 전등불을 뒤두고 궁상스레 초불은 왜 켜놓고 그러시우?》

《여러말 말구 술병이나 가져오라구.》

그제서야 안늙은이도 짐작되는것이 있는듯 소반에 약간의 안주와 술병을 차려들고 들어왔다.

로인은 초불을 소반모서리에 세워놓고 마누라를 돌아보았다. 로파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시름에 싸인 애잔한 시선을 물끄러미 초불에 태우고있었다.

로인은 눈결에 마누라의 오른손 약손가락에 가느은반지가 끼여있는걸 보자 불현듯 그 손을 꼭 잡아쥐고 다시한번 그 반지를 끼여주고싶은 충격에 부르르 손을 떨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빈술잔을 집어들었다.

《어서 부으라구.》

그 음성은 형언할수 없이 측은했다.

로파는 놀란듯 령감을 일별해보고는 술병을 들었다. 그러나 쏘르륵 소리날것 같은 술잔에 한방울도 부어지지 않았다.

로파는 초불에 금빛으로 빛나는 구리술잔을 보자 그 어떤 강한 충격을 받은듯 채머리를 뽀뽀 술병을 기울이지 못하고있었다.

은반지와 구리술잔, 로부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가보였다. 그들이 성례를 갓출 때 주고받은 《례장》이란 그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였다. 로부부는 약속이나 한듯 소리없이 타고있는 붓초리같은 불망울을 숙연히 바라보며 한동안 그런 듯 앉아있었다.

초불도 방울방울 자기몸을 녹이며 성례를 올린 그날로부터 반세기 가까운 부부평생의 희로애락을 추억하고있는듯싶었다.

갑자기 초불이 흔들렸다.

로인이 가슴속이 열리지 않는듯 깊이 들이그는 숨을 길게 내뿜으며 마누라를 돌아보았다. 어차피 리원으로 가지 않을수 없는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헤쳐놓아야 했다.

《진정…》 하고 말을 댔 로인은 무거운 연덩이를 한알한알 꺼내놓듯 뒤말을 이어나갔다.

《갑석이 그 사람이야말로 한생을 저 초불처럼 살아왔지 …》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은근히 마음의 탕개를 죄고있던 로파는 저도 모르게 후드드 가슴속이 떨려왔다.

《그게 무슨 소리시우?... 그 사람을 성 쌓고 남은 돌처럼 대하다니... 그대 우리 경수가 그런 배은망덕을 부리고있단 말이우?》

로인이 경수이야기를 번져놓자 로파는 떠밀리우기라도 한듯 멍그적 다가앉으며 기절초풍할것 같이 실색했다.

《그녀석이 그러구두 아직두 제노라구. 잘못을 뉘우치려 하지 않으니...으-음-》

로인은 꺼질듯한 한숨을 쉬고나서 자신에게 말하듯 동을 달았다.

《결국은 우리가 속이 빈 자식을 키웠단 말이지…》

《그만하시우! 아무리 제자식이라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우…》

로파는 안면마비가 온듯 얼기설기 고풍을 이룬 주름살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듯싶었다.

로인은 마누라가 그러는바람에 차마 떠나야겠다는 말을 못하고 울대뻘만 꿈틀거리고있었다. 그런데 마누라권에서 먼저 그 말을 꺼냈다.

《그래서 퇴거신청까지 했수? …》

《영?》

《난 못믿겠수다…아무려면 우리 경수가… 아니 그럴수 없어요…믿어지지 않수다…》

로파는 뿔어오르는 오열을 참을수 없는듯 도리머리를 마구 흔들며 방에서 나갔다. 미구하여 안늙은이의 눈물을 본 맘머느리와 방금전에 도착한 둘째아들 내외 그리고 지성이와 경심이까지 무슨 일인가 싶어 로인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초불앞에 숨엄히 앉아있는 로인을 보자 누구도 전기불을 켜 생각을 못하고있었다. 무거운 음영이 비낀 로인의 정상은 며칠사이에 퍼그나 수척해보이였다. 눈가에 심늬의 흔적인듯 주름살도 더 깊어지고 귀밑머리도 더 희어진듯싶었다.

로인은 불안이 실린 가족들의 눈빛을 마주 볼수 없는듯 지그시 눈을 감고있다가 힘들게 입을 열었다.

《거게들 앉거라. 내 어차피 말을 해야겠다…》

지난 며칠사이에 맘머느리의 간절한 물음에조차 대답하기 저어하던 로인이 드디어 상심하는 까닭을 가족들앞에 터놓기 시작했다.

격해지는 숨결을 잔기침으로 달래며 이야기를 번져나가는 로인의 표정과 어조는 듣는 사람들의 눈앞에 경수의 생활세부까지도 방불히 재현시켜보이였다.

어느결에 안늙은이도 자기를 수습하고 조용히 맘머느리결에 와 앉았다.

가족들은 로인의 이야기가 진정한가를 의심하듯 온몸이 귀가 되어있었다.

《내 한생에 자식의 고르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것처럼 가슴아파보기는 처음이였다…》

로인이 목이 갈린듯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물을 청했다. 물사발을 받아든 그는 갑자기 마실 생각을 잊은듯 물끄러미 흔들리는 물을 응시하고있었다. 그속에 경수의 얼굴이 비껴있는듯.

방안에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족들의 표정에 실린 의분과 실망과 자책의 감정이 하나로 융합되어 방안공기를 무겁게 누르고있었다.

이윽하여 과묵한 둘째가 먼저 침묵을 깨뜨리었다.

《아버지,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간을 내어 리원에 갔다오겠습니다.》

《할아버지, 삼촌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지성아! …》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있던 맘머느리가 엄한 어조로 아들을 눌러놓았다.

《아버님…》 하고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핑 까닭모를 물기가 어리였다.

《제가 맘머느리 구실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의아쩍은 눈들이 그에게로 쏠리였다.

《저는 지금까지 그 적은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고 자부하고있었어요. 전사한 형님의 넋을 지닌 일잘하고 생활잘하는 적은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적은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고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나 무관심했던거예요.》

아버님, 늦게나마 제가 적은이한테 갔다오겠습니다.》

로인은 지그시 눈을 감고있었다. 아침에 퇴거수속을 할 결심으로 집을 나서던 때의 감정이 되살아올라서였다. 막상 집을 나서자고보니 맘머느리와 손주머느리 그리고 때도 시도 없이 눈앞에 안겨오군하는 전사한 맏이의 눈길들이 발목을 휘어잡는것만 같아 의지의 힘만으로는 걸음발을 내어짚을수가 없었다. 주먹같은 불덩어리가 목구멍을 지지는것 같았고 수천개의 얼음조각들이 가슴을 허벼내는것 같은 형언할수 없는 심정을 리성으로 달래며 퇴거신청서를 받아든 그였다.

가족들은 로인의 몸안에서 지진이 인듯 짝 다문 두툼한 입술과 허연 장미가 뻘뻘죽 내뿜은 꼬리없는 토막눈썹과 굵은 주름살들에 경련이 지나가는것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있었다.

(정녕 떠나야 하는가?)

번쩍 눈을 뜬 로인은 모로우에 올려놓은 쇠덩이 마냥 얼굴빛이 검붉어졌다.

《내 진정 법권을 가진 판사라면… 음-》 하고 이지러진 입술새로 쓰거운것을 내뱉듯하고나서 말머리를 돌리였다.

《내 말을 명심해 듣거라. 지금에 와서 누가 찾아가 비판하고 혼쭐한다고 해서 고쳐질 경수가 아니다…내 그래서 달리는 어쩔수 없어 이미 결심했다!》

방안공기는 다치면 터질듯 긴장해졌다.

로인은 마치나 법정에 선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음성을 가다듬듯 《음-》 하고나서 뒤말을 이었다.

《난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보고 흥판사라고 부르는걸 명예처럼 여기며 한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있었다. 그러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마음편히 받으며 여생을 보내고있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야 제자식을 옳게 키우지 못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구나…》

로인은 불안과 애원이 실린 맘머느리의 해쓱해진 얼굴을 보자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앞에 놓았던 물그릇을 들었다.

방안에는 맥박소리도 들릴듯한 고요가 깃들었다.

멀리에서 무궤도전차가 흘린 파란 불빛이 번개 빛마냥 유리창을 소리없이 때리고 사라진다.

이윽고 빛을 따르는 우뢰소리마냥 로인의 웅글은 음성이 침묵을 깨뜨렸다.

《내 그래서 리원에 가서 살기로 결심했다.》

《…?》

로인은 이미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온 퇴거신청서 용지를 내보이었다. 거기에는 벌써 로인의 도장까지 찍혀있었다.

《아버지, 그러니 아주 가자는겁니까?》

《할아버지, 안돼요! … 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지성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아흔들며 울분을 터트리였다. 그러자 물목이 터진듯 가족들모두가 만류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보내겠나요. 난 못보내겠어요. 아버님…》

어느결에 퇴거용지를 앗아온 맏며느리가 눈물을 머금으며 입술을 떨고있었다.

로인은 맏며느리의 정상을 차마 마주볼수 없는 듯 소리없이 타고있는 초불만을 응시하고있었다.

《그러지들 말아라…》

뜻밖에도 깊은 생각에 잠겨 기척없이 앉아있던 안늬은이가 불쑥 입을 열었다. 비감에 젖어있던 모두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그한테 쏠리었다.

《그 어느 손가락이 굵기 시작했다고 찢라버리겠느냐. 여생에 아버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이러지들 말여라.》 하고 이미 자기를 수습한 토파는 로인을 위로하듯 경건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로인도 의외인듯 놀라는가싶던 얼굴에 감동의 빛이 어리었다.

일순간 방안은 감성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초불도 고요히 자기몸을 태우며 로인 량주의 곁곡한 심정을 비쳐보는듯싶었다.

이윽하여 맏며느리가 조용히 눈물자욱이 찍힌 퇴거용지를 도로 내놓았다. 시아버지를 올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맑은 이슬이 맺혀있었다.

이틀후에 로인량주는 평양발 금골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로인이 퇴거수속을 하자 안늬은이도 공민증을 내놓으며 젊어서 사이 좋던 부부는 늙으면 하루만 못보아도 세번 안부묻는다는데 바늘가는데 실이 안가겠는가고 따라나섰다.

맏며느리와 가족들이 로인이 몸소 남달리 정한 대사날에 손자잔치도 보고 진갑상도 받고 가라고 간청했으나 로인은 굳이 도리머리를 저었다.

《정 소원이라면 리원에 가서 그곳 사람들앞에서 받으려다. 그곳 사람들앞에서…》 하고 그곳 사람들앞에서라는 말을 의미깊이 되뇌이였다.

할아버지의 그 심정을 감수한듯 지성이와 경심이도 자기들의 결혼식도 리원에 가서 하겠다고 했다…열차는 정시에 출발했다.

로인량주는 침대칸 차창에서 손을 흔들고있었다.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며 속도를 놓기 시작하자 바래움을 나온 가족들모두가 열차를 따라서며 목메인 소리를 터치였다.

《아버님, 몸 주의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목메인 소리는 열차의 기적소리와 함께 영원한 메아리처럼 울리었다.

민들레꽃

한춘실

꽃망울같이 가슴 부풀던 시절
나는 사랑했네 이른봄의 민들레를

피었다 스러짐이 아쉬워
씨앗에 날개달아 멀리멀리 날으는 정열의 그 꽃을

한철에 피여도 뜻을 남기고
한철에 지여도 래일을 기약하는 꽃

따스한 봄계절 이 땅의 산과 들 오솔길마져
선참으로 곱게 장식하는 그 모양이 교와

못사람들 눈길 끄는 화려한 꽃밭에
한번 제 얼굴 내보이지 않아도

다발의 꽃으로 련인의 가슴에 안겨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애무받진 못해도

나는 사랑하네 머리흰 오늘까지
남모르는곳에 홀로 퍼도 향기를 남기는 꽃

나는 사랑하네 정열의 그 꽃을
소박해도 변색없이 피고피는 민들레를

인물들의 성미를 무시하지 말자

윤상현

당은 지금 우리 문학을 참다운 인간학으로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그럴것을 요구하고있다. 작품에서 인간을 인간으로서 본격적으로 파고들지 않고서는 현대인들에게 통할수 없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본격적으로 파고든다》, 이 말속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주되는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성격의 핵인 세계관, 사상의지이며 파고드는것이므로 그렇게 또 우리 작가들이 실지로 그렇게 하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측면에만 관심을 돌려가지고는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모습을 펼쳐놓을수 없다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물의 세계관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돌리고 기질적인 측면을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서 기질은 무시할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의 기질이 같은 경우란 별로 없다. 사람의 기질은 상대적으로 공고하게 여겨있으며 일생동안 잘 변하지도 않는다.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 하여도 그 세계관이 서로 다른 다양한 기질에 굴절되면 성격이 서로 구별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인물의 기질을 단순화하고 도식화하는것도 전형화의 원칙에 어긋난다. 매개 사람들의 성미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중시되고있는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생활에서는 《아무개》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가 《이러이러한 성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표상부터 떠오를 때가 많다. 부서나 직장에 새 사람이 들어오면 그의 성미부터 파악하려고 할 때가 많으며 시합들과 교제하거나 지어 일생의 반려자를 고를 때까지도 상대방의 성미가 중요하게 고려되어군한다. 생활은 이러한데 어찌하여 우리 작품들 가운데는 성미에 대한 표상이 없는 인간모형들이 자주 나타나는가 하는것이다. 요즘 나오는 소설과 극작품들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인상, 사상적인 표상은 있으나 자기고유의 인상적인 성미를 체현한 인물은 그리 많지 못하다. 오히려 성미가 없다고 할수밖에 없

는 인물이 점점 늘어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세월이서는 오들까지 근 30년세월이 흘러오도록 인물의 성미문제에 대하여 거의나 침묵을 지키고있으며 지어 어떤 문인들은 인물형상에 성미묘사가 별로 의의없는 소소한 문제로 된다고 단정해버리고있다.

우리는 결코 성격형상의 기본비결이 성미묘사에 있다거나 개성화의 수단에 성미묘사에 없디고 주장하는것이 아니다. 적어도 성미가 없는 인물은 인간자체가 아니며 성미묘사에 무시된 인간형상은 추상적인 사상의 전성관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다는것, 인간을 인간으로서 본격적으로 파고들자면 그의 성미도 특색있게 들춰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는바이다.

×

지금으로부터 췌 오래전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극장무대와 소설에 지주를 등장시킬 때마다 사배가 불뚝 나온 풍동보화상에 사육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마리나 사육심사나운 돼지형의 성미로 그리군하여 《그것은 도식이다. 지주성미가 같겠는가.》 하는 비평을 받은적이 있었다. 이 비슷한 현상은 미군을 그리는데 경우도 나타났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미군놈이란 거만대 코가 큰 노랑머리화상에 걸멋부리기 좋아하고 겁이 많은 성미를 가진자들이었다. 지를 많은 많이 개성되었지만 성미류형화한 이런 창작경향이 왜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성미에는 매 개인의 고유한 특징이 있으면서도 사회계층별, 직업별,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일정한 류형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육혼한 지주라고 하면 약삭하고 육심사나운 성미로 표상하게 되고 미군놈이라고 하면 아이들보고 《오우, 어찌어찌합네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투에서부터 걸멋을 부리기 좋아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성미로 표상하게 된다. 실제 해방전의 적지 않은 지주들이 그러했고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적지 않은 미군이 그러했기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작품마다 사람들의 관념적인 표상으로 굳어져있는 그 한가지 류형으로만

인물의 성미를 그럴 때는 곧 《도식이다!》, 《상식적이다!》라는 식의 비난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데 있다. 그럴 때 독자를 탓해야 하겠는가, 작가를 탓해야 하겠는가.

물론 사람들의 인상속에 일정한 관념으로 굳어진 표상이라면 그것이 해당 대상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되는것만은 사실이다. 만약 《그것》이 해당 대상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되는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보여주어야 그 대상을 일반화, 전형화한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럴수 없다. 《그것》이 성미인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를 세울수 없다. 왜냐하면 성미문제는 개성화수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작가가 성미를 묘사하는것은 인물의 사회계급적특성을 보다 개성적으로 실감있게 보여주기 위한것이 지 성미가 사회계급적본질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인것은 아니다. 인물의 전형화를 이루는 일반화와 개성화의 두 측면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킬수는 없지만 성미묘사문제에 인물의 사회본질자체에 관한 문제인가 개성화에 관한 문제인가 하고 구태여 따져묻는다면 어디까지나 후자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인간의 내면적특질을 이루는 여러 요소 가운데서 본질적인것은 세계관, 사상의지이며 성미는 보다 부차적인 요소로 된다.

세계관, 사상의지가 인간의 사회계급적립장과 태도를 결정하는 본질적징표라면 성미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개성과 관련된 표정인것이다. 사회주의문학은 인간의 성미문제를 기본성격적과는 제로, 특히 주제로 내세워서 안되며 그 어떤 형의 인간성미를 찬양하는거나 타매하는 사상을 기본으로 내세워도 안된다. 우리문학의 인물형상에서 추구되는 목적은 그의 세계관, 사상의지적 측면에 있지 그 어떤 성미문제에 있는것이 아니다. 성미문제가 목적으로 될수 없다. 그것은 결국 어떤 다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문제나 수단문제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성미묘사가 인간의 사회계급적본질을 일반화하기 위한 개성화의 수단으로 된다면 그 실현도 개성화의 요구에 맞게 되어야 할것이다. 다시 말하여 될수록 어떤 공통적인 방

향으로 지향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될수록 독특하고 개성적인 방향으로 그리려고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가 가령 농민을 형상한다고 할때 추상적인 농민이 아니라 살아숨쉬는 생동한 농민을 그리며 농민일반을 어느 한 개별적인 농민의 모습으로 개성화하여 보여준다. 농민일반을 놓고 말할때는 물론 그의 성미를 이러저러한 유형으로 단순화할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인 농민을 생고 말할때는 절대로 유형화할수 없다. 백이면 백이 다 다른것이다. 문에서는 바로 백이면 백이 다 다른 그 독특한 측면을 포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조선의 봄》에 나오는 농민의 형상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관념으로 표상하고있는 농민형의 성미는 근면하고 과묵하고 고지식하고 소박한 유형이지만 홍묵의 성미는 전혀 그렇지 않다. 홍묵이는 오랜 세월 남한테 뜯기우고 지지리 못할아오는 과정에 어느덧 타산이 밝고 공짜를 좋아하라는 성미가 붙었으며 여기에 수다스럽고 난동이라고 할만큼 민첩하고 활동력이 강하며 데실데실 하면서도 잔잔하기도 한 독특한 성미가 겹쳐있다. 그는 자기 사위를 땀대하는척하면서 실은 불을 갈이 사랑하며 개인리속에 밝으면서도 청렴한 측면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는 농민형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미를 체현할만 가지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류달리 인상깊은 농민전형으로 안겨오고있는것이다. 작가가 과연 농민성미의 일반적 유형에 포로되진다면 홍묵이와 같은 기품진 개성적형상을 빚어낼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저지 않은 작가들은 인물들의 성미에 해당 직종과 연령, 성별에 따르는 유형을 곧이곧대로 옮겨놓고있다. 최근에 창작된 작품들에 나오는 당일군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거의나 똑같은 표상 즉 인자스럽고 접잖고 모든면에서 원만한 그런 성미가 떠오르고있다. 누구나 자기네 당비서들을 생각해보면 그속에는 날과날있고 보채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칼날같이 날카롭거나 과묵한 사람, 쾌활한 사람도 있을것이다. 현실은 이런데 작품에서는 무엇때문에 접잖은 당비서만 자주 나오는가 하는것이다. 지난 한때는 작품들에 《까르르...》 웃기 잘하는 발랄한 처녀들이 자주 등장하더니 요즘에는 따벌처럼 쏘기 잘하는 맏딸 처녀들이 유별나게 관을 치고있다. 처녀라고 해서 발랄한 성미나 맏딸 성미만 있을수 있다고 볼수야 없지 않는가.

지금 나오는 소설들에서는 주인공들이 부정인물보다 성미가 덜 개성적이라는 감을 많이 받게 된다. 부정인물들은 흔히들 가치고 비교적 개성적으로 행동하나 긍정인물들 특히 주인공인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다. 원인은 긍정적전형이라고 하여 사람의 성미가운데서 좋다는것은 다 따다붙이려는데 있다. 성미도 발견해야 한다. 발견된 독특한 성미는 인물을 순간에 생신한 모습으로 일신시키며 나아가서 그의 행동선에 대한 기발한 착상까지 불러일으킬수 있다.

X

인물의 성미를 어떤것으로 골라잡든지 해당설정의 생활적연원이 독자들에게 충분히 납득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남다른 특징적인 성미를 부여할수록 그 근거가 명백해야지 자칫하면 특징적인것이 오히려 중뿔나고 피상한것으로 되어버릴수 있다.

장편실화소설 《탐구자의 한생》(리규택)에서 주인공의 성미는 류달리 이채로우면서 동시에 충분한 내적연원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진실하게 안겨온다. 주인공 계응상에게 있어서 과학담과 연구활동은 곧 처절한 모태감과 필사적인 분투과정이었다. 그는 과학연구를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일이 되어가는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생사를 걸고 한다. 그에게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잠업연구이외의 대상은 일체 무관심과 소의대상으로 되고있다.

계응상은 생활관습도 유별하다. 집에서는 늘 잠뱅이를 입고 뽕밭을 돌볼 때는 왕얼기짚신을 신고 사과를 네쪽으로 내려 한번에 한쪽씩만 먹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자주 눈을 감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익한 일에 시력을 소비하지 않고 정화된 감정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려는데서부터 생겨난 버릇이다. 술담배는 물론 육류도 일체 입에 대는 법이 없으며 지어 하루 세끼 식사에 대한 절제계통도 매우 엄격하다.

이 모든 특징과 생활관습은 그의 고지식하고 절제가 강하고 열정적인 성미를 잘 말해주고있다. 한마디로 주인공 계응상은 《광신》적이라고 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이악한 과학탐구자형이다. 남달리 올곧고 대바르고 청렴하며 한번 틀어진 길에서 끝장을 보고야마는 그지없이 검절기고 고집이 센 성품을 지니고있다.

그의 성미가 이런 형태로 고착될 때까지 선천적인 요인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는 볼수 없으나 그의 독특한 성미를 형성시키는데서 보다 결정적인것은 사회적영향과 목적의식적인 생활개성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개성적기질이 복잡다단한 사회생활의 흐름과 더불어 하나하나 축적응고되어 오는 과정을 분석적으로 묘사하고있다.

계응상의 독특한 성격형상에 작용한 기본동인의 하나는 그의 불타는 학구열과 조선의 잠업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올려세우려는 비상한 사상적지향과 책임감이다.

어린시절 때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서선 그는 하나를 배우면 들을 배우고싶고 서당공부를 마치면 중학교에 들어가고싶은 강렬한 열망으로 늘 학문에 굶주려오는데 나머지 학문 이외의 다른데 헛웃을 팔새가 없었다. 지식이 축적되어 어느덧 세계적인 잠업과학에 섭렵하면서부터 그는 조국이 일체의 식민지로 있는 사이에 우리의 잠업이 어느 정도로 낙후한지경에 떨어져있는가하는것과 그 아득한 나라에서 세계적인수준에까지 솟구쳐오르자면 남보다 몇십 몇백배의 어려운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것을 비로소 절감하게 된다. 길바쁜 사람에게 길 좌우편에 걸는 팔새가 없다. 오직 한목표만을 겨누고 곧바로 숨가쁘게 달려야 한다. 결국 이 려는 저도 모르게 고지식하고 절제가 강하고 어느 한가지일에 몰두하면 모든것을 잊곤하는 그런 형태의 성미를 지니게 된다.

계응상의 성격형성에 작용한 다른 하나의 동인은 그의 뜻과 지향을 걸음걸음 막아나서는 낯은 사회환경과의 끊임없는 피어린 격투이다.

완고한 봉건구습에 물젖고 폐지도록 가난에 쪼들리는 가정의 어려운 환경은 배움의 길을 열망해온 그가 처음으로 부딪치게 되는 장애였다. 그 환경을 간신히 뚫고나와 서울에 올라오니 이번에는 그에 비할바없이 지독한 사회적압력이 내려누른다. 돈 없고 권세 없는 그가 이악하게 환경에 도전하여 겨우 중학을 마치고나니 배움의 길은 일단 그것으로써 끝장난다. 다시 솟구쳐 낯설은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의 전문학교생활, 대학생활 그리고 그 이후 연구활동과정의 걸음걸음은 어느 하나도 순조롭게 이어진적이지 않다. 갈수록 험악한 사회적중압과 횡방, 쓰디쓴 실패와 좌절, 련속되는 이 모든 다난하고 피로운 생활곡절을 이겨내며 한

치한치 툭어나가는 과정에 그에
게는 어느덧 특수하게 이악하고
고지식하고 독하리만치 강한 기
질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충
분한 생활적전제와 내적근거지
에 제시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의 주인공들 형상에서 레외적이
라고 할만치 특수한 성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없이 진실하게 안
겨오게 된다. (이상의 과정이 성
미 하나에만 국한된 발전과정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 계층상의
성격발전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
은 세계관이다. 주체사실주의문
학에서 세계관과 동떨어진 성미수
묘사란 있을 수 없으며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의 성미문제
론의하는 마당이므로 세계관문
제를 전제로 하고 성미에 대해서
만 언급했을 뿐이다.)

경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
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나
는 성미의 연원을 그 어떤 선천적
관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사회생활과정에서 찾아내
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
물의 세계관적기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지금 부르조아반동문학과 수
정주의문학에서는 인간의 그 어
떤 생물적이며 고정불변한 본능
적기질을 운운하면서 성미를 세
계관과 분리시키고 인간을 초계
급적인 생물학적존재로 묘사하
고 있다. 우리 문학은 특정한 인
간들의 그 어떤 기질적 《우월
성》을 설교하거나 인간을 생물
학적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
로 그리고있는 자연주의의 자그
마한 요소도 허용할 수 없다.

성미는 사람의 외모와 행동,
언어같은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
다.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은 자
기 성미에 맞게 외모를 다듬고
말투를 고르며 행동방식을 취하
다. 작품에서 인물의 외형묘사나
행동묘사, 대사형상에서 그의 성
미를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은 당
연하다.

그러나 성미와 보다 근본적인
영향관계에 있는 것은 세계관과
사상의지적측면이다.

작가는 해당인물의 세계관과
사상의지가 성미발전에 어떤 작
용을 하며 또 성미가 그의 세계
관 및 사상의지 발전에 어떤 반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
게 사고하여야 한다. 특히 그 두
사이에서 성미가 결정적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 사상의
지가 결정적역할을 하며 세계관
이 성미의 사상적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준민이는 처음부터 생각이
깊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리지
깊은 성격으로 나타나고있다면
준호는 생각보다 감정이 앞서
고 행동이 더 앞서는 과격하
고 성미를 가진 인간으로 나타
고있습니다. 이러한 기질에 사
상의 대가 확고하게 서나가는
과정을 잘 그리면 혁명가로써
의 개성적면모를 두드러지게
살려내면서도 성격이 발전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줄 수 있
을 것입니다.》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
에서 준민이는 국내혁명조직을
무어세우는 보람찬 투쟁을 통해
확고한 정치적인념을 지니고 자
를 기의 침착하고 리지적인 성미
더욱 생동하게 나타나게 되며 준
호는 조급한 성미때문에 저지르
는 과오들을 통해 정치적준비와
단련이 부족한 자기자신을 이모
저모로 돌이켜보면서 혁명적수
양을 쌓아나가고있다.

이처럼 두 인물의 각이한 성미
는 정작용 혹은 반작용의 형식으
로 세계관성장을 부각하고 동조
해주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인물의 세계관
적측면과 성미의 측면을 분리시
키지 말고 밀접한 연관속에서 그
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성미
의 사회적속성이 명백해지고 세
계관적특질을 보다 생동하게 부
각시킬 수 있다.

×

작가들은 2000 년대를 바라보
는 오늘에 와서 우리 사람들의
성미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똑똑히 리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성미는 성실하고 강직한 성미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시대 숨은 영웅들은 누가
보건말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
한생을 묵묵히 바쳐 성실하게
하며 생활하고있다. 그들의 모범
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벌어지면
서 우리 사회에서는 앞에서는 충
실한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자기
리속을 차리는 안판이 다른 사람,
말만 번지르하고 실속이 없는 사
람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타매대
상으로 되고있으며 문학작품들
에서도 그런 성미를 가진 사람들
이 흔히 부정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깨끗이 바칠 줄 아는 청렴결
백하고 량심적인 성미, 거짓과
변심을 모르는 순결한 성미, 말
보다 실천이 앞서는 그지없이 성

실하고 근면한 성미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성미는 또한 다정다감하고 인정
미있는 성미로 발전하고있다.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평등한 자수적인 관계인 동시에
서로 아끼고 헌신적으로 도와
주는 동지적사랑의 관계이다. 사
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에게 뜨겁지 못한
사람은 당과 수령 앞에서도 마음
이 뜨거울 수 없다. 차갑고 물인
정스러운 성미로는 혁명동지와
집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
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지키기 어렵다. 이
런 의미에서 어느 한 평론가가
우리식 문학을 론하면서 인정미
문제적 사회정치적생명체속에
혈연적으로 결합되어있는 개별
적 인간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그
리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
한 것은 공감할만한 일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성미는 또한 패기있고 열정적인
성미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금 속도전의 열
풍이 몰아치는 비상히 앙양된 전
투적인 시대에 살고있다. 안일과
해이, 로쇠와 평감리, 침체와 답
보는 조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패기와 정열을 절실하게 요구하
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성미
도 그런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반사실은 우리 시대의 주인
공들을 형상함에 있어서 그들이
지닌 성실하고 강직하며 다정다
감하고 인정미 있으며 패기있고
열정적인 성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결코 긍정적주인공의
성미를 몇몇 대표적 유형들의 틀
속에 갇아넣고 단순화하라는 말
이 아니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미를 두세가지 유형으로만 전
편어놓을 수 없으며 우에 지적인
성미유형도 구체적으로 보면 천
태만상의 야류들과 복합형들, 각
이한 표현형태들을 가지고있다.

시대와 현실의 특징을 구현하
면서도 서로 확연히 구별되는 독
특한 성미를 발견해내자는 것을
강조하는바이다.

×

장편소설 《조선의 봄》에서
홍묵의 성격발전과정을 한마디
로 요약하면 리속이 밝고 공짜를
좋아하던 사람으로부터 그 반대
방향 즉 리속이나 공짜는커녕 자
기의 목숨까지도 혁명에 바치는
사람으로의 전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조와 비약으로 특
징되는 이 성격발전의 극적이며
미있는 굴곡을 어찌 그의 남다른

성미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작품의 경험이 보여주듯 바와 같이 작가가 인물에게 어떤 성미를 부여한 다음에는 그것의 성격발전과정에 작용하는 내적요인으로서는 그의 운명선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도록 형성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문학작품에서 성격발전선은 인물마다 서로 다른 곡선형태로 그려지게 된다. 한것은 그 운명발전에서 작용하는 생활환경과 객관적조건 그리고 특이한 세계관, 의지, 성미 등이 인물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미가 운명발전선에 작용하는 중요요인 내적으로서의 하나로 된다는 것을 말해주며 따라서 성격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성미가 독특하게 설정될 때에는 운명발전선도 독특한 곡선형태로 그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학작품에서 세계관만 아니라 성미 때문에 그 인물에게 어떤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사건선, 인물선이 비틀어지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일부 작가들은 해당 인물과 맺어지는 여러 인간관계의 선과 사건선, 그 인물의 성격발전과정까지 미리 다 세워놓은 다음 《그는 깐깐하고 자심한 성미였다.》, 《...는 원래 우물거리는 기질이 잘하는》, 《사람이다.》는 식의 몇마디 서술을 덧붙이는 것으로 인물들의 성미묘사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작가가 미리 설계해놓은 인간관계와 사건, 운명선이 과연 어느 정도의 생활적 기초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가끔 경험있는 작가들로부터 《작가가 인물을 끌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작가를 끌고나간다.》는 말을 듣곤 한다. 사실로 작가들은 집필과정에 인물이 작가의 기존계획을 뒤집으며 자기 식의 생활을 요구하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다. 이것은 적어도 해당인물의 성격론리를 충실히 파악한 작가한테만 있을 수 있는 경우이다. 바로 성미까지를 포함하여 해당인물에 대한 완전한 표상을 똑똑히 갖춘 상태에서 인물을 출발시켜야 인물이 요구하는 성격론리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인물을 출발시킨 다음에는 그가 자기 세계관, 자기 성미에 따라 움직여나 가려는데 대하여 작가가 함부로 《간섭》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

성미묘사에서 일관성을 보장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나선다.

물론 사람들의 성미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매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의 성미에서 조화로운 특질이 미묘하게 발견되어 있을 수 있다. 일상적으로 매우 대우 받고 시원시원한 사람인 것 같고 같은 데 가끔 보면 섬세하고 꼼꼼하게 행동할 때도 있곤 하며 몹시 쾌활하고 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아마도 사람마다 성미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이처럼 상반되는 측면이 뒤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일정한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는 하여튼 사람이 쾌활하다고 하여 무작정 그 한쪽으로 쾌활하기만 해서 사회생활에서 실패를 면할 수 없을 것이며 대범하다고 하여 모든 일을 대범하게만 대하지 않고는 일처리를 옳게 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회생활에서 거둬들여야 하는 이런 체험과정에 어느 정도 쾌활한 사람에게도 과묵한 요소가 깃들게 되고 대범한 사람에게는 그 대범성을 조절하는 상반되는 성미가 결들여지는 것 같다.

그러나 작가는 이런 사실에 대한 리해를 정확히 가져야 한다. 일단 사람들에게 쾌활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라면 쾌활성이 그의 성미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단 쾌활한 성미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와 상반되는 성미도 없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다시 말하여 한 사람의 성미에 대해 운운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어느 한 특질을 일단 강조한 다음 그와 다른 여러의 성미를 부차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가령 쾌활한 성미를 가진 사람은 생활에서 대체로 쾌활하게 행동하게 되며 가끔 우물거려도 과묵하게 지내는 경우는 반드시 그럴만한 리유가 있을 때뿐이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에서 인물을 일단 쾌활한 성미를 가진 것으로 설정한 다음에는 타당한 생활적 근거와 타당성이 없이 쾌활성과 상반되게 이랬다저랬다는 식으로 형성하지 말아야 한다.

×

성미묘사에 효과적인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만나자 곧 상대방의 성미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의 성미는 상충관계가 깊어질수록 첫인상과 달리 꺼지거나 지어 정반대의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활현상에 토대하여 역설적인 뒤집기수법으로 성미묘사에서 여러 가지 극적효과를 조성할 수 있다.

단편소설 《새로운 기술에서》(한웅빈)의 주인공 강일호(나)와 리신철의 형상이 주는 생신한 개성미는 재치있는 역설적인 성미묘사와 적지 않은 관련되어 있다. 작품에서 주인공은 세계관적인 측면은 물론 기질면에서도 완전히 대조적이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강일호의 첫 인상은 참을성 없고 뽀이 나게 뻗어진 성미로 특징되고 있다. 그의 간식지에 온 첫날부터 일체의 기준관념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것을 자기 견해에 비추어 나쁜 것은 나쁘다고 드러내놓고 말하며 또 마음들이 않은 것을 앞에 놓고는 도무지 참으려 배기지 못하는. 생활의 계기마다에서 번번이 사람들과 마찰하고 성급하여 일부 사람들 속에서 비틀어지고 꼬

이에 비해볼 때 리신철의 첫 인상은 모든 면에서 원만하다. 침착하고 여유작작하고 참을성 있고 주위분위기에 쉽게 설득된다. 강일호와 달리 그의 입에서 불평소리를 듣기 어렵다. 그런데 작품전행과정에 이 모든 첫인상은 완전한 의미에서 뒤집혀진다.

지금까지 강일호에 대해 피력스러운 성미로 인정하여 온 사람들을 구려 따져보면 신동히도 직장장이나 리신철같은 부정인물들뿐이다. 사실에 있어서 강일호는 까다로운 사람도, 남을 헐뜯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심술사나 사람도 아니다. 다만 그는 부정과 조금도 타협할 줄 모르는 그지없이 깨끗하고 다혈질적인 성미, 조금도 자기를 숨길 줄 모르는 그지없이 솔직하고 고지식한 성미로 하여 다름아닌 그 부정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왔을 뿐이다.

반대로 리신철이 지금까지 인상 좋게 보이려고 애써 온 그 모든 침착성, 참을성, 온당성, 립기 웅변술은 다 자기의 본색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기만술에 지나지 않았다.

본색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한동안을 오히려 강일호가 불평분자로 몰려우고 리신철이 《본보기》처럼 행세하는 여기에 이 작품의 극적단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태가 180도로 뒤집혀 강일호가 사람들의 존경대상으로 되고 리신철이 가 타매 대상으로 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심화되며 독자들은 충격적인 극적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성미묘사 문제일 수 없다.

두 인물의 대조적인 성미와 그 성미의 뒤집힘과정을 주도하고 바탕지어주는 기본요인은 어디

까지나 그들의 세계관, 사상의식이다.

강일호는 간석지의 주인으로서 생활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공 실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리신철은 간석지라는 《러인숙》에 잠시 들린 손님의 립장에서 간석지를 개인출세와 향락의 발판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제대군인 강일호는 언제나 《당이 부르는곳에서 배낭을 풀어야 한다, 배낭을 푸는곳이 고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리념으로 행동하며 바로 그 생활신조의 정당성과 자기 량심의 결백성을 확신하고있기때문에 남앞에서 자신을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리신철은 눈을 꼭 감고 몇년동안 간석지에서 고생하면 후에 자기 《발전》의 발판을 얻을수 있다는 리기적인 타산에 의해 행동하며 바로 그 치기스러운 《신념》이 사회앞에 공개적으로 통할수 없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언제나 속심을 감추고 살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두사람의 성미대조는 간석지의 진짜주인이나 가짜주인이나 하는 보다 심각한 사상적립장의 차이, 정정당당한 생활신조와 타기할 생활 《신조》의 차이에 기초하고있으며 바로 그 사상의식의 대조를 부각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사실상 이 작품에서 두 인물의 세계관, 인생관은 그것이 각기

굴절된 성미 호상간의 극적인 마찰과 충돌에 의해 보다 더 심각한 문제성을 시사하게 되며 보다 더 생신한 여운을 남기게 된다.

인물의 성미를 형상하는데서는 대사, 외형묘사, 심리묘사, 행동묘사 등 각이한 형상수단에 따르는 수법들이 리용될수 있다.

단편소설 《자기 위치 앞으로》(임단웅)에 이런 대화문이 나온다.

《지배인동지도 아시겠지만 공병들이 여러척의 작은 도하창(철선)우에다 널판을 놓고 큰 도하판을 만들어 땅크머 포를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60톤견인차 몇대로 말하자면 자동차도선판을 만들어 실자는것입니다.》

《우리는 25톤기중기의 팔을 떼지 않고 그 팔을 리용하려고 해요. 다람쥐 꼬리처럼 말이예요.》

앞의것은 제대군인인 최영길 청년의 말이고 뒤의것은 기중기 운전공처녀 김순금의 말이다. 우리는 인용된 두마디 말을 통해서도 이 두사람의 독특한 성미를 대번에 감추할수 있다.

개성화된 인물은 자기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기질에 따라 남과 구별되는 말투를 가지게 된다. 어느 한 기술공청을 놓고 최영길은 그것을 군사적행동에 직접 비유하고 김순금은 그것을 《다람쥐》에 비유하고있다. 이에 따라

최영길의 제대군인으로서의 대답한 기질과 순금이의 재치있고 령리한 녀성적성미가 대비적으로 안겨오게 된다.

인물의 성미를 형상하는데서는 이밖에도 성미의 본색을 점진적으로 개방해나가는 점층수법, 성미의 2중성을 리용하여 극적효과를 얻는 수법, 특징적인 세부를 통한 중점적묘사수법, 주어진 성미와 해당인물의 사상적지향사이에 자주 마찰이 일어나도록 극을 조성시키면서 성격을 발전시켜나가는 수법(예:단편소설 《그들의 교훈》) 등등, 여러가지 수법들을 쓸수 있다.

×

작가는 인간정신의 기사로, 인간심리의 전문가로 되어야 한다는 말이 우연하지 않다.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심리적속성과 그 표현을 잘 알고 성격의 논리를 깊이 파악한 작가만이 창작에서 주관과 도식을 피할수 있으며 인간을 보다 자연스럽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려낼수 있는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모든 작가들이 그렇게 준비되기를 절실히 바라고있다.

나는 좋더라 이 사람들이

황인섭

나는 좋더라
우리 탄전에 적을 둔 사람이라면
그가 착암공이든 운반공이든
매사에 빈틈없는 동발공이든
한생을 함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언제봐도 부지런한 열관리공이든...

마음 나누고싶더라
이른아침 출근길 바삐 걸을적에도
만나면 늘쌈 상냥한
권양기 운전공처녀
영예게시판에 나란히 사진으로
나붙은
제대군인 혁신자를 바라볼적에도

말하고싶더라
남몰래 좋은 일 많이 하고서도

시치미만 떼는 말없는 청년들
탄전이 들썩하게 자랑하고싶어라

아직은 내 나이 젊어
탄부의 나날 길지 않아도
정날은 어떻게 버려가며 써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막장길 걸어야 하
는지
함께 땀흘리며 깨우쳐준 사람들

아침저녁 한가마밥을 나누지 않
지만
심장으로 접수한 당의 결정앞에
서는

서로 다른 성미들이
하나의 지향속에 합쳐지고
떨어진 한덩이 탄이 아까워

깨끗한 량심으로 집어드는 사람들

땅속깊이 들어갈수록
빛나오르는 조국의 높이를 생각
하는 사람들
한걸음한걸음 막장길을 걸으며
한생을 다해 조국의 전진을 생각
하는 사람들

정말이지 나는 좋더라
마치 나의 착암기에서
그 어느 부속 하나 떼여낼수 없듯이
떨어져 살수 없는 사람들
아, 이 사람들속에서 살아감이
정말 좋더라

믿음과 보답

리기창

한없는 믿음과 사랑은 영웅적위훈을 창조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평범한 이 말의 참뜻을 이번에 홍남비료련 합기업소를 찾아가 취재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체득할수가 있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홍남의 로동계급이 화학비료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는 소식에 접한 나는 서둘러 취재길에 올랐었다.

아직은 2월초이어서 가로수가지에는 하얀 눈서리꽃이 달려있고 쌀쌀한 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들건만 공장구내로 들어서자 느닷없이 후더운 열풍이 온몸을 휩싸안는듯싶었다. 아마도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시위하듯 고압증기며 가스와 액체원료들이 은빛배관들을 타고 줄기차게 흘러가는 소리가 귀전을 두드리기때문인지도 모른다.

구내속보관마다에는 전례없는 최고기록을 창조했다는 자랑찬 소식들이 대서특필로 나붙었다.

그가운데서도 한장의 속보가 나의 눈길을 유묘하게 끄당겼다.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어제도 오늘도 혁신의 앞장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며 충성을 다 바쳐가고있는 로력영웅 박아바이에 대한 속보였다.

지난날 혹시 내가 취재한적이 있는 합성직장의 박동무가 아닌가싶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억을 더듬어보았다.

불현듯 나의 눈앞에는 색날은 제대군복차림의 한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부진 몸매, 술진 눈썹, 철빛 얼굴... 참말 그날의 제대군인 박동무가 오늘의 속보주인공인 로력영웅으로 되었던말인가...

박동무로 말하면 지난 시기 나의 서툰 습작품에서 주인공으로 삼았던터라 낯익이나 익혀둔 사이였다. 하기에 아직도 나의 낡은 취재수첩갈피에는 그에 대한 소묘가 남아있을것이다. 그래서인지 그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지금도 생동하게 떠오른다.

해방전 아버지가 합성탑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나 어린 소년공으로 고역을 치르던 그는 해방이 되어 장군님 품속에 안겨서야 비로소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보람찬 창조의 나날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시기 미제공중비적들의 맹폭격으로 홍남비료공장이 무참히 파괴되자 용약 복수의 총창을 들고 전선으로 탄원해나가 싸우다가 제대되어 다시 합성직장에 다녔다고 했다.

그는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의의깊은 날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일터에서 직접 만나뵈온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65년 2월 4일이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합성직장 당세포총회를 친히 지도하여주신다는 감격에 접한 그들이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며 설레이고있는데 뜻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먼저 찾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의 인사에 답례하시며 아버지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당세포총회에 참가할 동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왔다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에게 당원은 몇명이나 되며 왜 요즘 생산이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하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는 수령님께서 홍남의 로동계급을 믿고 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목표를 세우시였다고 하시면서 오늘도 비료문제때문에 점심식사마저 뒤로 미루시며 현지지도를 하신데 이어 합성직장의 당세포총회까지 지도하시게 되는데 동무들은 그처럼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충성으로 보답할 사상적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순간 그들은 자책감으로 하여 고개를 숙이였다.

사실 그들은 압축기와 합성탑을 비롯한 설비와 기계들이 낡았다는 조건밑에 생산을 높이지 못하는 원인을 사상적각오에서가 아니라 기술실무적인 측면에서 찾고있던것이다. 그러나 그이의 간곡한 말씀을 받아안고서야 비로소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당세포총회에서 사상적결의를 옹계 다질수가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세포총회를 성과적으로 마쳤을 때에도 누구보다 먼저 박동무를 비롯한 토론참가자들의 손목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오늘 동무들이 당세포총회에서 결의다진대로 당의 믿음에 반드시 충성으로 보답하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하시였다.

이렇듯 한개 직장의 당세포총회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그를 통하여 당원들의 심장마다에 뜨거운 충성의 불씨를 안겨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날로부터 불과 석달이 지난 5월에도 또다시 그들을 찾아오신데 뒤이어 무려 열두차례나 되는 현지지도의 자욱을 남기시며 끝없는 믿음과 육친적사랑을 돌려주시였다.

속보관앞에서 지난날 박동무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더듬어보던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끝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수놓아진 영광의 나날속에 그

날의 제대군인 박동무도 어느덧 로력영웅이 되었을 지도 모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성직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를 만나본지도 벌써 20 여년이 넘지 않았는가 ...

설레이는 가슴을 애써 누잡히며 현장에 들어서던 나는 무르춤 굳어졌다. 마치 대교향곡을 연주하듯 장엄하고 조화로운 동음속에 만부하, 만가동의 위용을 떨치며 집채같은 대형압축기와 합성탑을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눈뿌리 모자라도록 안겨왔다. 그전날 내가 처음으로 취재하러고 왔을 때 보던 낡은 설비와 기대들대신 모든것이 새롭게 전변되었다.

알고보니 대형화, 현대화로 갱신된 설비들의 세찬 숨결을 총지휘하듯 종합자동계기판앞에 서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만나보자던 로력영웅 박아바이였던 것이다. 다부진 몸집과 술진 눈썹이며 철빛도는 얼굴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지난날 만나보았던 인상을 되살려주었다. 그때는 제대군인청년의 모습이던 그가 세월의 흐름속에 어느덧 귀밀머리 희숙한 아바이로 변모되었단 말인가...

하긴 나도 그때엔 문학청년이던것이 오늘은 50 고개에 들어섰으니까.

그가 정찬 눈길로 지켜보는 자동계기들과 적산계의 하늘이며 눈금들은 가장 리상적인 정상수치를 표시하고있었다.

이윽고 소개인사를 했으나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지난날 그한테 바쁜 시간을 내어 취재까지 했던것을 재간부족으로 종시 발표하지 못한채 지내왔었으니까 어쩐지 웅색스러웠다.

허나 이번에만은 기어이 그때 《빛진》값음을 하리라 배심을 가지며 두번째 취재를 다시 이어나갔던것이였다.

내가 이즈음 비료생산을 최고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 비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는 확신에 넘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다른데 있지 않수다.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언제나 우리 홍남비료의 로동계급을 풍년농사의 첫 돌과구를 열어나가는 전초병이라고 굳게 믿으시고 끝없는 신임과 사랑을 돌려주시니 더 많은 비료생산으로 보답하는게 우리의 응당한 도리가 아니웬까.》

조용히 눈길을 들어 대형압축기쪽을 바라보며 그는 물기에 젖은 음성으로 말을 계속했다.

《우리 합성직장의 경우만 봐도 그렇수다. 저기 새로 들어왔은 대형압축기와 합성탑들두 그렇지만

얼마전에 또다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료생산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셨수다. 어디 그뿐이웬까. 저와 같은 로동자들을 걸음걸음 손잡아키고 시여 로력영웅으로까지 키워주시니 내 한몸이 비료가 된들 것처럼 한없는 믿음과 사랑에 다 보답할수 있겠습니까. 더우기 친애하는 그이께서 우리 일터에 오실 때마다 당에서 아무리 어려운 비료생산과업을 주어도 홍남의 로동계급은 서슴없이 받아 수행하리라고 믿었다고 하시던 더없는 신임은 언제나 저희들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수다 ...》

나는 그의 소박한 대답을 통해서도 오늘 홍남땅에 펼쳐진 전변의 새 력사가 어떻게 마련되고있는가를 가슴 후덥게 느낄수가 있었다.

이윽고 그와 헤어져 다시 구내길로 나섰으나 송엄한 충격으로 하여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따사로운 향도의 해빛속에 것처럼 몰라보게 변모된것이 어찌 오늘 내가 다시 본 합성직장과 박아바이 한사람뿐이라.

정전된 그 이듬해 전쟁의 상처를 아직 가시지 못하여 깨진 벽돌장이 덩굴고 폭탄자리가 입을 벌린채로 남아있는 비료공장의 험한 구내길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그날부터 시작하여 뜻깊은 2월의 그날 당세포총회를 보살펴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발자취는 여기 합성직장만이 아니라 자동화의 신호등 반짝이는 저 발생로와 질안탑 산화기와 무연탄가스화현장이며 비료폭포 쏟아져내리는 드넓은 하조장을 그리고 저기 노래소리 흥겹게 울리는 로동자문화회관과 불밝은 공장대학이며 로동자지구의 살림집들과 종합식당이며 상점과 책방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뜨겁게 아로새겨지지 않았는가! 바로 불멸의 그 자욱우에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화학비료기가 거연히 솟아나고 박아바이만이 아닌 수백수천의 사람들이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났으리라! 그렇다. 날과 해를 따라 더욱 끝없이 안겨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에 더 많은 비료생산으로 보답하려는 홍남의 로동계급의 불같은 마음이 그대로 충성의 응결체가 되어 풍년비료로 즐기치게 쏟아져내리는것이 아닌지...

하기에 지금도 경사로운 2월의 명절, 뜻깊은 그날을 축복하는 꽃보라처럼 그리고 온 나라 농장벌마다 풍년의 황금나락 키워갈 그날을 마련해가며 뜨거운 믿음과 보답 속에 끝없이 피어나는 풍년비료가 하조장마다 차넘치는것이리라!

너의 그 웃음에 외 1 편

한기운

금강의 폭포인가
묘향산 폭포인가
흐름선을 타고
줄줄이 내리는 비료
백설같이 하얀 비료

내리는 첫눈에 들뜬 아이마냥
두팔 벌려
흘러내리는 비료를 안아보는
컴베아운전공처녀
너의 그 기쁨 무엇인지

내 어이 모르랴
쏟아져내리는 비료가 기뻐서
쌓아가는 비료산이 기뻐서
그래서만 얼굴가득 피어나는
그 웃음인가

비료는
알곡생산의 생명선 !
아버이수령님의 높이신 그 뜻
자나깨나 가슴가득 안고사는
운전공처녀

그렇더라
네 쏟아지는 비료폭포로
농장벌과 마음을 잇고
네 쌓아가는 비료산의 무게로
풍년벌과 마음을 잇고 살아

아 하늘가에서
쏟아지는 비료흐름선을 지켜선
너의 그 기쁨에
너의 그 웃음에
온 나라 만풍년이 실려오고있구나 !

우리네 마음속엔...

공장구내 가로수에 단풍이 쳐도
조작공 이내 마음
모판비료 뿌리는 봄날에 사는줄
사람들은 몰라

산에 들에 얼음 찜찜 터져도
조작공 이내 마음

이삭비료 뿌리는 삼복철에 사는줄
사람들은 몰라

아 만풍년의 금나락 파도치는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다 알아
비료전사 - 우리네 마음속엔
봄, 여름... 겨울이 따로 없는줄

열대수림속에서

백남수

머나먼 열대의 나라 앙골라에서 날아온 한장의 편지가 김광철에게는 자신을 돌이켜볼수 있는 인생의 거울이 되었다.

앙골라의 민간항공비행사 마키오데가 보내온 편지에는 이렇게 써여있다.

《…김광철동지! 지금 저는 온 나라가 떠받드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대서양의 거세찬 파도우에서 조난당한 선원들을 구원해낸 저를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영웅으로 떠받들고있습니다.

이런 영광을 정작 받고보니 내가 참으로 영웅인가 따져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면서 몇 년전 김광철동지를 알게 된 그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 참된 교과서의 구절구절처럼 떠오릅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로 영웅이라고 겁을 모르는 용사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장마철인 12월 짙은 안개속을 뚫고 위험한 비행의 길에 나섰던것입니다.

이제 와서 솔직히 고백하지만 내가 그때 그 비행을 단행하게 된것은 하나의 객기였습니다. 후회되지 않는 객기입니다. 만약 그때 저를 찾아온 김광철동지가 요란한 인사와 위대한 논리로써 나를 설복하려 했다면 저는 그 비행의 길에 나서지 않았을것입니다. 조용히, 인내력있게 민간항공사령실의자에 앉아있던 김광철동지의 그 얼굴표정이 지금도 저에게는 삼삼히 떠오릅니다. 간절한 열망과 애간장이 타는 모태김 그리고 낮으나 저력있게 반복하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김광철동지는 그때 6시간동안에 오직 이 말만을 열두번이나 하셨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그 의미도 달라지드군요. 처음에는 어리숙해보였고, 다음에는 짜증이 나고 다음에는 참으로 완강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한번 맛봐라 이 나라의 엄혹한 자연이 어떤것인가를… 그리고 나로 말하면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싶은 객기가 생겼었습니다. 게다가 나의 친우인 자동차회사무역대표인 하프만의 사나이다운 표드김도 작용했습니다. <대담하게 결심하라! 자네가 그렇게 웅술한줄은 몰랐어.> 이렇게 부르짖던 하프만의 힘찬 목소리에서 저는 모험적인 비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벌써 몇번이나 되읽어보고있는 편지의 구절들로 하여 김광철에게는 지나온 그 나날이 삼삼히 떠

올랐다… 그것은 전례없는 비행이었다. 침침한 비발속에서 흥벽을 두드려주는 광폭한 폭음만이 울리는데 직승기의 둥그스름한 시창유리에서는 짙은 안개가 부서지면서 물방울들이 굴러내렸다. 비행기가 날고있다고는 털끝만치도 생각되지 않았다.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갔다. 김광철은 1 분도 못되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군했다. 가슴을 조여주는 순간은 영원히 이 심연속 운무에 파묻히어 정지해버린듯싶었다. 30 분이 지나서부터는 초조감이 엄습해왔다. 그 초조감은 자신이 지금 우체로 비행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이 흔들리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직승기속에 앉아서 우체라는 하나의 큰 도시가 날아오는것을 기다리고있는것 같은 환각을 불러왔다. 45 분이 지나면 우체는 불쑥 자기 발부리밑에 나타날것이다. 것처럼 안타깝게 기다려지는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다. 이때 비행사 마키오데가 다급히 소리쳤다.

《사출 준비 뛰여내려라!》

마키오데의 악청과 함께 그들은 짙은 안개발속에 내동댕이쳐졌다. 락하산이 퍼지는 강한 충격과 함께 김광철의 머리우에서는 섬광이 번쩍했다.

뒤이어 요란한 폭음! 그리고는 모든것이 망각되었다.

…한증탕은 숨가쁘게 뜨거웠다. 아직도 화기가 이글거리는 회백한 돌덩이들이 열기설기 덧쌓인 둥그스름한 천정이 금시 무너져내릴것 같았다. 온몸으로 땀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김광철은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인내력있게 썸을 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백개까지만 세면 어머니가 저 거적문을 들치고 《애야! 이젠 나오너라!》하고 정답게 불러줄것이다. 이를 악물고 신개까지 썸다. 신들, 신셋… 오른쪽 장판지가 불시에 쿵쿵 쑤셨다. 《앗차! 깔개를 잘못 깔았더니 댕구나!》하는 생각에 광철은 가슴이 섬쩍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상처를 어루쓸것이다. <내가 똤라던. 덤비지 말고 깔개를 두텁게 깔라고 했는데… 이걸 어떤단 말이나? 속병을 떼려다 오히려 우환을 만났구나!》

어머니의 주름잡힌 얼굴에 침울한 그늘이 졌다.

《어머니, 팬찮아요. 불독에 댕 상쳐는 인차 나아요. 자, 보라요.》 광철은 휘딱 일어나 다리의 상처가 아무렇지도 않다는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데 쑤시는 심한 동통이 끝수를 쿵-찢렸다. 《앗》 광철은 눈을 번쩍 떴다…

우유빛의 끈적거리는 안개발이 눈앞으로 서서히 흘러가고있었다. 질척한 땅덩이가 잔등에 마쳐왔다. 두엄통에서와 같은 쿼퀴하면서도 알싸한 냄새가 울컥-역기를 치받게 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있는가?》

광철은 깊이 숨결을 모두어쉬고 가슴을 부풀린 채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제야 모든 일이 선명해졌다.

김광철은 방역대표단으로 앙골라에 파견되었다.

50대에 들어선 그는 한생을 방역사업에 바쳐오는 유능한 의료일군이다. 그가 도착하자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우체라는 도시에서 전염병이 돌수 있는 징후가 나타났다. 그곳으로 급히 가야 했다. 그런데 앙골라에서는 12월이 장마철이다. 이 나라에서는 장마철이면 짙은 안개가 끼군한다. 이 안개로 하여 그가 갈길이 막혀버렸다. 그는 대담하게 직승기로 날아갈것을 결심했었다. 민간항공회사에서는 《장글의 왕》으로 불리우는 유능한 비행사 마키오데가 비행을 거절했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려는 김광철의 절절한 욕망과 마키오데의 친우인 외국의 자동차회사 무역대표 하프만의 급한 사정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하여 이들을 태운 직승기는 안개를 뚫고 날아올랐던것이다.

김광철은 정신이 들자 까딱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게 타산해보았다.

(우리는 40분간을 날았다. 분명 비행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체에서 100여리안팎에 떨어졌을것이다. 사고는 항로에서 있었던것이 아니라 직승기의 기관이 잘못된데서 났다... 마키오데는 어디에 있을까? 무사하기나 한지? 하프만은 분명 함께 뛰어내렸으니까 나처럼 이 근방 어디에 있을것이다. 이젠 움직이자! 우선 사람들을 찾자-)

광철은 일어나 앉았다. 오른쪽 장판지가 쿑쿑췌었다.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리고보니 6~7센치는 실히 될 두라르민쪼박이 박혀있었다. 비행기가 폭발되면서 날아와 박힌것이 분명했다. 그것을 뽑아던지자 피가 솟구쳤다. 급히 대퇴동맥을 압박하고 지혈을 했다. 아픈은 갈수록 심했으나 의지의 힘으로 걸음을 옮겨나갔다.

김광철이 가까스로 이를 악물고 락엽이 썩고있는 누습한 땅을 허비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된 마키오데가 성큼성큼 마주 걸어왔다.

《아, 조선대표동지! 살았구만! 살았어!》

그는 광철의 어깨를 집게같이 억센 손으로 꼭 잡아흔들었다. 광철은 신음소리를 삼키며 주저앉았

다. 다리의 상처에서 오는 동통이 뇌수를 쿑 찢었던 것이다.

《어디 다쳤습니까?》

마키오데가 물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견?》

광철은 마키오데의 비행모를 벗겼다. 이마에 험상스런 상처가 났었다. 그는 상처를 처치하면서 물었다.

《하프만은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저기... 왼쪽팔목이 부러진것 같습니다.》

《잡시다. 하프만이 있는곳으로 잡시다. 이쯤하기도 다행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피범벅이 된 마키오데의 검은 얼굴에는 고뇌의 빛이 짙게 어렸다. 그들은 직승기의 파괴된 잔해가 떨어져 널려있는 공지에 모였다. 안개의 바다속에서 간신히 행장을 찾아내어 하프만의 팔에는 부목을 대고 키브스를 했으며 마키오데의 이마에는 붕대를 했다. 이들이 놀랄가보아 당장 크게 처치할 대책이 없는 광철의 다리상처는 알리지 않았다. 발목을 빼였을뿐이라고 얼버무려버렸다.

고립무원한 이들의 처지를 비웃거나 하듯이 여전히 안개는 무겁게 땅을 깔으며 땀돌았다. 해빛을 집어삼키는 그 끈적거리는 비말들속에서는 모든것이 음침했다. 저녁때가 가까와오는듯 사위는 점점 어두워져갔다. 팔뚝같은 도마뱀이 허연 뿌리를 드러내놓은 고목나무밑등으로 기여들어갔다. 하프만이 누런 진액이 들크무레한 냄새를 풍기며 솟아나오는 이름모를 꼴포기들을 오른손으로 쥐어뜯고있었다.

《고약하게 됐는데. 이젠 우리들이 20세기의 로빈손이란말이지? 흥!》

정기가 전혀 없이 풀어진 하프만의 눈은 잠시도 안정을 모르고 허둥대어 보기에다 처량했다.

《여긴 무인도가 아니요. 앙골라라는 든든한 대륙이지-》 마키오데가 비죽이 웃으며 말했다.

《이름모를 열대수림속, 난파당한 선박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폭발된 비행기에서 떨어진 현대의 로빈손이란말이요.》

하프만은 진액이 묻은 손바닥을 축축한 땅에다 비볐다.

《불행은 언제나 쌍둥이로 온다드니... 아! 엘리자! 우리는 서로 어쩔수 없는 불행의 암초가 되었구만!》

《락심 말게. 살구멍이 있겠지. 안개가 걷히면 우리의 항로를 아니까 헤리핀터가 올게요. 여기다 평장히 큰 봉화를 만들어놓고 구원을 불러야지-》

《언제?... 이 안개가 쉽사리 걷힐상실은가? 그 사이 나의 엘리자가 잘못된다면... 어떤 변명도 엘리자앞에서는 통할수가 없지-아!》

하프만은 가슴을 두드렸다. 그의 애인인 엘리자는 우체에서 앉고있었다. 사랑하는 애인의 일을 두고 모대기는 이 열혈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광철은 가슴이 찢르르했다. 그 역시 한시간이 새로왔다. 조국에서는 지금쯤 자기가 임무수행에 여념이 없으리라 생각할수 있을것이다. 얼마전 흥미한 망각속에서 보게 되었던 어머니보다도 더 다심한 우리 당은 이역만리로 떠나보낸 자식들을 두고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있을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불행에 떨어졌으니 이 일이 당에 보고된다면 당과 조국에서는 얼마나 심려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여 광철은 피로왔다.

《마키오데! 우리가 있는 위치를 가늠하겠습니까?》

마키오데는 김광철을 웃는 낯으로 쳐다보았다.

《압니다. 우리는 정확히 말해서 우체의 서남쪽 약 37 키로메터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나라의 룬드고원이 시작되는 산림초원지대입니다. 동남쪽 멀리로는 아람빠가 있고, 남쪽에는 달라탕도 그리고 여기서 얼마를 가지 않으면 크완자강의 지류가 나질겁니다.》

《음-100 여리 미만이구만요. 우리 갑시다. 우체로-》

김광철이 말했다.

《으-핫, 하-》

마키오데가 폭소를 터쳤다.

《안됩니다. 기다립시다. 하프만이 말한것처럼 여기는 열대수림속입니다. 독일의 라인지방도 아니며 조선의 평양도 아닙니다. 설명을 안해도 알리고 생각합니다.》

마키오데의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갑자기 드센 폭풍이 불어닥쳤다. 안개의 파도가 비발처럼 흘날렸다. 폭우가 바깥으로 쏟아붓듯이 내렸다. 숨쉬기조차 가뻔했다. 이들은 어쩔수 없이 그 비발속에서 웅송그린채 30~40 분을 지냈다. 폭우는 울 때처럼 갑자기 멎었다. 대기가 신선해졌고 어디선가 향기로운 훈향까지 날려왔다. 안개가 들리는가싶었는데 잠시후에는 또다시 짙은 안개가 사위를 휘감아버렸다. 열대수림속의 밤이 소리없이 다가왔다. 거물스러운 한무지의 모닥불주위에 재난당한 세사람이 둘러앉아 뜬눈으로 밤을 밝혔다.

《언제쯤이면 안개가 걷힐수 있소?》

김광철은 날이 밝아오자 물었다.

《그건 모릅니다. 대개 우기에는 줄창 안개가 끼곤하는데 레외도 혹 있곤합니다.》

《천번중의 단 한번의 기회를 기다린다?》

하프만이 허거프게 중얼거렸다.

《마키오데! 떠납시다.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을 기다리기보다는 투쟁해서 얻는 승리가 더 값있는것이 아닙니까?》

《안됩니다. 누구보다 여기를 잘 아는 나로서는 이제 또다시 모험할수는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열대수림속이라 하여도 100 여리 길을 앞에 두고 앉아있을수는 없습니다.》

머리칼이 희끗희끗 세고 다리를 심히 저는 광철이 벌떡 일어서서 단호하게 선언하자 키가 큰 하프만도 덩달아 일어섰다.

《가봅시다. 나도 마지막까지 모험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마키오데만은 불타다 남은 등걸처럼 모닥불결에 웅크린채 일어설줄을 몰랐다. 김광철이 이러는 그를 보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북침을 주고 로정을 대주시요.》

마키오데는 품속에서 약조개처럼 생긴 지북침갑을 꺼냈다.

《곧게 동북방향으로 가십시오. 아무 나무나 함부로 다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수림속에는 지뢰보다 위험한것들이 있다는것을 명심하십시오. 수초가 무성한 강줄기가 나지면 그것이 크완자강의 지류입니다. 그것을 건르면 우체에 갈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저녁에는 다시 동지들과 이 자리에 서 만나게 될것입니다.》

마키오데의 마지막 말은 설명이 없는 위협이었다. 마키오데는 눈빛을 번쩍이며 김광철을 쳐다보았다. 광철은 아무 대꾸도 없이 지북침을 받아 품속에 넣었다. 그의 태연한 동작에서는 한번 다진 결심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속심이 강렬하게 풍기였다. 50대의 장년인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오른다리에 힘을 주면서 걸음발을 뻗었다. 상한 다리가 쭈시였다. 했지만 그 아픔은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여야만 한다는 결심을 부추겨줄뿐이었다. 얼마를 걸지 못해 이마에 땀발이 섰다. 그는 품속에서 정히 간수하였던 손수건을 꺼냈다. 큰것은 아니었으나 열대지방에 가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고 당에서 배려품속에 적어넣어준 소지품이다. 목란꽃수를 놓은 넓직한 손수건에서는 옅은 장미향 냄새가 풍겼다. 그것은 조국의 향기였다. 광철은 이마의 땀발을 손등으로 훔치고 손수건은 다시 품속에 간수했다.

《조선대표동지!》

뒤에서 마키오데가 불렀다. 안개발속에서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 가겠습니까?》

《가야 합니다.》

《다시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앉아서 기다릴수 없습니다. 임무를 두고 요행수를 바라고있다는것은 벌써 최악입니다.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있는 나로서는 간고한 길을 마다할 권리가 없습니다.》

김광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작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대범하게 나오는 광철동지를 보면서 저는 그때 속으로 코웃음을 찡습니다. (흠, 썬판을 모르는구만! 이 장굴속이 어떤 것인지...) 나로 말하면 내가 잘 아는 이 땅에서 겁날것이 없다는 그런 자신심이 있었습니 다. 했건만 또다시 모험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타산때문에 광철동지를 만류했던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나도 지고말았습니다. 비행기의 잔해속에서 찾아든 쇠꼬챙이 하나, 내 품속에 간직된 단검 한자루가 유일한 무기인 우리는 길을 떠났습니 다.

그때까지도 저는 자신을 〈장굴의 왕〉으로 치부하고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시련속에서 검증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옳았습니다. 간고한 나날이었습니 다...》

김광철은 이 편지의 구절을 생각깊이 음미해보았다. 사람은 시련속에서 그 진가가 검증된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허지만 사람의 진정한 값은 평범한 나날들에 이미 정해지게 마련이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고 일상생활에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시련앞에서는 당황하고 흔들리고 결국에는 굴복되어 비참한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마는것이다.

김광철에게는 간난신고의 그날이 되살아났다.

×

이튿날 저녁 그들은 모닥불을 피웠으나 한잠도 자지 못하였다. 침대같은 긴부리와 억센 날개를 가진 모기, 등에처럼 악착스러운 갈파리들의 성화때문이었다. 손으로 치고, 나무아지로 때렸으나 귀가에서 땀돌며 앵-앵거리는 모기와 파리들의 아우성소리는 장밤 그들의 고막을 울려주었다. 계속되는 무더위,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 돌연히 들이닥치는 폭풍, 그리고는 폭우, 이것들은 지루한 악몽처럼 계속되었다. 수림속을 전진한다는것 또한 힘겨웠다.

김광철은 로숙한 의사로서 자기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를 될수록 정확히 하노라고 했으나 계속되는 폭우로 인하여 오염된 물이 습배들었고 무더위와 행군으로 인한 피로가 겹쳐들어 발을 한번 옮기기가 단 쇠판을 저저디디는것처럼 힘들었다. 마키오데도 얼굴이 텅텅 부었다. 하프만은 이를 앙다물고 걸기는 했지만 부지불식간에 신음소리를 뱉어놓곤 하였다. 천신만고라는것은 이런 행군길을 두고 말하는것이리라!

쏟아져내리는 폭우로 하여 산림속은 언제나 증기가마속같았고 땅은 질척거렸다. 역한 감탕내가 풍기는 웅덩이들에서는 뒤엉킨 허연 수초뿌리들이 그들을 물고 늘어지기도 했고 무수한 기생식물들의

덩굴들을 헤치기도 해야 했다. 그럴 때면 부득불 자기의 군용단도를 휘둘러댔다.

떠날 때 굵어모았던 초콜레트며, 빵조각이며, 목감자술이며 하는따위의 식료품들은 벌써 밀창이 드러난지 오래다. 오늘부터는 마키오데가 즐겨 씹군하는 풀뿌리로 군입을 다실뿐이었다. 야자열매라도 따게 된다면 한몫 볼수 있으면만 산림초원인 이곳에서는 야자나무를 만나기가 조련치 않았다. 야생고무나무들과 종려림이 계속되는가 하면 이따금 바나나의 우거진 포기들이 나타났으나 신통스럽게도 거기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원숭이들이 선손을 켜던것이다. 이따금 야생파이내풀을 만났으나 그것마저 먹을것이 못되었다. 세사람이 모두 들어앉을만큼 큰 편꽃잎이 널려있는 진펄을 지나기는 하였지만 12월인 지금에는 편꽃열매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마키오데는 열대수림속의 12월은 기근의 시기라고 몇번이고 입버릇처럼 중얼거렸다.

어디선가 쉬-쉬- 하는듯도 하고 스룩-스룩하는듯도 하는 소리가 소름끼치게 들려왔다. 뒤따르던 하프만이 기겁하여 겁먹은 소리를 질렀다.

《코브라!》(열대수림속에 사는 독뱀인데 광둥 광둥 뛰기도 하는 몸둥이뱀으로서 무서운 파충류이다. 목부위가 팽대되어 몹시 징그럽다.)

김광철 역시 그 기분나쁜 소리에 신경이 예민해졌었는데 하프만이 웨치는 코브라라는 말에 손발이 저렸다. 세사람은 그자리에 딸뚝처럼 서버렸다. 맨앞에 섰던 마키오데가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 와들 와들 떨었다. 그의 초점을 잃은 눈동자에는 림종직전이나 어리는 죽음의 음영이 그대로 비쳤다. 그는 떨리는 손길을 들어 숲을 가리켰다.

《맘바... 맘바... 맘바뱀이요!》

이 말을 힘겹게 겨우 번지고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가 가리키는 허연 수초뿌리사이에서는 얼룩덜룩하며 번들거리는 징그러운 뱀의 등어리가 서서히 굽틀거리고있었다. 거기서부터 역스러운 소리가 스룩스룩 쉬-쉬 들려왔다. 이 맘바뱀에게는 육중한 열대코끼리도 맥을 못추고 쓰러진다고 한다. 나는듯이 빠르게 독을 뿜는 맘바뱀에 의하여 인류 문명에 기여하려던 이름있는 탐험가들이 영영 행적을 감추고 장굴속에 백골만 남겨놓은 비참한 일이란두번만 아니다.

김광철은 이를 앙다물고 소름끼치는 환상을 털어버렸다. 다행히도 맘바뱀은 이들을 건드리지 않고 숲속 어데론가 사라졌다. 또 하루가 저물었다. 그는 라이타를 꺼내어 불을 켰다. 그리고는 떠날 때 간수한 고무쪼박에 불을 달았다. 시뻘건 불길에 꺼먼 연기를 토하며 너울거렸다. 그 불길은 두어평 되나마나한 안개속의 수림을 희미하게 밝혀주면서 공포에 얼어붙었던 사람들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간신히 모닥불이 타올랐다. 첫번으로 되는 이 무시무시한 파충류의 출현은 사람들에게서 얼혼을 쑥 뽑

아갔다. 삭정이가치만 보아도 소름이 끼쳤고 손발에 맥이 풀리곤하였으며 허기증을 면하려고 예리하게 번뜩이던 눈길마저 근시안으로 만들어버렸다. 행군을 시작하여 3일이 되는 날부터는 위축감에다가 굶주림으로 인한 광증까지 겹쳐들어서 거의 제정신들이 아니었다. 체구가 장대한 하프만이 제일 먼저 허기증으로 쓰러졌다. 광철은 상처의 동통에다가 신열까지 겹쳐들어서 마라리아환자처럼 오히려 떨기까지 했다. 이럴 때면 그로서도 자신이 더는 전진할수 없으며 이곳 지역도 알수 없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무주고혼이 되리라는 삶에 대한 망각이 불쑥불쑥 갈라들었다. 때로는 비행기가 추락된 그곳에서 기다렸어야 했을걸하는 나약한 후회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문득 조국을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졌으며 힘이 솟았다.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체로 가야 하며 조국이 준 임무를 수행했다고 당에 보고하기전에는 쓰러질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는것으로 하여 이를 악물었다. 이런 때면 멀리로 흘러간 생의 나날들에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언뜻언뜻 떠올랐다.

...광철의 아버지는 중학교 문학선생이었다. 박식하고 정서적이었다. 그는 아버지로서도 스승으로서도 광철에게 엄격하고 자애로웠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던 광철은 자기도 아버지처럼 박식한 사람이 되려고 언제나 책밖에 몰랐다. 그래서 체육에는 흥미가 없었다. 어느해 봄철 학교적인 체력검정때 광철은 높이뛰기에서 80센치도 넘지 못하여 불합격이 되었다. 그때 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띠우고 아들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았었다. 이튿날 광철의 집 마당가에는 복을 잘 돈구어놓은 밭고랑이 하나 생겨났다. 이른새벽 아버지는 광철을 깨워 마당가에 세워놓고 조용히 말했다.

《광철아! 너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밭고랑을 세번씩 뛰어넘어라. 여기서 이제 수수들이 자라날게다. 수수대가 자라는것과 함께 네 높이뛰기 기능도 높아질게다.》

아버지의 말뜻을 깨달은 순간 광철은 머리가 숙여졌다. 자기가 너무나 체육을 등한하여 본의아니게 아버지를 망신시켰다는 자책때문이었다. 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계획한 일이 얼마나 기발한 것인가가 깨달아지면서 신심이 생겼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광철의 생각은 벌써 자기가 키를 넘게 자란 수수울타리를 손쉽게 넘어뛰게 될 그 날에 가있었다. 광철은 이 일에 성실했다. 매일아침 마당가 수수밭고랑을 세번이 아니라 서른번씩 뛰어넘었다. 수수싹이 돌아나고 수수울타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사리

그것을 뛰어넘었다. 7~8월 장마철때였다. 매일 아침 눈에 띄게 쑥쑥 자라는 수수대들은 광철을 비웃었다. 광철은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수 없었던것이다. 수수가 자라는것만큼 자기의 높이뛰기기능도 자라리라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것이 분했다. 약에 반친 그는 뛰어넘기를 단념하고 그자리에서 울었다. 광철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광철아! 무슨 일이나 그럴듯하게 생각된다고 해서 손쉽게 이루어지는것은 아니야. 수수가 너무 빨리 자라니까 아름이 차지? 그렇다고 울면 한해살이인 수수대앞에 지고말야. 이파리들을 자르면서라도 뛰어넘어야지.》

《아버지! 난 안되겠어요.》

《얼빠진 소리! 수수는 한해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년 한생을 자랄 사람이야. 사람은 힘에 지는 법이 없어. 정신에 지지. 이파리를 자르고라도 뛰어넘어봐라! 금년엔 졌지만 내년엔 이길게다.》

광철은 아버지의 말대로 했다. 이렇게 3년세월을 수수울타리와 씨름을 했으나 종당까지 키넘게 자라는 수수울타리를 넘어뛰지는 못했었다. 했지만 그가 군대에 입대하여 군의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무력부적으로 이름난 높이뛰기선수였었다. 삶의 매듭으로 굳게 새겨진 이 일은 광철에게 완강성을 키워주었다.

...그것은 군의대학때 일이다.

광철의 창격훈련을 지도한 격술교관은 락동강 전투까지 참가한 이름있는 경찰병이었다.

한번은 창격훈련을 지도하던 교관이 광철의 동작을 보고 만족하여 말했다.

《육박전이란 말그대로 육탄이 되어야 하오. 광철동무의 찌르기동작은 꽤참소! 자-나를 한번 마음놓고 찌러보오.》

이러면서 교관은 태연하게 광철의 앞에 나섰다. 광철은 이미 그가 맨손으로 총창의 창격을 방어해내는 유능한 교관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했으나 정작 자기앞에 교관이 맨손으로 방어하고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용기가 나지 않았었다.

《찔러!》

구령은 떨어졌으나 총창이 나가질 않았다. 어쩔지 가슴이 떨렸다. 광철은 총창을 내뺐쳤으나 그 총창은 교관의 손칼에 맞아 뿌리치웠었다. 한번두번 세번... 그때마다 광철은 몸의 중심을 잃고 총창과 함께 비틀거렸다. 교관은 호탕하게 웃었다.

《핫하하. 동무들도 내가 신비한 격술재간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것이 아니요. 동무들에게는 내가 적이 아니라는 정신적약점이 있기 때문이요. 육체적준비와 함께 정신적준비를 갖추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무적의 힘ियो, 이것을 명심해야 하오.》

정신적준비, 광철을 그것을 명심했다....

다음날부터 그들은 걷는다기보다 거의 기어가다싶이했다. 원인은 광철의 다리상처가 통세를 쓰기 시작하는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하프만의 긴허리가 개미허리처럼 잘쭈해지면서 영 몸을 가누어내지 못하는데 있었다. 그에 비해보면 불등걸같은 마키오데는 장군이였다. 배와는 타협할수 없다는 말의 참뜻이 절절히 느껴졌다. 이들의 대오속에서도 이제는 어떤 수단으로든 앞으로 전진해가기가 어렵겠다는 막연한 불안이 짙은 안개보다도 더 끈덕지게 감жат아들기 시작했다.

광철은 어떻게 하나 허기진 배들을 채워주어야 하겠다는 그 한가지 생각으로 기여가며 모지름을 쓰면서도 먹을만한것이 없는가고 수림속을 주의깊게 살피곤했다.

김광철이 숲속에서 야생목감자뿌리를 뜯어가지고 오느라고 좀 뒤떨어져 따라섰을 때였다.

풀포기를 깔고 길게 나누운 하프만이 맥없이 웅얼거리고있었다.

《마키오데! 자넨 지금 길을 잘못든것 같아.》

여전히 풀뿌리를 꺾처럼 씹고있던 마키오데가 도리머리질을 했다.

《아니, 바로 가네.》

《나는 인젠 더는 같것 같지 못하구만. 모든것이 귀찮아지구. 난 자신이 그래도 의지가 강하고 용감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먹어야겠다는 하나의 생각밖에 없어지누만. 솔직히 말해서 엘리자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라면 나는 여기에 이렇게 조용히 누워있고만싶네...》

《내가 떠날 때 말했지?》

《아니야, 자넨 일부러 우릴 함정으로 끌고가... 자, 봐라! 열대수림이 이렇다! 이걸 증명해보이자구...》

《그렇다면 나는 불사신이란말인가? 악마란말인가? 나도 사람이겠지? 나도 미칠 지경이네...》

《하긴 그래... 아니야! 우린 길을 잘못 들었어... 로빈슨이 부럽구만. 그는 무인도에 있었어도 먹을 건 많았거든!》

하프만은 풀어진 두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맥없이 웅얼거렸다.

천신만고하면서 여기까지 온 길이 몇천리로 헤아려지지만 김광철의 계산에 의하면 겨우 50여리를 넘지 못한다. 그는 발자욱을 세었다. 그러면 걷기가 쉬웠다. 두발자욱이면 한메터, 2천 발자욱이면 한키로메터 이렇게 그는 앞길을 가늠하면서 전

진해왔다. 광철은 흙투성이가 된 손에서 목감자뿌리를 내놓았다.

《먹을만한지 모르겠소. 구워봅시다.》

모닥불을 피웠다. 그것을 구웠다. 제법 먹음직했다. 이렇게 목감자뿌리를 씹으면서 또 하루 간신히 이들은 나아갔다. 뜻밖에도 야자나무가 나타났다. 참대처럼 곧게 자라오른 나무우듬지에는 공작새꼬리같은 이파리들이 호합지게 펼쳐졌는데 그 사이에 야자열매가 소복이 달려있었다. 10여메터 아찔하게 높이 쳐다보이는 야자열매는 군침을 돋구어주었으나 그것을 따기는 조련치 않았다. 그래도 아직 힘이 있는 마키오데가 떠날 때 간수하였던 쇠꼬챙이를 힘껏 올려던졌다. 웅- 날아오른 그 쇠꼬챙이는 야자나무의 키를 넘고 땅에 떨어졌다. 이러기를 두번, 세번, 맞을듯 맞을듯 하면서도 야자열매는 떨어지지 않았다. 악이 받친 마키오데는 젖먹은 힘을 다하여 쇠꼬챙이를 던졌다.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오른 그것은 푸르싱싱히 자란 야자잎 한개를 수리개의 깃털처럼 떨구어버렸을뿐 수풀속 저 멀리로 날아떨어졌다.

《아! 하느님이 그만두라네. 나도 인젠 힘이 없어...》

군침을 삼키면서 마키오데의 팔매질에 기대를 걸었던 하프만이 털썩 쓰러지고말았다.

《굶으면 죽는길밖에 없어! 공연히 떠났지... 앉아서 기다려나볼걸...》

《웁아! 우린 결심을 잘못했어!》

마키오데도 쓰러져나누운채 허공에다 침을 찍-갈겼다. 년장자이며 입이 무거운 김광철을 어렵게 대해오던 이들이었지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자 이렇게 은근히 불만을 터쳐놓았다. 광철은 상한 다리를 힘겹게 끌면서 간신히 수풀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한동안 헤매면서 쇠꼬챙이를 찾아들고나왔다.

《마카오데! 한번 더 던져보오!》

광철은 간절히 요구했다.

《조선대표동지! 난 인젠 더는 힘이 없습니다.》

마키오데가 애원했다. 아령처럼 단단해보이던 마키오데마저 김빠진 고무공처럼 쭈그러들었다.

《으-하-으-으》

하프만이 절망의 한숨을 터뜨렸다. 모든것이 먹을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굶주린자의 광신적을 부짚음이었다. 광철의 눈앞에서도 검은 반점들이 부나비처럼 나뒹돌았고, 가물가물 정신이 아지랑이로 피기도 했다. 아득한 공간, 공작새꼬리같은 이파리속에 달려있는 야자열매가 불시에 동이만한 빵덩이로 보이면서 손에 잡힐듯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무수한 점들에 휘말려 안개속으로 사라져가기도

했다. 광풍에 우는 열대수림속에서 리룩하는 비행기의 폭음소리같은 굉음이 들려왔다. 그 요란스러운 수림의 설레임을 타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광철의 흥벽을 쳤다.

《동무들은 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떠난다는 것을 잊지 마오.》

비행장에서 뜨거운 손길을 보내며 배웅나왔던 일군이 남긴 목소리였다. 광철은 평온하게 육신에 안겨드는 부드러움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기증이 그를 쓰러뜨렸으나 다시 일어났다. 마키오데의 품속에서 단도를 찾아쥐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야자나무밑으로 기어갔다. 거목으로 안겨드는 야자나무밑등을 칼로 자르기 시작했다. 굳고 단단한 나무에 칼자리는 실금처럼 새겨졌다. 그래도 그는 계속 잘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광철의 반백이 된 머리카락은 물에 잠가넉넉 땀에 젖었고 물집이 터진 손에서는 빨건 피물이 줄벽이었다. 《뿌-지-직》 거목도 종당에는 넘어지고야말았다. 이 필사적인 노력을 황홀하게 바라보던 마키오데가 광철을 끌어안았다.

《조선대표동지! 어쩌면 이렇게...》

광철이 가벼운 웃음을 띠우며 마키오데에게 말했다.

《이젠 야자를 딸수 있게 됐습니다.》

하프만이 다가와서 손칼보다 좀 큰 단도를 추켜들었다.

《이 작은 칼로 거목을 찍다니!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진 생각을 했습니까?》

광철은 마키오데가 따온 야자열매를 어루쓸면서 조용히 말했다.

《나무에 열매가 달렸기때문이지요. 자, 요기들을 합시다.》

《열매때문이라?!》

이 의미심장한 말을 마키오데와 하프만은 동시에 곱씹어 중얼거렸다. 야자열매는 전부 6알이었다. 한사람에게 두알씩 차례졌다. 시원하고 영양가 높은 야자수의 즙액은 하프만과 마키오데에게 새로운 원기를 북돋아주었다. 김광철은 마른 입술을 추기며 야자열매 한개를 이들 몰래 손수건에 싸서 간수하였다. 쉽게 얻을수 없는 이런 식료품을 아끼는 아껴야 했던것이다. 아니나다를까 4 일째 되는 날은 이들이 한결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야자 두알로 겨우 원기를 얻었던 하프만의 기력은 해면에 물이 빨려들듯 가뭇없이 잦아들었다. 하프만은 거대한 체통을 녹녹한 땅우에 내동댕이친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빵에는 빠다를 말라야지... 비게를 많이 먹으면 나쁘다구? 다 개소리야! 없어서 나쁘지... 없어

서- 없어서 말이야!... 엘리자! 엘-리-자! 날 용서 하오... 이 하프만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장이 비어서 이 모양이요. 좋은 자동차도 휘발유 없이는 움직이지 못해... 난 차보다 못하단 말이야 차보다...》

하프만은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마키오데가 억지로 그를 끌어안아 일으켰다.

《하프만! 자네 왜 이 모양인가? 힘을 내자구!》

《힘이 어디서 나는가? 자동차의 힘은 휘발유구 사람의 힘은 빵이야! 빵, 빵이란말이야!》

하프만은 눈저죽마져 치뜨지 못했다. 빵이라면 몇에라도 뛰어들 정도로 그것을 갈망했다. 김광철은 육체를 배반하는 허기증과 싸우면서 모태기는 하프만의 허탈상태를 리해해주려고 했다. 했건만 그로서는 자꾸만 분격이 치솟았다.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이, 그것도 사랑하는 애인의 곁으로 가겠다고 그렇게도 열렬하던 청춘이 어쩌면 이럴수가 있단말인가? 이것은 타락이며 이것은 삶에 대한 무서운 배반이다.)

김광철은 마키오데와 하프만의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갑시다. 마지막 힘까지 다하여 앞으로 나갑시다. 전진하는 길만이 살길입니다. 자, 어서!》

《가시오. 가시오. 난 더 못가겠소. 날 여기에 두고가시오, 가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오. 어서 어서...》

그 말에 광철은 분격이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비겁하오! 젊은 청년이...》

마키오데가 하프만을 안은채 애원의 눈길을 보냈다.

《갑시다. 가긴 가야지요. 나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빠다와 비게덩이로 살아온 하프만을 욕하지 마십시오... 아-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건데...》

한숨처럼 새어나온 그의 마지막 가냘픈 말은 어쩔수 없이 흔들리고있는 자기의 나약성에 대한 변명이였다. 이런 때 주저앉는다는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임무에 대한 배신이며, 사람이기를 그만두는 무서운 일이다. 손땀을 놓고 하프만처럼 늘어지기는 쉬운 일이다. 쉽기때문에 분격스러운것이다. 이들을 안아일으킬 힘은 없는가? 있다. 그것은 밥이다. 빵이다, 비게덩이다. 지금은 그것이 없다. 그렇다면 죽어야 하는가? 아니다! 심장이 뛰고, 뇌수가 있어 사고할수 있는 한 마지막 한치까지도 앞으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한다. 이 정신만이 지금의 유일한 밥이며 빵이다.

《하프만! 마키오네! 움직입니다. 앞으로 갑시다.》

김광철은 어제 간수했던 야자열매 생각이 났다. 비록 한알이지만 이런 때를 위하여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그는 손수건에 싸서 꿈무늬에 찻던 야자열매를 끄르기 시작했다.

《땅!》

깊은 안개발을 뒤흔들며 멀지 않은곳에서 총소리가 터졌다. 하프만이 눈을 번쩍 떴다.

《총소리지?... 사람이다!》

《따-다-당...》

총소리는 련발로 터졌다. 히에나같이 생긴 짐승 한마리가 휘-그들이 있는곳으로 달아지나갔다. 마키오데가 속살거렸다.

《비적들입니다.》

마키오데는 번쩍이는 눈길을 총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돌렸다. 앙골라의 이런 수림속에는 아직도 진압당한 반혁명도당들이 이렇게 싸다니고있다. 극도로 야수화된 그들은 살인하고 방화하면서 때를 기다리고있다. 하프만이 정신없이 중얼거렸다.

《사람이요. 여보시오!》

마키오데가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하프만이 필사적으로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살아야 하오. 그들을 찾아가서라도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해-》

김광철은 엄하게 웨쳤다.

《하프만!》

발자욱소리가 가까와왔다. 비적들의 손아귀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 무시무시하고 기근이 든 열대수림속에서 굶어죽느냐? 하는 판가리시각이 닥쳐왔다. 김광철은 마키오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비장한 결심이 이글거렸다. 하프만이 다시 소리치려고 했다. 마키오데가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죽이겠어!》

이발사이로 내뿜는 이 저력있는 말과 함께 마키오데의 눈에서는 푸른 섬광이 번뜩이였다. 그것은 사랑을 배반당하였다고 생각한 오셀로가 데스디모나의 목을 조이던 눈빛이였다. 《킵-킵-》 숨넘어가는 소리가 하프만의 울대에서 울려나왔다. 발자욱소리는 멀어져갔다. 갑자기 터지기 시작한 회오리바람이 비적들의 자취도 숲속의 절망적인 정적도 드살스럽게 휘저어놓았다.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을 희롱하는 하늘의 눈물이었으며 대지를 두드리는 자연의 통곡이였다. 실신하여 늘어진 하프만을 슬그머니 땅에 내려놓히고 마키오데는 결연히 폭우를 후려치며 주먹을 내흔들었다.

《에익!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선대표동지!》

그의 절통한 부르짖음이 광철이 흉벽을 탕탕 두드려주었다.

《...난 저놈들에게 가족을 전부 살해당한 사람입니다. 저놈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가 없습니다.》

마키오데의 얼굴에서는 쏟아지는 비물이 눈물처럼 뺨으로 고랑저 흘렀다.

《...이 하프만도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고아로 거리를 헤맸고 고향으로써 대학을 나왔습니다.》

김광철은 말없이 끌려있던 야자열매를 마키오데앞에 내놓았다. 비물에 젖은 하얀 손수건에서는 한송이의 목란꽃이 푸른 야자열매를 떠받들고있었다.

《이건 웬것입니까?》 마키오데가 놀라 물었다.

《까서 하프만에게 먹입니다. 아직 우리 갈길이 멀습니다.》

김광철은 얼굴로 시끄럽게 흘러내리는 비물을 흘렸다.

《거기서는 어제 이걸 남겨두었군요? 모르겠습니다. 난 모르겠단말입니다. 조선동지는 어떤 사람인지?...》

목메여 말하는 마키오데의 눈에서는 더운 눈물이 넘쳐났다.

《어려운 때 우리는 〈한흠의 미시가루〉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광철이 말했다.

《〈한흠의 미시가루〉... 나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소설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지로 믿기에는 너무나도 숭고한 사실이지요. 이런것이 우리의 의리로 되고있습니다. 갑시다. 끝까지, 마키오데!》

광철은 야자열매를 까서 하프만의 입에 넣어주었다. 하프만은 무엇이 자기 입으로 흘러드는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꿀꺽꿀꺽 삼켰다.

비발속을 뚫고 세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다. 마키오데는 하프만의 성한 팔을 자기의 어깨에 걸매고 걸었다. 그것은 흡사 발류족들이 커다란 기린을 사냥해가지고 오는상싶었다. 그렇게 키가 큰 하프만이 힘없이 연방 신음소리를 내뿜으며 마키오데에 의지하여 걸었다.

김광철은 옮겨딛기 어렵게 쑤셔대는 다리를 끌면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들의 뒤에서 따라갔다. 아마도 상처가 곪기 시작하는지 어제밤부터는 훌쩍 훌쩍 비애치기까지 했다. 오한이 때없이 덮쳐들었다. 눈앞에서는 무수한 반점들이 부나비처럼 떠돌기도 하고 정신이 흐리마리해지기도 했다. 만사를 쥐여던지고 어딘가 쓰러져서 잠들고만싶었다. 눈을

감으면 끝이 빠개지는듯했고 눈을 뜨면 구역질이 나며 내장이 전부 쏟아져나올듯하였다.

《…선들, 선셋… 아니야! 이건 발자욱이 아니야, 또 헛짚었군! 선셋!…》

광철은 이 발자욱 수자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의탁한듯했다. …

《…삶과 죽음의 한계점에서 사람의 진짜 값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이 사색하는 생명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이 확고한 목적으로 지향되고있을 때만이 값높은 삶을 낳게 된다는 것을 저는 내가 사는 내 나라에서 실지 체험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무의도식한 생활속에서만 안일하고 해이되는것이 아니라 극단의 위험과 시련속에서도 안일하고 해이되는것입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김광철동지! 저는 그때 광철동지의 눈물겹도록 완강한 의지앞에서 머리가 숙어졌으나 제 자신이 자기를 광철동지와 같은 정신적높이에까지 이끌어올릴만한 확고한 목적이, 생활의 신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이사냥을 끝내고 한가롭게 휴식하고있는 악어를 보았을 때 우리가 길을 헛갈리었다는것, 우리앞에는 〈검은 호수〉가 나타났다는것을 깨닫게되자 어쩔수 없는 절망감에 떨어지고말았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위대하다고 떠들던 하프만이 추태를 부리게 된것도 그 목적의 단순성에서 초래된 허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마키오데의 깊은 자책이 리해되었기때문이었다.

×

초점잃은 눈길로 멀리 앞쪽을 바라보던 마키오데는 갑자기 눈을 홉떴다. 그리고는 안타깝게 웅얼거렸다.

《악어라?! 아-하…》

그는 자기의 고수머리를 와락 쥐어뜯었다.

《〈검은 호수!〉 〈검은 호수!〉 우리앞에는 〈검은 호수〉가 나타났구만.》

그는 몸부림치며 덩굴었다. 영문을 알수 없어서 김광철이 그를 흔들었다.

《마키오데! 어떻게 된 일이요? 왜 이러오? 〈검은 호수〉란건 무엇이요?》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실성한 사람 모양 자기 머리칼을 자꾸 쥐어뜯었다.

《난 바보요! 바보! 바보란말이요, 우리 길을 잘못 들었소. 야자나무가 나타났을 때부터 정신을 차

렸어야 하는건데… 우리앞에는 〈검은 호수〉가 놓여있습니다.》

김광철은 마키오데의 말을 믿을수가 없었다. 아직 그들의 눈앞에는 호수가 없었다. 참대처럼 길길이 자란 억새풀들과 수초들 그리고 안개속에서 구렁이의 몸뚱이처럼 구불거리는 바오브나무아지들만이 내다보일뿐이었다.

《잘못 생각하는게 아니요? 여긴 호수가 없는데…》

광철의 행어나하는 물음에 마키오데는 힘있게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우리앞에는 분명 〈검은 호수〉가 있습니다. 저런 악어들은 〈검은 호수〉에서만 삽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봅시다. 확인하고서야 결심이 설게 아닙니까.》

아무리 김광철이 침착하게 타일렸으나 마키오데의 절망감을 덜어줄수는 없었다. 광철은 그를 억지로 이끌고 앞으로 나갔다. 200여미터를 채 가지 못해서 정말로 그들의 앞에는 번들거리는 호수의 수면이 나타났다. 호수기슭에서는 솔뚜껑같은 왕개구리들이 놀라 침뿜침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뽕꽃잎들이 둥둥 떠있는 수면으로는 자주 물방울들이 솟아올라 터지곤했다. 호수밑에서 고여오르는 이 가스들은 역한 냄새를 풍겨주었다. 김광철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여기서 끝장이 난단말인가? 5일동안의 힘겨운 행군길이 이제 이 호수때문에 끊기고만단 말인가? 이 호수를 건널 방법은 없는가?)

하프만이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다.

《나무통이라도 있었으면 때를 못겠는데…》

마키오데가 목대를 푹 꺾었다.

《무슨 힘으로? 어떻게 우린 빈손이요. 힘이 없소. 아- 이게 다 나때문이요. 우린 떠나질 말았어야 하는건데… 이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검은 호수는 활동처럼 휘어져있는데 이 호수를 피하자면 아직도 온것만큼 에돌아야 합니다. 호수기슭은 산림 초원보다 몇곱절 위험합니다.》

마키오데는 그냥 자기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어-허-허.》

하프만도 머리를 싸쥐고 나가넘어졌다. 이들을 비웃듯이 호수우에서는 짙은 안개만이 서서히 굼돌고있었다. 번덕스러운 열대수림속의 날씨처럼 이들의 감정도 희망과 절망의 극단으로 오락가락했다. 누구에게나 이제 더는 힘이 없었다. 걸어온 길은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필사의 힘을 짜내어 축을 낸 혈로였다. 이제 이 호수를 건널 아무런 수단도 방법도 없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오직 하나의 출로

란 걸어온 길보다 몇배로 험난한 호수를 에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어쩌면 일은 이렇게도 꼬여만드는가? 하프만이 벌떡 일어났다.

《마키오데! 칼을 주오. 난 비겁한놈이요. 난 배신자요. 난 약자요. 난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이제 사람답게 죽고말겠어! 칼을 주오!》

하프만의 노란 눈동자에는 비장한 결심이 력연했다.

《조선대표동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벌써 방도를 찾는 물음기 아니라 절망에 몸부림치는 마키오데의 마지막 부르짖음이었다.

김광철 역시 억이 막혔다. 결심이 서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타번지는 가슴속에서는 오직 한 목소리만이 터져나왔다.

《가야 해- 가야 합니다.》

《억지요. 그건 억지입니다. 이제 어쩔수 없습니까.》

《나가야지-앞으로!》

이 순간처럼 김광철은 자기의 말이 공허하게 들려보기는 처음이었다.

《마키오데! 칼을 주오! 죽고말겠소.》

하프만이 마키오데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김광철은 눈을 꼭 감았다.

(이렇게 사람이 무뎡한가? 이렇게도 사람이 비굴하고 힘이 없단말인가?)

광철의 눈앞에는 이 순간 수수올타리안에서 쿵쾅거리며 울고앉아있는 조고만 중학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광철은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눈에서 불꽃이 번쩍했다. 다리의 상처에서 오는 동통이 뇌수를 쿵 찢었던것이다.

《어-하!》

광철은 김빠진 주머니처럼 풀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기와 상처가 이제는 어쩔수 없이 화농되었다는것을 뼈아프게 느꼈다. 그는 굳은 결심을 다지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상처를 처치해야 했다. 그는 마키오데에게 칼을 달라고 조용히 말했다. 마키오데가 광철을 쳐다보았다. 아마도 그는 광철의 눈빛에서 비장한 결심을 엿본듯했다.

《다 죽읍시다.》

마키오데는 칼을 광철에게 조심스럽게 넘겨주었다. 칼을 넘겨주는 왁살스러운 마키오데의 손길이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광철은 갑자기 마키오데가 측은해졌다.

《마키오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임무가 있기 때문에 죽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김광철은 날이 선 단도로 자기의 바지가랭이를 쪽 찢었다. 지금까지 숨겨온 험상스러운 상처가 확 드러났다. 터질듯 부어오른 장딴지, 찢- 헤갈라

진 상처, 거기에서는 피고름이 흘렀다. 마키오데가 켜해진 눈으로 그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는 넋잃은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표정에는 무엇이라고 이름할수 없는 억한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굳어져있었다.

《선생님!》

하프만이 상처입은 광철의 다리를 부여잡으며 머리를 꼭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었다. 광철은 이러는 그를 달래며 굽아서 문드러지기 시작한 상처에서 피고름을 짜던지었다. 시원한게 금시라도 날아갈것 같았다. 그는 마키오데와 하프만의 손목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우리 끝까지 우쥌로 갑시다.》

김광철은 힘있게 말했으나 마키오데나 하프만에게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초점을 잃은 그들의 동공에 비낀것은 은회색 안개발과 저앞에서 괴롭게 흐느적이는 바오브나무의 줄기들뿐이었다. 《검은 호수》에서는 여전히 커다란 물방울이 솟아올라 터져나가면서 억한 냄새를 풍기고있었다. 하프만이 맥없이 드러누워버렸다.

《난 여기서 조용히 죽음의 시각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죽을것입니다.》

마키오데가 자기의 동가슴을 두드렸다.

《난 머저리요. 이제 다 내 잘못이요. 그러나 이제 나는 더는 갈 힘이 없습니다.》

부르짖 주먹으로 그는 질척한 땅바닥을 두드렸다. 그의 검은 눈확에서는 진주알같은 눈물방울이 삶의 갈망을 애타게 하소연하면서 방울방울 떨어졌다. 광철은 앞자락의 안섵을 찢어내어 상처를 동여맸다. 그리고는 힘겹게 일어섰다.

《여기서 기다려주오. 내가 먼저 가서 당신들을 구원해주겠소.》

광철은 발자욱을 땀다. 한발을 내디디고 심한 동통으로 어깨를 들썩이었다. 또 한발자욱을 옮겨놓으며 이를 악물었다. 절룩절룩 몇발자욱 옮기지 못하여 광철은 꼬꾸라졌다. 잡초들만 무성한 호수가에서 그는 풀포기들을 그러쥐고 끌어당기면서 기여나가기 시작했다. 앞자락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피가 났다.

《대표동지!》

《선생님!》

마키오데와 하프만이 필사적으로 광철을 따라기여오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방패도 무기도 없다. 오직 그의 억센 손아귀밖에 없다. 광철은 기수가 되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세사람은 그냥 호수가를 기었다. 끈적거리는 감탕이 온통 계발리였다. 진펄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에 배속이 뒤집히는듯했다.

마키오데가 광철의 뒤자락을 끄당졌다.

《조선대표동지!》

광철은 마키오데를 돌아보았다. 보신용권총의 총신처럼 똑 내뿜친 마키오데의 손가락이 설렁이는 갈대숲을 겨냥하고있었다. 거기에는 차곡차곡 쌓아놓은듯한 바오브나무의 무지가 보였다. 그것은 이 호수가에 있는 랑서류들을 잡기 위한 덫이었다. 굵은 통나무들로 발을 엮어놓은 그 덫의 덫판이 광철의 뇌리를 쳤다.

《마키오데, 댜소 !!》

기쁨에 찬 환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그 덫으로 어설피기는 했으나 떼를 무었다. 마키오데는 단단한 종려나무줄기로 긴 샷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이들의 간고한 로정은 끝을 보게 되었다. 옛새짜되는 날 저녁에야 이들은 우체에 닿았다. …

추억에서 소스라쳐 깨어난 김광철은 편지의 마지막부분을 읽었다.

《…내가 참으로 영웅인가? 이 편지를 쓰고있는 지금 저는 이런 문제를 자꾸만 제기해봅니다. 한때는 영웅이라고 자부하고있던 제가말입니다.

갈기를 일으키며 무섭게 노호하는 파도우에 락업처럼 떠도는 한척의 뱃트에는 죽음의 공포로 하여 실신한 여섯명의 선원들이 타고있었습니다.

나의 직승기는 그들의 머리우에서 맴돌고있었으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접근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저의 눈앞에 무엇이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풀포기를 쥐여당기며 진펄을 필사적으로 기여가던 김광철동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체에 나타나자 기자들이 달려왔지요. 기적적인 사실을 취재하려고 말입니다. 그때 광철동지는 터갈라지고 찢기고 더는 운신할수 없는 초

월한 모습으로 누워있으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물이라도 한고뿌 주십시오. 전 기운을 내야 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만이 웃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아직 조국이 준 임무가 남아있습니다.》

애원하듯 간절하게 말하는 그 목소리는 나에게 퇴성벽력처럼 들렸습니다. 인생의 철리를 깨우쳐주던 그 목소리, 어떤 절해고도에서도, 그 어떤 시련과 폭풍우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신념의 목소리, 그 말속에는 목적을 인식한 인간의 위대성이 깃들어있었습니다.

김광철동지의 말을 듣고 하프만은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웨쳤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참인간이다! 아-조선사람이 이거다.》

김광철동지! 저는 그때에야 비로소 조선인민을 왜 영웅적인민이라고 온 세상사람들이 찬양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영웅의 나라, 영웅적인민, 저 역시 속으로 뜨겁게 불려보았습니다. 그 장엄한 메아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도록 말입니다.

제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박해 들어갈 때 저에게 신의 계시처럼 울려온 목소리는 바로 김광철동지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그 소박한 말마디들이었습니다.

저의 가슴속에 이처럼 김광철동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땀땀이 말합니다. 나는 영웅이다라고…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하프만과 엘리자에게는 두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회사에 주체사상연구학회를 꾸리고 그 책임자로 맹활약을 하고있습니다.…”

국제우편으로 날아온 편지를 소중히 봉투에 넣고 김광철은 창가에 다가섰다.

끝없는 환희와 긍지가 평양거리에 차넘치는 생활의 맥박과 함께 그의 심장속에서 고동치고있었다.

《영웅의 나라! 영웅적인민!》

이 말을 땀땀이 할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추억과 소원

김익철

그날의 아버지

사람들은 흔히 청년시절을 두고 《좋은 때》라고들 말한다.

여기에는 구만리같은 앞길에 희망과 포부에 넘쳐 인생의 봄시절을 산다는 지난 세월의 관념이 다분히 깔려있다.

나는 오늘의 시점에 서서 청년시절을 그저 《좋은 때》라고 하기보다 《중요한 때》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 인간의 역사는 대가 바뀐 역사이다. 후대는 선대로부터 온갖것을 물려받아가며 산다.

이로부터 새 세대가 전 세대로부터 무엇을 근본으로 이어받아 빛내어나가느냐 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문제로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오늘의 현실에서처럼 그렇게 날카롭고 절박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시대의 흐름을 추동하는데서 청년들의 위치는 어느 시대에서나 자못 중요하였다.

조국땅에 드리운 암흑의 비운을 가셔내고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한 우리 혁명의 1 세도 청년공산주의자들이었고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혁명의 2 세에 속하는 청년들이었다.

나 역시 그 두번째 세대에 속하는 한성원으로서 여기에서 생의 참다운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있으며 3 세, 4 세들의 시대적의무감에 대해서 늘 깊은 생각에 잠겨보곤한다.

지금은 이미 3 세, 4 세들이 세대교체의 《출발선》을 넘어섰고 속속 나서고있는 때이다. 실탄사격을 위해서 《출발선》에 나서는 사수들에게 하는 로파심 깔린 사격지휘관의 《훈시》라고 할지 나 역시 새 세대청년들에게 빼없이 하고싶은 말이 불쑥불쑥 떠오르곤 하는것을 어쩔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의 정세는 우리 인민이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발휘한 그 투쟁정신과 기백을 가지고 계속 힘차게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전승 40 뚝을 맞는 올해 당과 수령의 의도가 이 한문장속에 요약되어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전승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많은것을 상기시키는지 모른다. 3 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의 만세를 세상에 대고 웨치던 그때 내 나

이 열아홉이었다. 그러던것이 벌써 환갑을 멀지 않게 바라보게 되었다.

세월이 류수갈다는 말은 인간세상이라는 물결 위에서 인생이라는 폐목을 타고 생활의 쓰고 단 고비를 다 넘어보지 않고서는 그 참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 경제건설, 국방건설의 병진과 사회주의대고조, 이 몇마디로 요약되는 거창한 역사적흐름이 40 년이라는 시간적비약속에 함축되어있다.

이 시공간적비약을 거쳐오는 나날에 망각이 아니라 더욱 깊은 자각으로 안겨지는 지울수 없는 추억은 오늘도 《그것이다, 그것이다.》하고 려명의 경종을 울려주고있다.

군복을 입고 전쟁을 치른 사람이라면 의례히 전우들을 가지고있다. 나 역시 전우들이 있지만 전승의 날이 올 때면 반드시 추억하게 되는 한 전우가 있다.

그는 전쟁시기치고는 어린 촉에 속했던 나보다도 두살이나 아래였고 부대적으로 그중 어렸다. 제일 작은 군화를 신어도 매생이를 탄것 같아 구두끈으로 발목을 두고쟁이나 감아매고야 다녔다. 그저 작은 키에 목대만 상큼했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입대할수 있었는가?

1951 년 2 월이었다. 이 땅에 생겨난 전쟁의 흔적을 말끔히 덮어버리며 흰눈이 강산같이 내렸다. 그날 부대가 주둔한 마을의 초청으로 중대장이하 몇명의 군인들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나도 그속에 끼이게 되었다.

싸움을 겪느라고 어려운 때였지만 마을사람들은 성의껏 음식상을 마련하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마을 늙은이들, 아낙네들과 어울려 만찬이 끝난다음 좌담회가 벌어졌다.

구수한 소여물냄새가 풍기는 구들이 뜨끈한 탕통방에 빈틈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우리가 앉은 제일 가까이에는 호기심 많은 동리 조무래기들이 강냉이이삭에 알달리듯 다닥다닥 붙어앉았다.

비위살 좋은 주인집 애녀석은 방치같은 코를 훌쩍거리며 중대장의 어깨에 달린 별을 슬슬 만지다가 푹 떼내는바람에 좌중에 경악과 폭소를 터뜨리게 했다.

중대장의 전투담이 시작되자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모두들 숨을 죽여가며 미제공중비적과 싸우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었다. 미국놈의

《썩새기》가 고사포란에 얻어맞고 불이 달려 떨어지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야!》하는 탄성과 함께 뒤쪽에서 열댓살 됴직한 학생이 불쑥 일어섰다. 좌중의 시선이 일시에 그리로 쏠렸다. 그 순간 학생의 표정이 분노를 띠면서 총알같은 질문이 튀어나왔다.

《미국놈 비행사는 어떻게 됐나요?》

불의의 질문에 중대장은 잠간 학생을 마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주었다.

《허허, 그놈이야 영낙없이 <천당> 엘 갔지.》

그제서야 학생은 마음이 놓이는지 뒤덜미를 긁적이며 자리에 앉았다.

우리가 떠나오려고 트랙에서 마을일꾼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있을 때 불쑥 아까의 그 학생이 나섰다. 다짜고짜로 우리를 따라가겠다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그 학생은 미국놈들의 폭격에 부모와 동생을 잃고 고아가 되어 마을 너맹위원장집에서 었혀살고있었다.

《너는 아직 장을 몇독 더 먹어야 돼, 너의 원수는 우리가 갇을테니 공부나 잘해!》

중대장이 설복했으나 막무가내였다. 그런것을 억지다짐으로 떼어놓고 돌아왔다.

그로부터 얼마후였다. 나는 중대지휘부에 들어갔다가 뜻밖의 일에 부닥쳤다. 바로 그 학생이 중대장앞에 서있었다. 한손에는 자그마한 보침이 들려있고 다른 손에는 토끼털귀딱지가 들려있었다.

그 학생은 부대 대렬과를 거쳐 끝내 입대를 승인받고 중대로 배치되어왔던것이다. 그런데 기어코 포수가 되겠다고 떼를 쓰고있었다. 중대장은 하는 수 없이 화력소대에 배치했다. 중대에서 내가 제일 나이 어렸던탓인지는 몰라도 박동무와 나사이에 자별한 친분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 그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인차 장탄수의 임무를 수행했고 다음에는 조준수가 되어 여러대의 적기를 떨구는데 한몫 했다. 그의 포에는 일곱개의 별이 그려졌다.

전쟁은 드디어 종착점에 이르러 1953년 7월 27일이 왔다.

이날밤 쌍방은 총포신을 내리우고 정전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있었다. 전투원들의 마음마냥 그날 아침은 하늘도 맑게 개이었다. 전쟁이 끝난다는것이 현실로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벌써 평화가 깃든 이 땅의 래일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장은 밤 10시부터 마음대로 불을 켜게 된다는 희한한 생각으로 진정을 못했고 멀지 않게는 휴가를 받고 쏟아지는 해빛에 마주 웃으며 고향행 열차를 타고 궤도우를 달리게 될 꿈으로 황홀해지기도 했다. 그렇다. 우리는 승리했던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생각에만 잠기기에는 일렀다. 내가 전승의 날이 오면 박동무를 두고 잊지 못해하는 전투속의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그날에 벌어졌던것이다.

그러나 편의상 그날의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얼마전에 박동무를 만났던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고 한다.

조준수와 그 아들

박동무는 오랜 기간 대외선전부에서 일하고 있다. 그자신 자주 외국에 나가있는데다가 나 역시 거의나 외지에 나가 사는 일을 하다보니 우리가 만나는 기회란 극히 드물었다. 수도에 같이 살면서도 때로는 한통화의 전화로, 때로는 편지 한통으로 몇해사이의 회포를 나누는것이 레사로 되었고 《평범한 일》로는 서로 《절선》하는 경우가 없다싶이지내왔다.

그런 박동무가 며칠전 초저녁에는 기별도 없이 불쑥 내 집에 나타났다. 그는 나와 수인사를 나누고 나서 전실에 선채로 누구를 찾는지 이방저방에 급하게 눈길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실망어린 표정으로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누구를 찾나?》

나는 얼떠름한채 물었다.

《혹시 우리 춘석이 오지 않았나 해서...》

박동무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은듯 태연해지고 애쓰며 방안으로 들어와앉았다. 나는 대뜸 막내가 춘석한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것을 느끼며 담배를 권했다. 그는 연방 담배를 빨뽀 말이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내쪽에서 조금증이 나서 물었다.

《메로끼 잡으러 갔다가 집토끼 놓친척이네...》

박동무는 입이 쓰거운지 혀를 쫓쫓 차고나서 전후사연을 말했다.

춘석이가 중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간것은 작년이었다. 그런데 나가자바람으로 직장이 마음에 없다면서 다니며말며 해오다가 최근에는 아버지가 돌아오면 판데로 옮겨갔었다고 아예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외국출장에서 돌아와 이 사실을 들은 박동무는 결김에 다시는 그따위 생각을 하지부터 말라고 되게 다불러세웠다. 그러자 저녁도 안먹고 횡하니 나가버린것이 웅근 이틀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 행어나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춘석은 한때 공부도 잘 안하고 때로 등교도 하지 않아 소문난적이 있었다, 박동무는 망아지모양으로 번저가는 그놈을 다잡느라고 별의별 방법을 다하다가 독서에 취미가 있는것을 리용해서 우리 집에서 책을 가져다가 읽히면서 차츰 눌러앉혔다. 그것을 빌미로 춘석은 우리 집에 자주 다니게 됐고 한때는 문학가가 된답시고 미친듯이 책을 가져다 읽었다. 그러던것이 썰물에 물찌듯 열의가 싹 식어버려 1년 가까이 우리 집에 발길을 안했다.

《아직 철이 없어 그러는데 차차 나아질거네.》

나는 달리는 할말을 못찾고 이렇게 위로했다.
《뭘, 철이 없다구? ! ...그 나이에 우린 어쩌겠나.》

박동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선채 창밖만 내다보았다. 거리의 장식등에서 발산하는 붉고푸른 불빛의 여광이 창유리에 언뜻언뜻 비끼며 무엇인가 숙연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하긴 그렇지, 나이가 어린건 아니지, 1953년 박동무 나이와 지금의 춘석이 나이는 꼭같이 열일곱살이 아닌가!)

나의 사색속에서 정지되어있던 전쟁의 마지막날의 추억의 《테프》가 풀리기 시작했다.

...설마 전쟁의 마지막날에야 싸움이 있으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더러는 방심한 상태에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대로 병기창방어임무를 마지막까지 수행했다는 안도감과 자부심을 뽐냈이 말하는 축들도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무렵 마치 그 사실을 부정이라도 하듯 포진지에 전투준비 구령이 울렸다. 이것은 정화를 현실로 믿기 어려워하던 전투원들의 긴장된 정신상태에 충격적인 자극을 주었다.

얼마후 싸움은 예상외로 본격화되었다. 거듭되던 실패의 분풀이를 이날의 한순간에 해보려는듯 적기들은 집요하게 접어들었다. 기동이 빠른 전투폭격기들은 한패를 지어 포진지에 덮쳐들고 속도가 급튼 경폭격기들이 병기창을 목표로 내리쫓았다. 이런 때는 포들이 말은 구역만을 쏘게 되어 자기보신적인 그 어떤 행동도 할수 없었다. 박동무네는 병기창을 치는 적기만을 상대로 싸워야 하였다.

한창 전투가 가렬해지자 진지에서는 포성이 성기여지기 시작했다. 일부 포들이 피해를 입어 전투원들이 능력을 잃거나 기체가 마사지거나 하여 대응사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것이다.

바로 이런 때 박동무네 포진지 기슭에서 한발의 폭탄이 튀면서 진지를 거의나 흠사태로 덮었다. 선 자세로 싸우던 포수들은 폭풍에 날려 나가 동맹이 처졌고 조준수들은 흠더미를 뒤집어쓴채 조향륜에 쓰러졌다. 정적이 진지를 무겁게 눌렀다. 바로 이순간에 제일먼저 의식을 차린것은 조준수 박동무였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보니 포판에는 열자리의 조준수만이 쓰러져있을뿐 텅 비어있었다. 그런데 병기창 상공으로는 선회를 마친 적기들이 다시금 급강할 태세를 취하고있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바랄 경황이 없었다. 박동무는 가까스로 흠더미를 털고일어나 무작정 포탄을 장탄했다. 그리고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두손으로 각각 조향륜을 돌리며 어림짐작으로 사격메다루를 밟았다. 적기를 향해 포탄이 연방 날아갔다. 내리쫓히던 적 선두기가 주춤거리다가 기수를 들었다. 박동무는 오직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가물거리는 의식을 가

다듬었다. 바로 이때 쓰러졌던 방향조준수가 포소리에 의식을 차렸던지 부실부실 일어났다.

둘의 협동사격으로 두번째 적기에 명중탄이 안겨졌다. 기적이었다. 고지에는 만세합성이 일어났다. 박동무는 적기동체에 불이 확 달리는것을 보는 순간 다시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날저녁 포진에는 여덟번째 별이 그려졌다. 그 순간 박동무는 군의소 침대우에서 의식을 차리지 못한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병기창을 사수했다는 보고를 거듭 아뢰이고있었다. 군의들과 간호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했다.

이것이 전쟁의 마지막날에 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실은 삽시에 온 부대에 전해졌고 얼마후에는 신문에 대서특필로 소개되었다...

이런 생각을 더듬느라니 어느덧 나의 눈에도 뜨거운것이 고이였다. 열다섯 어린 나이에 부모의 복수를 위해 군복을 입었고 열일곱나이에 미제의 《공중신화》를 짓부신 소박한 고사포병이었다.

어찌 박동무만이라. 스무살안팎의 모든 청년들이 한결같이 떨쳐나 우리 혁명의 1세가 찾아준 조국을 수호함으로써 2세가 지닌 시대적사명감을 다했었다.

그랬던 박동무로서 자기가 설자리마저 자각하지 못하는 자식을 두고 개탄하는것은 응당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당장은 그를 진정시켜야 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 앉으라구. 당장 일이 난것도 아닌데 뭘 그러나.》

《김동문 지금의 내 심정을 모르니까 셈평좋은 말만 하고있네...》

박동무는 좀 갈린듯한 어조로 나무라며 가스라이터를 꺼내어 불꺼진 담배에 가져갔다. 나는 대답이 궁해져 그의 말을 기다렸다.

《우리가 결코 그 어떤 위안으로 방심하고 살 때가 아니네. 난 우리의 자식들이 지금 세상을 꾸꾸로 살고있는 나라들에서처럼 비참하게 되기를 눈뜨고 버려둘수 없단말일세.》

《...》

나는 부지중 신중해져서 할말을 찾지 못했다.

참으로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3세, 4세 청년들이 1세, 2세들이 개척하고 고수발전시켜온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할 투철한 신념과 각오로 시대앞에 부과된 자기의 사명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 당에 의해서 교양육성된 새 세대들속에서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갈 일념으로 얼마나 많은 미거들을 속출시키고있는가.

수많은 제대군인들과 처녀들이 대흥으로 농촌으로 자원해 달려가고 전우들, 인민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 군인들의 감동적행동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가운데 영예군인들

과 일생을 같이하려는 처녀들이 수없이 늘어나는
오늘의 현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모
습이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는 아직 자기 개인을 먼저
내세우며 못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는 청년들도 없지 않다. 우리는 결코 이것
을 작은것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자기만을 알고
향락에 재미를 느끼는 사소한 요소들이 자라면 종
당에는 당도, 국가도, 인민도, 몰라보는 속물로 정
치적락오자로 혁명의 배신자로 돼버리기 마련이다.

청춘시절이 아무리 소중한고 두번 다시 없는것
이라고 해도 자기의 시대적사명감도 모르고 꺾렁꺾
렁 살아간다면 그러한 청춘을 열번 백번을 산다고
해도 단 한푼의 가치도 없다.

우리 혁명의 1 세, 2 세들의 청춘시절을 본받아
그들이 높이 추켜든 붉은기를 지키기 위해 순간과
순간, 날과 달을 바쳐가는것이 3 세, 4 세들이 자기
의 청춘시절을 빛나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두고 바라게
되는 가장 큰 기대이며 소원이기도 하다.

영웅앞에서 부른 노래

박희영

한줌의 흙으로
영웅은 이미 갔어도
영생의 삶으로 길이 남아
세월속에 더욱 빛나는
리수복!
나는 지금 그 영웅앞에 서있다

애젊던 청춘
원췌의 화점으로 달려나가던
그 순간으로 자기 모습을 멈춰세운
영웅이여, 그대는
나이 열여덟
해놓은 일 적은 나보다
오히려 두세살 젊은나이

내 거치른 이역땅 하늘아래
조국의 얼을 지키며
청춘으로 자랐건만
아직 해야 할 일 앞에만 있다고 생각하며
아직 푹푹한 각오조차 없는 나에게
그대는 무엇을 이야기해주는가

아, 가슴을 두드리는
영웅이 남긴 목소리, 목소리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아, 그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없었던가
빛나는 희망이 없었던가
아니여라, 영웅에겐
사랑해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희망해도 누구보다 더 희망하는 미래가 있었다

고향의 물결 푸른 내가에서
사랑하는 처녀와 함께 그려본
그의 앞날은 얼마나 아름다웠으랴
살아있으면 많은 일을 하였을
아까운 생
그 생을 아낌없이
조국앞에 고스란히 바친 청춘이여

청춘이란 무엇인가
생이란 무엇인가
영웅이 웨친 심장의 그 호소
내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줄 때
영웅이여, 나는 내자신의 량심에 물어본다
조국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
조국을 위해 이 청춘 어떻게 바치겠는가

영웅이 남긴 시는 시만이 아니구나
영웅이 부른 노래는 노래만이 아니구나
내 좀더 일찍 그대앞에 섰더라면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보람있는 자욱
더 찍었을것을...

빛나게 살리라, 영웅이여 그대처럼
비바람 사나운 이역땅에서
어지러운 거품을 맞받으며
그대 화구를 막던 심정으로
그대 지킨 조국을 위해
그 조국의 통일을 위해
살리라, 둘도 없는 내 청춘 바치며

(필자는 조선대학교 문학과 학생임)

새벽노을

리영환

로력혁신자들의 위훈을 소개하는 방송야회에서 경험토론을 한 처녀운전사 하옥경은 방송야회가 끝난 후 평양견학을 하며 며칠간 묵게 되었다.

어느날 아침 귀밑머리가 희끗한 녀기자가 하옥경을 취재하러 찾아왔다.

그들은 채광이 좋은 넓고 긴 응접실에 마주앉았다. 방안은 고무나무와 룡설란화분이 창가에 놓여있고 꼬리치는 금붕어어항까지 있어 한결 정갈하고 아늑하였다.

물가집이 점잖고 지성이 느껴지는 녀기자는 깎듯이 경어를 쓰며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9.9절까지 년간수송계획을 끝낼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실화를 쓰려는것만큼 물론 다른 이야기도 좋아요.》

처음 하옥경은 얼굴을 붉히며 자랑할만한것이 별로 없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일할것이라고 겸손하게 사양하였지만 거듭 물어보는 어머니벌되는 기자에게 실례되는것만 같아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 방송야회에 참가하고 신문에 나게 된것이 어찌 나혼자만의 공로라고 하랴. 아니, 이것은 처녀에게 있어서 이미 그 누구에겐가 꼭 하고싶었던 가슴속 사연이기도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네겹으로 접은 전보용지를 꺼내었다.

《선생님, 좀 보십시오. 어제 저의 동무한테서 온 전보입니다.》

기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전보를 읽었다.

《…오늘 새벽에도 자동차나팔을 울렸음. 그 사람이 손을 흔들어 바래줍. 래일도, 모래도 우리는 서로 만날것임. 춘선.》

갑자기 기자는 품격에 어울리지 않게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무슨 전보가 이래요? 정탐영화의 접선암호 같군요.》

기자는 재미스러워 웃는데 옥경은 얼굴을 붉히며 살래살래 머리를 저었다. 이윽하여 처녀는 이상한 전보가 오게 된 차조지종을 이야기하였다...

희뻘히 밝아오는 미명속에 반달령의 우중충한 숲이 어렴풋이 자래를 드러냈다. 젖빛안개가 꿈틀거리는 새벽의 고요를 깨뜨리며 화물자동차 한대가 산기슭으로 다가섰다. 자동차는 경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고래등같이 밋밋한 경사길을 뚫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운전칸에는 두 처녀가 앉아있었다. 조향륜을 잡은 작고 오달진 처녀는 춘선이라고 보통키에 곱게 생겼다고는 할수 없지만 둥그런 얼굴과 크고 시원

한 두눈, 성큼한 목으로 하여 시원하고 활달해보이는 처녀는 제대군인운전사 하옥경이다. 그들은 철길에서 50리나 떨어져있는 명천군차사업소에서 쌍둥이로 불리우는 혁신자들이다. 철길로 들어오는 농차재는 대체로 이들이 반달령을 넘나들며 실어들이나.

지금 하옥경은 방송야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새벽차를 타려고 역으로 가는길이다. 그는 화물역에 비료를 실으러 가는 춘선에게 부탁하여 꼭두새벽에 길을 떠났다.

자동차는 석비레길에 점점이 널린 단풍잎을 밟으며 경쾌하게 달렸다.

자동차길과 초간히 떨어져 허공중에는 삭도줄을 따라 삭도바가지가 건뎡건뎡 날아지나간다. 자동차길은 삭도길과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와지기도 하면서 나란히 령마루를 향해 뻗어올랐다.

하옥경은 지금 삭도길을 바라보고있다. 나무를 베어내고 닦은 삭도길을 따라 빨간 단복을 입은 청년이 뛰어오고있는것이 보였다. 청년은 자동차를 훌끔훌끔 건너다보면서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온다. 가끔 멀어지기도 하고 따라앞서기도 하면서 청년은 승벽내기로 줄달음쳤다. 산비탈을 뛰어오르는 청년을 즐거운 시선으로 바라보고있던 옥경이가 운전대로 손을 뻗쳐 나팔을 울렸다. 그리고는 청년을 향해 머리수건을 흔들어주었다. 그에 화답하듯 청년이 체육모자를 벗어 힘차게 흔들어댄다. 늘씬한 몸매, 탄력있게 내짚는 두다리,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힘있게 내짚는 두팔... 거리가 멀어 얼굴은 분명치 않았지만 청년의 거동은 확실히 기쁨에 넘쳐있었다.

가지런히 흘러가던 자동차길과 삭도길이 차츰 벌어지기 시작했다. 청년의 모습은 숨박꼭질을 하듯 잡관목들 사이로 언뜻언뜻 드러나군했다. 이제 산중턱에 이르면 길은 다시 가까와질것이다.

청년의 모습이 사라지자 옥경은 아쉬운듯 입을 울 감뻘며 춘선에게 말을 건넜었다.

《너 저 동무 누구줄 아니?》

《누군 누구예요. 달리기선수지요. 나도 이따금 새벽운행을 할 때면 저렇게 뛰어가군하는것을 보곤 해요. 아마 저런 사람은 성공할거예요.》

춘선은 뻔한것을 묻는다는듯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니, 저 사람은 달리기선수가 아니야.》

옥경은 머리를 저으며 어쭙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 한참이고 줄저리더니 이어 용기를 낸듯 말을 이었다.

《춘선이, 저 동무는 내가 잘 알아, 이런 말을 한다고 웃지는 말어.

우린 지난해에 알게 되었어.

어느 겨울날 새벽이었어. 그날은 진눈이 내렸어. 내가 자동차를 끌고 이 비탈길을 오르는데 그만 헛바퀴가 돌기 시작했어. 차는 조춤조춤 미끄러져내렸어. 그렇게 조금만 더 뒤걸음치면 차는 경사지로... 눈앞이 막 아찔하고 땀이 빠질빠질 나더구나. 그런데 이때 삭도길을 따라 달리기를 하던 체육복을 입은 사나이가 달려와 바퀴 밑에 모래를 뿌려주는 것이었어. 이리하여 자동차는 헛돌이를 이겨내고 무사히 령을 넘을수 있었어.

그때 나는 얼마나 고마웠던지 당장 뛰어내려 청년에게 사례하고싶었어. 청년의 기름한 얼굴은 땀이 철철 흐르고 김이 문문 났어. 이마가 두드러지고 턱이 건뚫 들린것이 첫 보기도 무뚝뚝하고 무섭게 보여 나는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단다. 청년은 도리어 제쪽에서 신세를 진것처럼 어색해하더니 말없이 뛰어가버렸어. 우린 서운하게 헤어졌어.

하지만 왜 그런지 그날부터 청년의 얼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더구나. 까닭없이 만나고싶었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싶었어.

꽃피는 봄날이었어.

자동차를 몰고가는 령길에서 바로 그 청년이 기다릴줄이야. 그는 커다란 배낭을 지고 서있었어. 나는 반가와서 얼른 차를 세웠어.

청년이 진 배낭엔 린정광이 담겨져있었어. 삭도길에 흘러진 정광을 한점한점 긁어모았대. 그것을 역에 실어다줄것을 부탁했어.

그날 우리는 화물역까지 같이 타고가면서 통성을 했단다. 알고보니 그는 린회석광산 삭도선로관리원이었어. 이름은 오현섭이구, 새벽마다 삭도길을 따라 역까지 달려가고 달려오면서 삭도상태를 살핀다고 하더구나. 삭도탑이 기울어질 위험은 없는가? 활차들이 제대로 돌아가며 삭도줄이 벗겨질 요소는 없는가? 그의 하루일은 이처럼 아침달리기로부터 시작되었어. 그에게 있어서 삭도는 자기 몸의 한부분처럼 귀중하게 여겨진대. 그 동문 말은 일에 성실할뿐만아니라 마라손에서 새기록을 세울 목표 밑에 새벽마다 달리기를 하는것이었어. 그의 깨끗한 량심과 높은 목표와 지향 앞에 나는 감동되었어.》

어느덧 자동차길이 삭도길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청년이 뛰어오는 모습이 저 멀리 어렴풋이 보였다.

춘선이 입을 비죽거리며 밋지 않게 빈정거렸다. 《그러니 이제는 서로의 사이가 달콤하게... 무리익었겠군요?》

옥경은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저었다.

《아직은... 그러나 그 동무에게 마음이 끌리는것은 사실이야.

이른 새벽 자동차를 몰고 반달령기슭에 들어서면 현섭동문 기다렸던듯이 삭도길을 따라 나란히

달리곤했어. 그때면 내 가슴은 설레이고 기쁨이 차 오르곤했어. 그렇게 만난 날은 하루종일 마음이 즐겁고 새힘이 넘쳤어.

현섭동무의 모습이 때없이 그리웠고 새벽이 기다려지곤 했어. 그래 새벽운행만 하고싶었어. 아마도 그때부터 새벽운행을 꼭꼭 하게 됐는지도 몰라.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새벽마다 먼빛으로 만나곤하지. 내가 나팔소리를 울리면 그는 손을 흔들어주곤했어. 그것이 약속처럼 되었고 습관처럼 굳어졌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는 변함없이 달렸어. 어찌다 그가 보이지 않는 날이면 허전하고 서운하기까지 했어. 그는 벌써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내 심장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어.》

청년이 뛰어가는 모습이 가까이에서 보였다.

춘선은 시샘이라도 하듯 종알거렸다.

《뽕두 딸겉 님두 볼겉... 그래, 언니가 나한테 하자는 소리가 뭐예요?》

옥경은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털어놓았다.

《난 혁신자로서 방송야회에 가게 되었어. 내가 계획을 앞당겨 끝낼수 있었다면 모름지기 그것은 현섭동무의 말없는 고무가 있었기때문일거야.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되니 어딘가 마음이 허전해. 내가 훌쩍 가버리고 새벽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동문 서운해할거야. 말없이 삭도길을 달리는 사람, 누가 보건말건 깨끗한 량심으로 삭로를 지켜가는 사람, 어떻게든 기록을 세워보겠다고 땀을 흘리는 숨은 노력이! 정말이지 그에게 새힘을 못줄망정 실망을 주고싶지는 않아. 그래서 난 춘선이가 그를 줌도와주었으면 해, 일찍 나와서 새벽운행을 하면서 경적을 울려-달라는거야.》

갑자기 춘선이 까르르 웃어댔다.

《그래서 오늘아침 나더러 일찍 떠나자고 했군요. 아이참, 우습네. 언니, 댜에도 대신해주는 법이 있어요? 나더러 〈향단〉 이가 되라는거죠?》

춘선은 여전히 깔깔거렸다. 옥경은 더더욱 얼굴이 빨개져 어쩔줄 몰라했다.

《그런게 아니야, 춘선이, 꼭 좀 부탁하자꾸나.》

춘선은 자못 재미있는듯 해죽거리며 나팔을 울려댔다. 그러자 삭도길을 뛰어가던 청년이 마주 손을 흔들어댄다.

춘선은 《이렇게 하면 되지요?》 하면서 또 경적을 울렸다. 이번에도 청년이 화답을 했다.

옥경은 끌리려드는 춘선이 앞미워나서 허리를 꼬집었다. 춘선은 간지럽다고 눈물을 짜며 웃었다. 한바탕 웃고난 춘선은 정색하여 말하였다.

《언니, 걱정 말고 방송야회에서 토론이나 잘하세요. 그 청년이 새벽마다 뛰는지 안뛰는지는 내가 매일매일 전보를 쳐줄게요. 이젠 마음이 놓여요?》

옥경은 파스한것을 느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어느새 해가 뜨고 붉게 물든 하늘로 새벽가 꽃보라처럼 날아올랐다. 선들거리는 바람에 숲이 설레이고 나무잎새들은 오색령통한 이슬들을 구슬처럼

럼 뿌려던졌다. 한껏 무르익은 산열매 향기가 안개와 어우러져 늘실거리며 산골짜기로 흘러내린다.

노을이 곱게 물드는 평마루를 향해 자동차가 질주하고 청년이 달려올라갔다...

하옥경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기자는 알만하다는 듯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니 춘선이 옥경동무와의 약속을 지켜 전보를 쳤군요.》

옥경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동안 수첩에 무엇인가 적고난 기자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능청스럽게 물었다.

《서로를 위하고 돕는 사랑의 마음이 오늘의 혁신을 낳았다는건데... 서로 고백을 했어요?》

하옥경은 귀뿌리가 빨개지며 아니라고 도리머리를 저었다. 기자는 순결무구하고 청신하고 상쾌한 꽃송이를 바라보는 듯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듣고보니 참 재미난 이야기예요.》

오늘 새벽에도 춘선동문 옥경동무인 것처럼 자동차를 몰고 반달령을 달렸겠지요?》

기자는 정성껏 닦은 안경을 끼고 다시금 전보를 읽었다.

《...오늘 새벽에도 자동차나팔을 울렸음, 그 사람이 손을 흔들어 바래줌. 래일도 모레도 우리는...》

갑자기 기자는 늙은이답지 않게 허리를 젖히고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정말 웃기는구만요, 춘선동무는 자동차를 몰고 오현섭동무는 옥경동무인가 해서 손을 흔들겠지요. 래일도, 모레도... 동무가 돌아갈 때까지...》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기자는 흡족하여 웃는데 옥경은 살래살래 머리를 젖는다.

《선생님, 그렇게 아닙니다.》

하옥경은 코등에 내뿜은 좁쌀알같은 땀을 훔친 다음 기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다.

《선생님은 어제저녁 텔레비존을 보셨습니까? 인민체육대회 경기장면을 말입니다.》

기자는 의혹을 띠우며 선선히 대답했다.

《그래요. 봤어요. 탁구랑, 배구랑...》

《마라손경기도 보았습니까?》

《봤어요, 제일 앞에서 달리던 선수가 눈에 선해요. 키가 크고 턱이 돌리고... 아주 역세게 생겼더군요. 평남도의 누구라든지? 오 뭐랬는데?》

그 순간 기자의 입은 딱 얼어붙었다. 다음 놀라움과 함께 탄성이 새어나왔다.

《아니, 그럼 어제 1등을 한 선수가 그 오현섭동무? ...》

옥경은 수첩에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꿈인가 생각되어 화면에 바투 다가가 봤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도 있습니까?》

《그러니 오현섭동무와 하옥경동무가 다같이 평양에 왔군요. 희한한 일이에요, 한사람은 방송야회에 참가하고, 한사람은 1등을 하고... 정말 재미있는 글감이 될것 같아요.》

두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약속이나 한 듯 금붕어어항을 바라보았다. 이어 기자의 눈에는 무슨 신기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흥분이 타올랐고 호기심에 잠겨 머리를 기웃거렸다. 한동안 말이 없던 기자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오현섭동무는 여기에 와있는데 춘선동문 누구한테 손을 흔든다는건가요?》

잠간 동안을 두고 하옥경이 말했다.

《그 동무는 경기에 떠날 때... 다른 동무에게 아침달리기를 부탁했을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는 알만하다는 듯 머리를 끄덕였다. 십분 그럴만하다. 옥경이 춘선에게 부탁하듯 오현섭이도 누구에게나 부탁했을것이다.

《그러니 반달령에서는 춘선동무와 가짜 오현섭동무가 새벽달리기를 하겠군요?》

하옥경은 비로소 자기가 목적인 말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지어졌음을 느꼈다. 그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오현섭동무는 저를 생각해서 다른 동무에게 〈방자〉역을 맡겼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어서 그러는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춘선동무와 〈방자〉동무에 대하여 글을 써주십시오. 우리가 평양에서 꽃다발을 받을 때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새벽길을 달립니다.》

기자는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는 삭도길을 따라 땀흘리며 뛰여가는 청년(〈방자〉)의 얼굴이 환상적으로 떠올랐고 춘선의 모습도 되새겨졌다. 남을 위하고 남을 도와주는데서 행복을 찾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불보다 뜨겁고 꽃보다 아름답고 사랑보다도 훨씬 값있고 고상한것이다. 기자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는듯싶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간직되어있을까? 말없이 성실한 깨끗한 량심의 정화가 샘처럼 차있을것이다. 이런 정신으로 살며 일할 때 무슨 기적인들 일어나지 않으랴.

기자는 수첩장을 새로 펼치며 말했다.

《그러니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는 셈이구만요. 좀 천천히 이야기해보자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지식인들은 당의 혁명전사로서의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창조적 재능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높은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

-조선지식인대회에 참가하고-

대회는 끝나지 않았다 !

흔히 벅찬 흥분과 걱정이 솟구쳐오를 때 사람들은 가슴을 헤쳐 소리높이 웨치고싶어진다. 혹은 목메어 울기도 한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 있다. 그러나 분출하는 열정의 그 한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보답할 충성과 의리에 대하여 뜨겁게 생각을 더듬군한다.

그렇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마련해주신 영광의 대회, 조선지식인대회에 참가했을 때 우리모두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다. 그날의 환희와 감격, 기쁨과 행복을 다 표현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무게로도 알수 없고 그 어떤 체적과 용적으로도 잴수 없는 심장의 박동이며 뜨거움이다.

하기에 나는 편집부에서 조선지식인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느낌과 인상을 써달라고 부탁해왔을 때 먼저 대회장의 넓은 문으로 들어서던 그 순간을 생각했다.

그때... 나는 생각했었다. 나는 이 영광의 대회에 무엇을 안고왔는가?... 내가 써낸 책들이 과연 우리 당의 위업을 받들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성세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고임돌이 되고있는가 ? ...

이러한 생각을 품고 대회장으로 들어서던 그때의 나는 보통키에 별로 눈에 띄는 점도 없는 수수한 보통 지식인, 한 작가였다.

그러나 얼마후 모든것이 변모되었다. 꿈결같이 흘러간 감격의 순간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받아안은 당중앙위원회축하문, 보고, 가슴터질듯 부풀어오르던 행복과 영예, 환호성, 눈물, 열띤 토론과 맹세문... 드디어 대회는 끝나고 우리는 대회장을 나서게 되었다. 그때 나는 별안간 깨달았다. 나는 거인이 되어 대회장을 나서고있었다. 키도 크고 심장도 커졌다. 어깨에 지워진 책임감과 사명감은 몇배로 무거워지고 늘어났어도 나는 넓어진 가슴을 쭉 펴고 큰걸음을 내딛고있었다. 벌써 머리속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형상하는 총서 《불멸의 향도》 중의 새 장편소설의 장과 절들이 보다 생동하고 힘찬 화폭으로 펼쳐지고있었으며 그것을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완성해갈 충성의 결의가 불길처럼 타고있었다.

어찌 이것이 나 한사람만의 생각이었으랴. 진정 우리모두의 가슴속에서 거인의 큰 심장이 뛰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조선지식인의 값높은 영예와 금지, 드센 담력과 불굴의 의지가 고동치고있었다.

하여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그리고 믿는다. 조선지식인대회는 끝나지 않았다. 영광의 그 대회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다지던 충성의 맹세는 오늘도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지식인, 160 만 조선지식인들 모두의 심장의 박동소리로 힘차게 이어지고있다.

정기종

조국에 대한 심오한 형상

리효성

조국을 노래하는 시작품에서 철학적깊이를 보장하여 심오하게 형상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에 술적수준을 비할바없이 제고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우월성을 뜻깊게 보여주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우리는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최근에 형상한 일부 가요들과 문학신문, 잡지들에 발표된 적지 않은 작품들에서 조국에 대한 심오하고도 뜻깊은 사상정서적감흥을 받아안게 되며 철학적사색에 잠기게 되군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의 본질과 인간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반영한 가사는 사상이 깊고 정서가 넘쳐흘러서 들을수록 깊은 인상을 남겨준다.》

조국을 심오하게 형상한 작품들이 문학의 높은 지성도와 생활의 사상정서적감흥으로 독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젖게 하는것은 작품들에 반영된 조국에 대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정서를 깊이있게 반영한 심오한 시형상수준과 관련된다.

가사 《기러기때 날으네》(최준경), 시 《우리 집》(오영재 《문학신문》 1992년 제5호)은 모두 조국을 시적대상으로 하여 조국에 대한 우리 시대인간들의 뜨거운 사상감정과 생활정서를 섬세하게 형상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체험이 보다 뜨겁고 절절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우리 시대인간들의 사상감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한것이다.

시창작에서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체험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뜻깊게 노래하는것은 서정적주인공-시인자신의 직접적인 주정을 통하여 작품의 사상정서적내용을 깊이있게 밝혀낼것을 요구하는 시형상의 특성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봄노을 피는 저 하늘가에

기럭기럭기 줄지어 나네
서로 다정히 찾고 부르며
나의 마음도 싣고서 가네
(후렴)

보고싶은 고향에 가고싶은 조국에

아, 내 마음 기럭기 끼르륵 끼르륵 가네

눈을 감아도 그리운 고향
푸른 언덕이 어리어오네
타향만리길 바래워주던
나의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후렴)

해빛 따사론 보금자리로
기럭기럭기 찾아서 가네
조국의 노래 함께 부르며
정든 그 품에 나도 안기리
(후렴)

보는바와 같이 작품은 봄노을 피는 저 하늘가에 기러기떼가 나는 뜻깊은 계기속에 낮설은 타향의 하늘아래서 고향을 그리고 조국에 가고싶은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을 깊이있고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가사가 조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표상과 뜻깊은 정서적체험으로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깊은 감회와 뜨거움에 젖게 하는것은 조국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을 각별하게 뜨겁고 깊이있게 파고들어 노래한것과 관련된다.

시점문제를 새롭게 탐구하고 구현하는것, 이것은 시창작에서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뜻깊게 보여주기 위한 중요요인이다.

가사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여기서는 시적대상-조국을 행복 한 오늘의 조국의 품에 안겨사는 서정적주인공의 시점에서 노래한것이 아니라 정든 고향과 조국을 멀리 떠나 낮설은 이국의 하늘아래서 그리는 시점에서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절절하고 뜨겁게 노래하였다.

조국의 품에 안겨살 때엔 푸른 언덕은 푸른 언덕으로, 고향의 하늘은 고향의 하늘로 그냥 보이

고 안겨왔건만 어찌하여 조국의 품을 떠나 멀리서 그럴 때엔 그 모든것이 꿈에도 보고싶고 잠결에도 달려가고싶은것으로 안겨오는것인가.

어찌하여 조국의 품에 안겨살 때엔 그 모든것이 평범하고 수수한 《보통》의것으로 안겨왔건만 정든 그 품을 떠나 멀리서 그러볼 때엔 그 모든것이 몸의 한 부분처럼 뗄수 없이 한없이 귀중한것으로 안겨오는것인가.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잔때를 굳혀준 조국과 고향의 귀중함을 정든 그 품에 안겨있을 때는 다 알수 없다. 혹 알수는 있어도 가슴에 사무치도록 깊이 새기고 헤아리지는 못한다.

우리에게 조국이 없고 고향을 빼앗겼던 세월, 그때보다 더 조국의 귀중함과 고향의 소중함을 가슴에 사무치게 새긴적 있었던가.

조국을 멀리 떠나 낮설은 타향의 하늘아래서 그러볼 때보다 더 조국과 고향의 귀중함을 뜨겁고 절절하게 느끼는적 있던가.

작품은 조국을 떠나 멀리서 그리는 시점에서 서정적주인공의 깊은 정서적체험을 파고들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주시는 사회주의 내 나라가 제일이며 그래서 해빛 따사론 보금자리로 기러기떼가 날아가는 것처럼 조국의 노래 함께 부르며 정든 그 품에 달려가 안기고싶다는 사상감정을 뜻깊게 노래하였다.

이 《떠나》서 그리는 시점에서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체험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노래한것으로 하여 작품은 높은 정서적공감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짹 뜰어주고 뜨겁게 울려주고있으며 해와 별이 빛나는 사회주의 내 나라를 그리고 정든 그 품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생활의 참된 진리를 심오하게 형상하였다.

최근 조국을 심오하게 형상한 작품들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시의 사상정서적내용에 맞게 형

상수법들을 다양하고 능숙하게 구사함으로써 시의 사상감정을 보다 뜻깊게 하고 시적대상의 본질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정서깊게 노래한것이다.

시창작에서 대조, 대비의 수법은 시의 음률적특성에 맞게 문장을 구조적으로 잘 짜이게 할뿐 아니라 시적대상의 본질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노래하는데서 효과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시 《우리 집》은 비교적 짧은 시형식에 대조, 대비를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이 세상 모진 광풍이 몰아쳐와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위업의 한길을 가는 하나의 대가정,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현실을 심오하게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대조, 대비의 수법은 《박》,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리익을 위주로 하는것이 사회의 기본풍조로 되고 인간의 초보적인 인권과 자유마저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현대제국주의 사회와 또 서방세력앞에 무릎을 꿇고 성스런 사회주의기치를 저버리고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는 나라들에 대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어 사회주의위업의 한길을 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이 얼마나 밝고 행복한가에 대하여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밖은
쭙고 눈보라가 세차도
우리 집은 봄이여라
해빛 넘치는 봄날이여라

바람소리 아츠러이
창밖에 울리니
내 집이 더 따사로워라
이 집이 우리에게 없다면
남들처럼 눈 묻힌 언땅우를
향방없이 헤매이고있으리
...

밖이 사납고 거치를수록
친형제의 우애로 넘치는
부드러운 눈빛들을 보며
정다운 목소리들을 들으며
우리 집이 제일이라는 생각

시에서는 행복한 오늘의 우리 생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박》과 《우리 집》과의 대조, 대비를 통해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박》은 쭙고 눈보라가 세차도 언제나 해빛 넘치는 봄날에 사는 《우리 집》.

《박》이 사납고 거치를수록 언제나 친형제의 우애로 넘치며 세상에 제일인 《우리 집》.

세상은 어지럽고 우리 혁명이 나아가는 길에 모진 시련의 폭풍이 몰아쳐와도 언제나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한길을 끝까지 이어가는것이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우리 인민이 언제나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한길을 끝까지 이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셨기때문이며 온 나라가 일심단결의 대가정,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었기때문이다.

작품은 시종일관 대조, 대비의 수법을 통해 우리 조국의 참현실이 나타내고있는 행복과 기쁨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뜻깊게 형상하여 보여주고있으며 작품이 담고있는 사상정서적내용의 핵을 심오하게 일반화하고있다.

그이의 사상이 기둥이 되고
그이의 사랑이 지붕이 되었기에
세계의 정의와 량심이

그이 품을 찾아와
우리와 한식솔이 된
우리 집은 **김정일**동지의 집

이처럼 작품은 항시적으로 개인의 리익을 위주로 하는 어지러운 자본주의 세상과 행복한 우리 조국의 현실을 대조, 대비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다 뜨겁게 느끼게 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천만이 모여 일심단결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본질적근원을 심오하게 밝혀내고있다,

다양한 형상수법의 능숙한 구사를 통해 조국을 심오하게 형상한 작품들에서는 또한 생활의 본질을 구현한 뜻깊은 시적세부들을 탐구하고 형상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정서깊게 노래하였다.

가사 《기러기때 날으네》에서 《푸른 언덕》, 《타향만리길 바래줘주던 나의 어머니》, 《해빛따사론 보급자리》, 시 《우리 집》에서 《친형제의 우애로 넘치는 부드러운 눈빛》, 《창가에 웃고있는 꽃》 등 시적세부들은 시의 사상감정을 뜨겁게 하고 생활의 본질을 정서깊게 밝혀내는 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이 모든 시적세부들은 가사의 형태적특성과 시의 사상정서적내용에 맞게 형상의 함축성과 간결성을 담보하며 생활의 진실성을 보장하여 심오한 시형상을 창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처럼 최근 조국을 심오하게 형상한 작품들에서는 다양한 형상수법의 능숙한 구사를 통해 시의 사상감정을 뜨겁게 할뿐 아니라 시적대상의 본질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노래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폭넓고 뜻깊게 하고있다.

고향을 생각할 때면 외 1 편

김승남

사람들 고향에 대해 말할 때면
나는 가슴을 울렁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곤 한다
내 고향을 두고...

그러면 눈앞에 떠오른다
군복폼에 안겨가던 오솔길너머
애육원의 햇빛밝은 트랙이
학원의 아담한 침실이

귀전에는 들려온다
나를 요람에 잠재우던
애육원 부모의 그 자장가소리
나를 친절히 배워주던
학원선생님의 그 다정한 음성이

아 내 어찌 알수 있었으랴
폭격에 불타버린
고향이 어덴지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리운 정 모르고
부러운것 없이
내가 자란 애육원이
나의 요람이었다는것을

자기이상 없는듯 무서운것 모
르고
마음을 쪽 찢고 활개치며
담을 키워 자래워준 학원이
나의 집-당의 품이었다는것을

그래서 탄전의 동무들
휴가차로 때로는
잔치상을 받으려
고향으로 떠날 때도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나를 보살피는 그 품이 곁에 있어

사람마다 제 고향을 자랑할 때도

젖어드는 눈길 들어 송엄하게 우
러르며
꿈결에도 달려가는
마음의 고향집이 나에겐 있었나니

아, 태를 묻은 고장이던가
부모형제 다 있는 품이던가
나에게서 고향은
날아준 정도 못다할
한없는 사랑과 향기로
나를 안아 키워준 그 품이 아니던가

고향과 부모는 떠나살수 있어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는것
나의 피도 숨결도 다 안겨준

어머니당의 품! 그것이 진정
내 삶의 고향이 아니었던가

이 좋은 사람들을

내 삶이 시작되던 애육원시절
내 불에 살짝 입맞춰주며
애뜻이 정을 주던
예쁘게 생긴 애젊은 녀인을
나는 어머니라 불렀다

추억도 많은 초등학교시절
말수 적고 엄해보여도
꿈을 키워주며
친자식처럼 타일러주던 담임선
생님을
나는 아버지라 하였다

아, 순진한 안해를 맞아들이던
날

온 탄전이 경사난듯 축복해주던
막장의 고마운 사람들을
형님 누나라 목메여 부르며
나는 생각했거니
나에겐 얼마나 혈육들이 많은가

기억에 새겨못든 부모의 얼굴도
그 사람들이 대신해주었으니
그모두가 한식술처럼 살뜰하여라

아, 피줄을 타고 나진 않았어도
피줄보다 더한 사랑과 의리로
인연을 맺고 정분을 두터이하며
온 나라가 한가정되여 살아가거니

이런 사람들이기에
앞모보는 영예군인에게
아름다운 처녀가 나비처럼 찾아
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사품치는 강물에도 주저없이 뛰
여들어
제 한목숨도 선뜻 내대는것이구나

그래서 어딜 가도 그 누구를 만
나도
한가마밥 나누던 형제들만 같고
네일내일 따로없이 우리라는 한
집단속에
서로 도와 이끌어가는 마음들이
여서
내 때없이 흥금을 터놓고싶구나
피와 살도 아끼고싶지 않구나

아 수령님과 당을 어버이로 받들어
지극한 효성을 다해가자고
사람마다 피줄로 인연맺고
사람마다 살붙이로 정을 품고 사는
내 조국은 사회주의꽃으로 활짝 핀
나라

수령님과 당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은 수령님과 당만 믿고 따르며
운명도 미래도 다 의탁하고 사는
그 하나의 가풍만을 아는
일심단결로 화목한 이 대가정에서
나는 그 몇번째 아들로 충성하는
것이라

수령님 모시여 위대하고
당을 받들어 존엄있는 민족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은 이 좋은
사람들을
친혈육의 정을 담아 한집안식구로
섬기며
나라의 만아들로 효성을 다해가는
이 행복 이 기쁨은 끝없구나

이대로 더는 못살아

백은팔

1

다도해기슭에 자리잡은 그리 크지 않은 읍거리에서 해변가를 따라 한 20여리 나가면 향초리라는 작은 마을이 나진다.

굴곡이 심한 남해가의 들쭉날쭉한 반도들에는 어디나 다 그리하듯 향초리 뒤편산에도 잎떨어진 감나무들이 엉성하게 널려있었다.

누르끼레한 감알들을 몇알씩 매달고 서있는 메마른 감나무들은 바다쪽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배인 찬바람이 싫은지 초라한 가지를 애처롭게 흔들며 오돌오돌 떨고있다.

마을을 끼고 모래불까지 휘우듬히 뻗어간 야산기슭에는 마가울에만 피는 살살이꽃과 속꽃들이 점점이 널려있었다. 바로 그 한쪽 가녁에 봉분 하나가 덩그러니 솟아있다. 새노란 잔디를 뒤집어쓴 봉분 곁에는 한문으로 《고 송필연지묘》라고 쓴 비석이 세워져있다.

지금 그 비석앞에는 하얗게 늙은 할머니가 관두 위에 제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제 지낼념은 하지 않고 언덕아래만 줄곧 내려다보고있다.

추석날은 일이 있어 가지 못했지만 3년제엔 어떻게 하나 짬을 내어 아버지묘소를 찾겠노라고 제 먼저 기별을 보낸 맏이가 서쪽하늘가에 노을빛이 물들도록 나타나지를 않았다.

맏아들 송영수는 서울시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일하고있다.

광주시 양림동에서 사는 셋째 영식은 지난 추석 때 며느리와 함께 다녀가면서 3년제엔 오지 못할 것 같다고 미리 약조했으므로 늙은이는 맏이 오기만 기다리고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빠지게 살피도 키가 성큼한 맏이의 모습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권성녀는 서운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아들을 욕하거나 나무라지도 않았다.

그는 늘 시간이 모자라 찢찢매는 맏아들이 홀로 사는 늙은 에미를 자주 찾아뵙지 않는다고 언제 한번 타낸적이 없었으며 추석날에 못온것 역시 효성이 부족한탓이라고 노엽게 생각지 않았다. 그만치 그는 사람됨이 준수한 맏아들에게 어머니로서 충분한 관용을 베풀어줄줄 알았다.

비록 민심이 뒤숭숭한 사회일망정 대학교수가 되어 아들딸 거느리고 남보기 민망스럽지 않게 살아가는것만도 다행이었고 가문의 자랑이었다.

《또 바빠서 못오는게지.》

애타는 기다림의 폭발인듯 가느다란 한숨같은, 원망 비슷한 말소리가 어머니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가슴속 한쪽 귀퉁이에 불길한 예감이 깃들기도 했다.

림수경학생의 평양축전참가와 문목사의 방북이 후 더욱 높아진 통일기운이 판문점에서 열린 8.15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한층 고조된가운데 청년학생들과 민주세력의 투쟁기세가 몇배로 늘어나고 당국의 칼부림이 보다 우심해진 상황에서 리념서적을 탐독하며 이북사회를 찬양해나선 젊은 학도들의 의로운 행동을 남몰래 뒤받침해주고있는 아들이 무사하리라고 누구도 장담할수가 없는것이다.

변거로운 생각에 움하여 아들이 못오는 까닭을 여러모로 따져보던 권성녀는 어수선해진 심정을 애써 털어버리고 상우에 올려놓은 술잔을 들어 남편이 누워있는 잔디위에 주르르 쏟아부었다.

늦가을의 짧은 해는 서편으로 누워누워 기울어지고 하늘을 물들었던 불그스름한 색깔도 이제는 퍼그나 빛을 잃었다. 언덕으로 기여오르는 쌀쌀한 바람이 옷깃밑으로 자꾸만 스며든다.

《에그, 쫓쫓.》

수평선머리에서 숨박꼭질을 하는 해를 녀없이 바라보며 허를 차던 권성녀는 그 마지막 한쪽 귀퉁이마저 물속으로 잦아들자 다래끼안에 제물을 주섬 주섬 거두어넣었다. 그리고는 두어걸음 뒤로 물러앉아 습관적으로 화장석묘비를 쓸어만지었다.

《묘주.》

그의 손끝에 맨먼저 마쳐온것은 맏아들 송영수의 이름이었다. 정으로 쪼아새긴 아들의 이름을 여위고 메마른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획을 따라 느릿느릿 움직이던 늙은이의 손은 왼쪽으로 옮겨지다가 우뚝 멈춰서고말았다. 맏아들 다음에 새겨져있어야 할 둘째의 이름은 여전히 비어있었다. 그는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눈을 스르르 감아버렸다. 그렇게 눈을 감고 기척없이 앉아있던 권성녀는 한참후에야 세번째 이름을 더듬었다.

《송영식》

셋째의 이름은 맏아들의 이름과 똑같이 뚜렷하게 새겨져있었다. 권성녀는 두손을 한데 모으고 못만질것이라도 만지듯 가운데부분을 다시 조심스럽게 쓸어만지었다. 그러나 차디찬 돌만이 얇은 손바닥을 싸늘하게 자극할뿐 아무것도 걸리는것이 없었

다. 묘비를 세울 때 둘째아들 영진의 이름을 새겨넣지 않았던 것이다.

권성녀는 심장이 금시 터져나가는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것은 가슴속 깊은곳에 남몰래 묻어두었던 모성의 본능적인 발현에서 오는 아픔이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사랑을 절반도 주지 못한채 떠나보낸후로 마흔두줄의 년륜을 감으며 흘러간 무정한 세월의 어느 한순간도 마음속에서 지워본적이 없는 둘째였다.

늙은이는 저혼자 입속으로 중얼거리었다.

《원 자식두 인차 오겠다며 떠난게 언제라구...》

권성녀는 실성한 노인처럼 허공에다 눈을 준채 어린 시절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그 손으로 화강석묘비를 자꾸 쓰다듬으며 그 어딘가를 향방없이 바라보는것이였다. 그의 생기있는 두눈엔 어느덧 진한 액체가 내뿜으며 번들거렸다.

헤어져 40 여년, 생사여부조차 알길 없는 아들을 기다려 지금껏 간을 말리워온탓인지 인정이 물러 눈물이 헤프다고 남편한테 늘 지청구를 듣던 권성녀는 이제 눈물도 고갈이 난것 같다.

허나 곁에 있는 자식보다 슬하에 없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심정일진대 아들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 저 하늘끝에 닿은 권성녀의 가슴속으로는 피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영진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너인의 애절한 목소리는 모래볼을 활아내리는 파도소리가 단번에 삼켜 버리고만다.

어스름이 깃들도록 일어설념을 잃고 망연히 앉아 《어머니, 곧 돌아올테니 왔지 말고 잘 계세요.》 하고 손을 흔들며 매생이를 타고 떠나던 아들의 모습을 꿈속에서처럼 그러보는 권성녀의 눈앞으로 어제날의 그 선창기슭이 어렴풋한 추억속에 서서히 떠올랐다.

국민학교를 최우수생으로 졸업한 영진은 중학교에 진학할수가 없었다. 광주에 올라가 사립전문에 다니는 만아들 영수의 학비도 잇대기가 아름찬 형편에서 둘째까지 공부시킨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영진은 하는수 없이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하였고 이태후에는 선주밑에서 배를 부리며 고기잡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버지를 닮아 뼈대가 굵은 영진은 공부 못하는 분풀이를 하느라 그랬는지 굴과 미역파는 일을 세판게 해뒀다. 그는 비록 어린 몸이지만 힘겨운 바다일을 용케 이겨나갔다. 머리가 남달리 좋았던 그는 앞날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나마 가슴에 품고 그 무엇인가를 안타까이 갈망하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남조선사회의 어지러운 정치풍토는 나 어린 소년의 꿈을 씨앗으로 받아 싹틔워주지 않았다. 그저 팔자에 맡기고 운명에 순종하는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전쟁이 터졌다.

6. 25 동란은 영진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인민군대가 진해, 마산으로 포위망을 좁히며 질풍같이 달려나왔다.

영진은 용약 의용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하였다.

권성녀는 처음 아들의 이 돌발적인 결단앞에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나 아들의 성장을 미처 몰랐던 그는 영진의 고집을 더는 꺾을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곧 길떠날 차비를 서둘러서 아들의 작은 어깨우에 크지 않은 피나리보짐을 메워주었다. 뚝강냉이, 조개살, 가마에 담은 빨간 갈게 등이 들어있는 보짐속에는 흰실과 까만실을 탄탄하게 돌려감은 대나무싹토리도 있었다.

어머니가 맡아준 칼국수를 점심으로 먹고 사립문을 나선 아들을 따라 갈숲 우거진 선창까지 따라나간 권성녀는 쪽배를 타고 떠나는 영진을 오래오래 손 흔들어 바래주었다.

《애야, 몸성히 잘 다녀오거라.》

기약없는 먼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할말은 수없이 많고많아도 어머니는 이 한마디만을 줄곧 외었다. ...

그렇게 헤어진것이 하루가 백날로 바뀌고 1 년, 10 년을 뛰어넘어 어언 40 여년이 흘러갔다.

권성녀는 소식없는 자식을 한정없이 기다리는것이 부질없는짓이라고 몇번이고 단념했다가도 혹시나 하는 미련을 아예 버릴수가 없어 한숨속에 아들을 그리며 여직껏 살아오고있다. 그럴 때면 죽은 령감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남편의 유언을 따라 비석을 세울 때 두번째 자리를 비워두지만 앉았어도 오늘처럼 가슴 찢어지는 일은 없을것만 같았다.

시골국민학교에서 50 년나마 교탁에 서있는 송필연은 분필가루를 너무 많이 먹은탓인지 폐가 몹시 나빠졌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그는 종시 견디어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순간 머리맡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돌아보던 송필연은 한자리가 비어있자 《영진아, 너 어딜 갔게 지금두 안나타나느냐.》 하며 둘째의 이름을 피라게 불렀다.

그러나 초불마냥 꺼져가는 그의 흐리멍덩한 눈동자에는 아무것도 비쳐드는것이 없었다.

송필연은 여위고 메마른 긴팔을 휘저어 안해의 손목을 끌어당기였다.

《여보, 내가 죽은 다음 나를 영진이 그애가 내내 올라가 놀군하던 참대밭 뒤둔덕에 묻어주요.》

미군의 구두발에 밟혀 신음하는 남녘땅에서 나라 찾는 성전에 펼쳐나선 의로운 아들딸들속에 제 피줄을 타고난 자식도 있다고 언제나 긍지롭게 여겨온 송필연은 그의 장한 모습을 보지는 못할망정 소식조차 모르고 가는것이 한스러워 인츰 눈을 감지 못하는것이였다.

림종을 앞둔 이 시각 별스레 말이 많아진듯한 송필연은 피기없는 하얀 허를 휘둘러 까풀이 앉은 파랗한 입술을 감빨았다.

《그애가 전장에서 죽지 않았으면 꼭 북으로 갔을 수 있으니 묘비에 둘째의 칸을 남겨두었다가 살아있다는 기별이 오면 곧 새겨넣도록 하오.》

송필연은 속삭이듯 이 말을 가까스로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을 훑어내리는 령감의 그 마지막 말은 해가 가면갈수록 권성녀의 머리속에 못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다.

권성녀가 아들따라 서울이나 광주로 가지 않고 고향에 눌러사는것도 남편의 그 부탁을 버릴수가 없어서였다. 그러나 남편의 허망한 유언은 남모르는 한숨과 눈물속에 살아가는 늙은 어머니에게 뼈를 깎는 아픔과 실망만 덧쌓아줄뿐 아무런 희망도 미련도 가져다주는것이 없었다.

혹시 북쪽으로 갔을수 있다는 령감의 예측이 먼바로 맞혔다 한들 나라의 허리가 끊어지고 북남이 서로 오가지도 못하는 격폐된 상태에서 무슨 수로 아들의 소식을 알아본단 말인가?

갈매기 한마리가 어미를 찾는지 선창우를 맴돌며 뻘뻘 울었다. 그 구슬픈 울음소리는 가뜩이나 심란한 권성녀의 마음을 한층 더 외롭고 쓸쓸하게 했다. 오겠하던 말이가 곁에 없으니 고독감은 몇 배로 더해졌다.

권성녀는 날이 어둑어둑해서야 더져오르는 설분을 강잉히 억누르고 맥없이 허리를 폈다. 그는 손더듬으로 제물이 들어있는 다래끼를 찾아끼고 언덕길을 타박타박 걸어내려갔다.

동쪽기슭에 뻘죽이 머리를 쳐든 푸른 달이 늙은이가 걷는 앞길에 뿌연 그림자를 던져주었다.

2

《어머니, 어머니 제세요?》

뒤숭숭한 생각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다가 새벽녘에야 잠간 눈을 붙였던 권성녀는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듣고 얼른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아니, 네가 웬일이냐? 난 이번에도 못오는줄 알았는데 …》

문을 열어제끼고 맨발로 달려나간 권성녀는 만아들 송영수의 두팔을 와락 그러잡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송영수의 얼굴은 먼길에 시달림을 받은 사람같이 않게 헉헉한 기색이었다. 권성녀는 그러한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는것이 무척 기뻐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파목하기만하던 아들의 기분이 좀 들떠있는것 같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자식들을 살피는 어머니들의 눈길은 것처럼 예민한것이였다. 아닌게아니라 지금 송영수는 몹시 흥분되어있었다.

《어머님, 기뻐하십시오.》

송영수는 이 몇해어간에 썩 좁아진 어머니의 체소한 어깨를 정답게 그러안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기뻐하다니, 무슨 일이 있었냐?》

《예,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권성녀는 아들이 떠미는대로 방안에 들어가 아래목에 퍼놓았던 모포를 한엿으로 개어놓았다.

《그래 무슨 일이나?》

《어머님, 영진이가 살아있습니다.》

《너…무슨 소릴… 하나?》

권성녀의 목소리는 들리듯마듯 가늘게 떨렸다.

《글쎄, 나두 처음엔 거짓말갈아 민질 않았뎡습니다. 그러나 이진 사실입니다.》

권성녀는 아들이 하는 말이 너무도 엄청난것이어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하루사이에 슬픔과 희열의 두 극단에서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도 놀라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것은 보통생각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언제부터인가 둘째가 살아있을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단념해버렸던 권성녀에게 있어서는 더구나 그러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여기에 영진이 소식이 다 적혀있습니다.》

권성녀는 송영수가 꺼내놓은 《×××신문》을 덮치듯 가슴앞으로 끌어당겼다.

《2면 상단을 보십시오.》

《북에서 만난 문인들.》

권성녀는 흘러내리는 안경다리를 한손으로 받쳐쥐고 글자 하나하나를 놓칠세라 탐욕스럽게 뜯어보았다. 모자가 무릎을 맞대고 앉은 방안은 물뿌린듯 조용하였다.

권성녀는 길지 않은 기사를 퍼그나 오래 읽었다.

눈이 어두운탓도 있었지만 두번째번 곱씹어읽는라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우리 일행은 평양 광복거리에 있는 송영진네 집을 방문하였다. 이북 문인들과 자리를 같이한 우리는 간격없이 담소하고 축하의 잔을 쥘었다. 시간이 흘러 취기가 동하자 함께 부를수 있는 노래를 생각하다가 남쪽의 국민학교 졸업식에서 부르는 〈졸업가〉를 끄집어냈는데 열여섯살때 북으로 넘어온 송영진은 2절, 3절 가사까지 한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기억해냈다. 졸업식노래는 우리가 떠나올 때까지 남쪽출신 문인들과 가장 즐겁게 여러번 부른 노래들 가운데 하나였다.

2절과 3절은 서로서로 어깨걸고 합창으로 불렀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권성녀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는데 그의 눈가장자리엔 물기가 축축히 내배어있었다.

권성녀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에 앞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날 통신부를 타가지고 돌아온 둘째가 중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대숲 우거진 뒤동산에

저 혼자 올라가 《졸업가》를 쓸쓸하게 부르던 목소리가 아직까지 털어버리지 못하고있는 가슴속재무지에 뜨거운 불타를 떨구는것 같아 그게 더 심장을 아프게 자극했다.

창밖에 시선을 보낸채 망연히 앉아있던 권성녀는 터실터실한 손등으로 다림질하듯 신문지를 쓰듯 문대기고나서 송영수의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이 기사는 누가 쓴거냐?》

《그건 저 지난 8. 15 판문점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해외대표로 참가했던 라틴아메리카민족문학예술협회 김영심씨가 쓴것입니다. 영심씨는 이북에서 우리 영진의 집을 방문하고 미주에 돌아가자 끝이 기사를 써서 〈×××신문〉에 꼭스로 전송했다고 합니다. 그런걸 편집국에 있는 내 친구가 신문에 편집했답니다.》

송영수는 영심씨가 이북에 체류하는 기간 동생네 집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방문시에 감격스러웠던 일들 그리고 기사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친구에게서 들은 구체적인 실상을 어머니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리었다.

《그러니 우리 영진이가 살아있는게 확실하단말이지?》

《어머니두 참, 아직도 믿질 못하시는군요.》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꿈만같아 그런다.》

《아닌게아니라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분단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일이지요.》

《참말 그렇다.》

《어머님, 방금 읽으신 그 다음부분을 마저 읽어보십시오.》

송영수는 신문을 들어 어머니에게 쥐여주었다.

《...사흘에 한번은 어머니의 꿈을 꾸다는 송영진은 별세전까지 시골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송필연씨의 차남(2 남)으로 태어나 다도해기슭 향초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고향을 떠나올 때 어머니가 보짐속에 넣어주었다는 대나무실토리를 꺼내들고 어루만지였다. 안해가 비어있던 실토리에 흰실과 까만실을 정성껏 감았다고 한다. 제손으로 시어머니 동정질을 달아주고싶다는 며느리의 고운마음이 오리오리에 어려있는듯했다.》

송영진은 즉석에서 〈어머니 늙지 마시라〉라는 시 한수를 지어 읊었다.

세월아 가지 말아
통일되어 우리 만날 그때까지
세월이여 네 만약 가야 한다면
어머니에게 가는 세월 나에게 달라

내 어머니 뭇까지 한해에 두살씩 먹으리
어머님 늙지 마시게

즉흥시를 읊고난 그는 늙으신 어머니가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다면 아들을 만나기전엔 눈을 감을수 없었기때문이고 그 기다림이 어머님수명을 연장시켜주었을것이라고 했다. 송영진은 솔직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였다....

권성녀는 종시 참아내지 못하고 눈물을 왈칵 쏟아놓고야말았다. 그는 주름발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념도 않고 흐느끼기만 하였다. 들고있는 신문이 온통 눈물로 얼룩지였다.

《영진아! 》

둘째의 이름을 피타게 부르는 어머니의 애절한 목소리를 듣는 송영수의 가슴도 찢어지는것 같았다.

슬하에 없는 자식을 기다리며 마지막 방울까지 짱그리 쏟아놓아 이제 다 고갈될줄 알았던 눈물이 이날을 위해 가슴속에 소중히 숨배여있다가 맑은 이슬로 변하여 후드드 쏟아지는 어머니의 눈물은 영수의 심장에 피방울처럼 흘러드는것이였다.

《맘껏 우십시오. 이 기쁜날에 왜 울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송영수의 눈에도 굵은 물방울이 맺혔다가 줄줄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기다려온 이 순간이고 얼마나 긴 세월 어머니의 마음속에 틀고앉아 속을 태운 자식이나.

자정이 넘으면 어김없이 사립문을 열고 뒤뜰로 나가 맑은 샘물을 한사발 떠들고 들어와 달빛을 등지고 앉아 아들의 생존과 명복을 빌며 하느님에게 깃듯이 절을 하군했다는 어머니,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아마 영진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머니의 덕일거라고 말들 하지 않았던가.

마음쓰고 기도 드리며 울고온 그 눈물과 정성때문이라고...

팔갑을 래일로 바라보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것도 영진이가 말했듯이 아들을 기다리는 정신력때문일것이다. 하기에 어머니의 눈물은 슬퍼서 흘러는 눈물이 아니라 기뻐서 솟구치는 걱정샘물이었다.

아들의 무릎위에 얼굴을 묻고 한참 울고난 권성녀는 자꾸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제하고 하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런데 영진이가 이북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은 없느냐?》

《그렇지 않아도 내 그 말을 하려던 참입니다.》

송영수는 당국의 검열단속이 심하여 기사에서 삭제한 부분을 어머니에게 자초지종 말씀드렸다.

《영진은 지금 이북 문단에서 맹활약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북 문인들이 받는 표창중에서도 최고상인 〈김일성상〉이라는 높은 표창까지 받았답니다.》

《〈김일성상〉?》

《예.》

《아니 그럼 우리 7 천만민중모두가 높이 숭배하고 추앙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명함으로 된 그런 상을 받았단말이나!》

참으로 놀랍고도 희한한 일이었다.

권성녀는 듣다 처음인 낯선 말들이 아들의 입에서 연방 튀어나오자 머리가 얼떨떨하였다.

《그리고 영진은 고급주택에서 아들딸 거느리고 세상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여기 신문에도 그런 내용을 좀 비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신문을 깨개 보시지 않으셨군요.》

《오나. 눈앞이 자꾸 흐려와서 마지막까지 읽지 못했다. 하긴 봤어도 그 내용을 인츰 깨닫지 못했게다.》

송영수가 기사의 마지막부분을 읽었다.

《...평양을 떠나기전날 송영진의 집에서 환송회가 열렸다. 평양 광복거리의 몇해전에 완공된 고층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들어섰는데 그가 사는 아파트는 특별히 눈에 띄웠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고 탑형식으로 된 다른 대부분의 아파트와는 달리 4~5 층정도의 높이에 립체적으로 아담하게 지어진 아파트였다. 아래층에 응접실, 부엌, 방 한개, 화장실이 달린 목욕탕이 있고 옷층에 방 네개가 있는 널찍한 살림집이었다. 응접실에는 대형랭장고, 텔레비존, 대형록음기가 놓여있고 동양화 한폭이 벽에 늘어져있는 방안은 무척 정갈해보였다. 우리 일행은 평양의 〈호화주택에서 환송회를 받게 되어 무척 고맙다〉고 룡담을 했다.

송영진은 손님대접을 한다고 아래층 베란다에 싱싱하게 열려있는 오이와 풋고추를 몽땅 따다가 명태찜, 닭알찜, 송어구이 등이 푸짐하게 차려진 만찬상에 고추장과 함께 올려놓았다.

2 층서재에 붙은 베란다에서는 봉선화꽃송이들이 막 피어나고있었는데 이 꽃들도 수난을 당했다. 세살짜리 내 딸애의 손톱에 봉선화물을 들여주면 무척 좋아할거라는 말이 끝나기바쁘게 교원을 하는 송영진의 둘째딸이 그 꽃을 죄다 따서 내 손에 담아주었다. ...

밖에는 비가 내리고있었다.

우리는 비소리를 들으며 밤잔치에서 부르던 노래를 다시 불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통일념원의 노래를 부를 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손을 잡았다. 내가 나서자란 고향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던 옛시절이 생각났다. 평양에서 만난 사람들과 남쪽땅에 사는 민중은 어디가 다르단말인가? 믿기 어렵겠지만 수십년간의 장벽은 일주일간의 만남, 아니 단 하루의 만남으로도 허물어질수 있다고 웨치고싶었다. 헤어질무렵에는 비속에 서서 모두 울었다. 남과 북, 북과 남은 아직도 서로 멀리 그리워만 하고있어야 하는가?》

글속에 담겨진 그 절절한 웨침의 반연인가, 아니면 아들의 행복상이 눈앞에 밝혀와서인지 권성녀는 또 웃고름을 들어 눈굽을 훔치었다.

기사를 끝까지 다 읽고난 송영수는 가방속에서 흰종이에 쓴 사진 한장을 꺼내놓았다. 영심씨와 동생 영진이가 가족들과 함께 찍은 천연색사진이었다.

《이제 영진이네 집 응접실에서 찍은 가족사진입니다.》

권성녀는 사진을 받아들고 올리보고 내리보고 훑어보며 어릴적 아들의 모습을 찾느라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아무리 추억의 징검다리를 뛰어넘어 40 여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가 기억을 더듬어도 세 자식의 아버지가 된 당년 58 살의 영진이에게서는 어린시절 모습이란 흔적조차 찾을수 없었다.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흘렀고 너무나 많은것이 변하였다. 다만 시커먼 눈썹과 굵실굵실한 머리칼, 선이 굵은 얼굴모상이 지금의 자기 형이나 동생과 비슷하여 사진속의 키 큰 사람이 영진이가 분명하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분단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두터웠으면 16 년이나 어루만지며 키운 자식의 모습을 이다지도 몰라보게 가리워놓았던말인가? 지척에 두고도 소식 몰라 안타까이 기다리느라 시들고 지쳐 버렸던 늙은이의 두눈동자가 점점 빛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한숨속에 흘러보낸 기나긴 40 여년의 지루한 역사는 순간에 사라지고 눈앞에는 오직 가까이 와있는 아들의 모습만 확대되어 떠올랐다.

남해가의 모래불에 작은 발자국을 찍어놓고 떠나간 둘째가 이북에 가서 살아있을뿐아니라 그렇듯 무상의 영광을 지닌 문인으로 성공할줄 꿈에도 생각지 못한 권성녀는 어머니로서 자기가 아들에게 베풀어주지 못한 사랑과 지성을 몇천배로 초월한, 파도사나운 남해기슭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졌던 어린 생명을 위대한 품에 안아 꽃피워준 따뜻한 햇빛이 그리워졌다. 그 간절한 그리움은 손자, 손녀들모두가 다 대학을 나오고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몇배로 더 강렬해지는것이었다.

권성녀는 작은 가슴에 너무도 벅찬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터질듯한 심장부위를 지그시 눌렀다.

송영수도 지금 어머니이상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고있었다. 자기 가정이 겪는 불행만이 아닌 7 천

만겨레가 당하는 민족수난의 지루한 역사는 더이상 지속되지 말고 당장 끝장나야 한다.

5천년 긴긴세월 한피줄을 이으며 대대손손 살아온 슬기로운 우리 인민은 자주정신이 굽이치는 이 땅우에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세세년년 복락할 통일의 새날을 반드시 맞이할것이다.

경의선 강철레루가 녹슬어 덩굴고 날새들이 자유로이 넘나드는 그곳으로 나라의 허리를 두동강내며 구불구불 뻗어간 원한의 콘크리트장벽은 토담처럼 허물어지고 북한 3천리에 통일만세 폭풍같이 터져오를 그날은 래일로 다가오고있다. 내 그에 부끄럽지 않게 량심과 지성을 쟁그리 쏘으며 통일대문을 열기 위한 의로운 성전에 미흡한 힘이나마 바치고저 한다.

생각에서 깨어난 송영수는 옆으로 돌아앉으며 어머니의 손목을 꼭 쥐었다.

《어머님, 이제 묘소로 올라가십시다.》

《그러자.》

송영수는 안해가 꾸려준 술과 당과류를 바꾸어 옮겨담았다.

《애야, 그 껌짜를 좀 열어라.》

그것은 아버지가 유물로 남긴 때묻은 껌짜이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송영수는 의아한 눈길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정대와 망치가 있다.》

《그건 뭘에 쓰릅니까?》

《둘째의 소식을 들었으니 아버지 유언대로 비석에 이름을 새겨야 할게 아니냐.》

《참 그렇군요.》

송영수는 어머니의 의도를 인차 알아차리고 껌짜문을 열고 천에 쓴 정대와 망치를 꺼냈다.

《석공을 불러야겠군요.》

《아니다. 그애 이름을 내 손으로 직접 새기겠다.》

권성녀는 서둘러 바구니를 들고 일어섰다. 그런걸 송영수가 얼른 알아들고 토방에 나섰다.

해빛이 내리쬐이는 바깥날씨는 류달리 맑고 깨끗한것 같았다. 모자는 갈대숲을 헤치며 묘소로 올라갔다.

봉분앞에 이른 송영수는 상돌우에 제물을 차리었다. 향불을 피우고 술을 부은 다음 절을 세번하고 난 송영수는 잔을 들어 잔디우에 주르르 쏟았다.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하지 못한 죄의식을 그것으로 다 씻어내려는듯 송영수는 언저퍼 석잔을 부었다. 그다음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마찌크를 꺼내여 비석 두번째줄에 동생의 이름을 썼다.

《송영진》

그러자 권성녀는 서슴없이 정대를 화장석묘비에 갖다대고 힘있게 쫓기 시작하였다.

《평 ...평 ... !》

반반이 비여있던 가운데자리에 둘째아들의 이름을 새겨가는 권성녀의 망치질소리는 그 무엇인가 애타게 부르며 노호하는 파도소리에 실려 멀리멀리 메아리쳐갔다.

이윽고 이름이 다 새겨지자 송영수는 다시 술잔에 술을 부어 제단에 올려놓았다.

《아버님, 살아생전에 아버지결을 떠났던 둘째영진이가 술 한잔 붓습니다.》

송영수는 동생을 대신하여 아버지에게 목도를 하고 부어놓았던 술잔을 들어 잔디우에 뿌리었다.

3

이튿날 서울로 올라온 송영수는 국제우편으로 엽서 한통을 전송하였다.

영진이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였다.

편지는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데가 더러 있었다.

그런걸 송영수가 약간 가필하여 밀봉하였다.

《내 아들 영진아. 정말 네가 살아있다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가누지 못하겠구나. 신문과 사진을 보니 정말 살아있는게 분명하다. 네 소식이 실린 신문과 가족사진을 보며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자식을 낳은것으로 부모가 다 되는것이 아니다. 애들의 오늘과 장래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곧 부모인데 나는 너를 낳기만 했지 너를 위해 바친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것처럼 공부하고싶어하던 너를 옷학교에 못보내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한창 클 나이에 일만 시키고 세상에 내버려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무슨 엄마라는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나는 흠 한줌만도 못한 보잘것 없는 존재가 되었다. 너에게는 더욱 말할것도 없고 이곳 자식들에게도 엄마노릇 제대로 못한다. 그런데 너는 제 도리를 다 지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시시로 엄마를 부르며 사흘에 한번씩은 엄마의 꿈을 꾸다니 너무 고맙고 부끄러워 눈물전에 몸둘곳부터 찾았다. 우리모자 서로 살아있다는 소식 들었으니 그 동안에 쌓인 유한이 다 풀리는구나. 내 이제 죽는다고 해도 한스러울게 없을것 같다. 〈구사일생〉, 〈고진감래〉란 말은 우릴 두고 한 말같다.

너는 이북에 가서 아들딸 수많은 거느린 큰 기둥이 되었다지. 참말로 너는 귀인을 만나 복받은 인생이 되었구나. 그것만도 기쁘기 이룰데 없는데 국민의 총애를 받는 문인으로 최고표창까지 받았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니.

너의 생존과 명복을 빌어 정화수를 떠다놓고 하느님에게 깎듯이 절을 해온것이 다 헛공사였다.

진짜 절을 받아야 할 하늘님은 이복에 계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빈절만 하였으니 참으로 맹랑한 할미였다. 나는 신문과 만이의 전갈을 통하여 네 소식을 자상히 알고는 민중중심의 참정치를 펴나가시는 **김일성** 주석님이시야말로 우리 겨레 모두가 숭상하고 받들어야 할 하늘님이시고 우리 가문의 구세주이시라는것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지금껏 그것을 모르고 살아온것이 아깝고 속으며 나이를 먹은게 분하기만 하구나.

지금 남쪽 당국은 외세와 합세하여 《창구일원화》를 주장하며 특정한 인물들만 통일론의를 하라고 하니 그거야말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 매국노들의 발뻘질이 아니고 무엇이나. 통일은 우리같은 민중에게 더 절박하고 민중자신이 참여해야 할 크나큰 대업이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그가 남에 있건 북에 있건 해외에 있건 정견과 신앙을 관계치 말고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하나로 단합하여 련방하는 방법으로 반도에 가로놓인 원한의 빗장을 벗겨버릴 통일방략을 내놓으시고 한평생 애쓰시는 줄로 나는 안다. 이제 통일의 대문이 열리는 그날이 오면 이 에미는 댜먼저 달려가 그분께 큰절을 드리 고저 한다. 그리고 비록 늙어 고삭은 몸이지만 우리 모자의 만남과 겨레의 상봉을 가깝게 당겨오는 지름길에 약소한 힘이나마 바치고저 한다.

네가 보낸 사진은 아버지 액틀에 함께 넣었다.

너를 찾으며 눈감지 못하던 아버지가 죽어서도 품에 안아보라고, 그리고 아버지 유언 좇아 빈대로 남겨두었던 묘비에 네 이름 석자를 어제 새겨넣었다. 이제부터 송필연의 묘비에 빈자리가 없음을 알린다. 네가 돌아와 제손으로 아버지묘소를 가꾸었으면 오죽 좋으련만 아직은 바람과 기다림으로만 남아있구나!

이제는 네가 어진 안해를 만나 서로 위로하고 유자 생녀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엄마만 생각할 때가 아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기 바란다. 튼튼한 뿌리가 되어 자녀들에게 진액을 풍부히 공급해주어 싱싱한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혀주기를 바란다. 나라에 훌륭한 인재가

되고 통일성업에 한몫바쳐 나서주기를 이 엄마는 고대한다.

나의 머느리, 나의 손자 보고싶은 생각 간절하 다만 세상을 에미 마음대로 할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믿는다. 네가 오고 내가 가 모자 서로 얼싸안을 그날은 멀지 않았다고.

이대로 더는 살수 없는것이 우리들 아니냐. 한 피줄은 갈라져서 못사는 법이야. 네가 살았다는 기별만 들어도 죽어 유한이 없겠다면 내가 정작 소식을 알고보니 어서 만나고싶어 건딜수가 없구나.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련다. 40 여년을 기다린 내가 이제 몇해를 더 못견디겠니. 우리가 만날 날은 기다린 시간보다 췌 짧을게다.

붓을 놓자니 아쉬운 마음 금할수 없어 몇자 더 적는다.

너에게 보내는 엄마의 이 길지 않은 편지가 하루길이면 가당을 내 땅 내 길로 가지 못하고 지구를 멀리 에돌아 남의 땅 남의 나라를 거쳐 날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 서로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고 편지를 자주 주고받노라면 만남도 그만치 앞당겨질것이다. 그러면 비어있던 비석에 네 이름이 새겨지듯 피멍든 엄마의 가슴에 너도 얼른 안길 줄로 안다.

우리 모자 서린 한을 지필로 다 풀수가 없어 아쉽게 붓을 놓는다.

모든 식구 건강하고 복 많이 받거라.

19××년 9월 ×일 모 서》

자식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절절한 편지는 머지않아 송영진의 손에 가닿을것이고 그러면 끊어졌던 혈육의 정은 곧 이어질것이다.

아니 그들모자만이 아닌 온 겨레의 마음과 민족의 숨결이 자주 합쳐지고 막혔던 길이 트이게 되면 멍들었던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들의 모습이 새겨지듯 95 년도를 통일원년으로 매듭짓고 민족이 그렇게도 념원하는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어 7 천만겨레가 얼싸안을 환희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 것이다.

금강산의 소년목수

정양사 앞뜰에 약사전을 지을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한다.

이 절터는 내금강치고도 전망경치가 가장 좋은 곳이었다. 그러므로 정양사 주지는 건물을 이채롭게 지어야겠다고 오래동안 별리오다가 마침내 약사전을 지을 용단을 내리고 여러곳에서 한다 하는 목수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그들가운데서 도목수로 일할 사람을 고르자니 재간들이 서로 엇비슷하여 쉬이 어느 누구라고 짚을수 없었다. 주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가 하고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적중한 인물을 여기저기 수소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춘산동이라는 자그마한 부락에 비범한 솜씨를 가진 목수가 있다는 풍문을 얻어듣고 먼길을 떠나더니 귀염성스럽게 생긴 소년을 하나 달고왔다. 나이가 너무 어린것을 보고 모두 놀라마지 않았지만 주지가 데려온 도목수이니 이리궁저리궁 탄말을 할수도 없었다. 다음날부터 소년은 여러 목수들에게 적당한 일감을 주어 일을 시키고는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어딘지 돌아다니다 오곤하였다.

공사를 주관해야 할 도목수가 나타나기만 하는 것이 이상하여 한 목수가 어디로 그렇게 다다니는가고 물었다. 그랬더니 소년은 참 좋은 경치도 있더라 하고 하면서 당신들도 래일 백운대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어이없어 더 말을 못하고 먹은 나이가 없어 그렇겠거니 하고 웃고말았다. 그래도 이렇게 며칠이 더 지나서부터는 그 목수들속에서도 술렁술렁 뒤공론이 생겼다. 산천구경에 미친 어린 소년을 믿고 이 큰 건축공사를 과연 제대로 끝내겠는가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도목수인데 실마 놀기야 하겠는가고도 했고 산에 올라가 새둥지나 헐어낼게라고 비꼴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의 재간은 두고봐야 아는것이니 시키는 일이나 하자고 그를 두둔해주는측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말이 오가는것을 알기라도 한듯 도목수 소년은 돌아다니던 짓을 딱 그치고 마당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하루종일 나무를 자르기만 하는 것이었다. 며칠후 더 자를 나무가 없게 되자 그는 자기가 자른 나무를 세여보았다. 한참 수자를 세고난 소년은 머리를 한번 기웃하더니 다시 세였다. 그렇게 하고도 무엇인가 리해되지 않는듯 눈을 습벅이며 앉아있던 그는 잠

시후 목수도구를 주섬주섬 걷어싸며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는 나무토막이 하나 없어졌다고 하면서 주위에 도적이 있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수 있겠는가고 말했다. 그러자 곁에 서있던 이 절의 불목하니가 면구스러운 표정으로 헤시시 웃고 그것을 자기가 치웠노라고 하며 가져다놓았다. 그는 소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생각없이 자꾸 자르기만 하는것 같아서 목침감으로 하나를 슬며시 감쳤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소년목수는 그 나무를 쓰지 않겠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하였다. 리유인즉 벌써 그 재료에는 잡스러운것이 묻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소년은 주위에 있는 조력군들을 둘러보며

《자, 이제 집을 일궈세워봅시다.》하고 말했다.

그는 할일을 분담하고나서 자기는 재목들을 부지런히 주어섬기였다.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도목수가 쥐여주는대로 받아놓기만 하면 제자리에 딱딱 들어맞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루세에 약사전을 일궈세웠으나 불목하니가 치웠던 나무는 종시 쓰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한대를 쓰지 않았다는것을 알아낼수 없게 모든 조화가 빈틈없이 맞물렸다.

약사전을 다 지은다음 단청까지 하고나니 구조와 수법이 특유할뿐아니라 아담하고 정묘하기가 이룰데 없었다. 더우기 들보도 쓰지 않은 건물의 지붕 한가운데 천근이나 될 바위를 런꽃모양으로 다듬어 모자처럼 얹은 엄청난 담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뛰어난 목수의 솜씨를 두고 감탄해마지 않던 그들은 어디서 이런 재간을 배웠는가고 물었다.

이에 소년목수는 망군대에서 사방 둘레를 보며 룡각집을 구상했고 백운대에 올라가니 긴 추녀가 생각나더라고 대답했다. 또한 중향성의 석양비친 노을빛을 단청색으로 삼았으며 구룡연의 장엄함을 보면서 담을 키웠다고 했다.

그때에야 조력군들은 그가 처음 왔을적에 산천구경을 부지런히 다닌 연고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뒤공론을 분분히 하던 일을 생각하며 망해를 구하려 하였으나 슬기있는 소년목수는 그런것에는 아랑곳없이 벌써 행장을 꾸리고 떠날 차비를 하고있었다.

절규

김일규

붓을 들며

좋은 세월
행복한 이 땅에서
어찌하여 내 이 붓을 들어
어제날의 슬픔에 적어야 하는가

내 이 붓을 들고
이 나라의 순결한 너인들에게
처음으로 바치는 시에
이렇듯 분노와 증오를 담아야 하느냐

노래하고싶었노라
나를 낳은 어머니처럼
어디 가나 살뜰한 이 나라 너인들의 웃음을,
나의 한생을 사랑다해 길동무 해주는
안해같이 정다운 여성들의 세계를,

휴일의 유보도 산책의 봄날이면
찾아기 걸음마 익혀주는 너인앞에서
어머니로서의 한생을 축복하고싶었노라
공장이며 농장 찾아가는 그 어디서나
위훈의 꽃 피워가는 그 장한 모습들을
시에 담고싶었노라

히나
백발의 이 너인들앞에서
이 붓이
어찌 새길 말을 헛갈리랴
이 땅에 제국주의가 살아있는 한
너성의 세계에 꽃향기만 넘치랴

세계의 대륙과 대륙을 넘어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울리기를 바래
나는 이 붓을 들었노니

팔가진 아버지들이여
안해가 있는 남편들이여
다심한 어머니들이여
꿈많은 처녀, 총각들이여

량심과
리성의 귀를 기울여
나의 목소리 심장에 새겨다오
심장에 새겨다오

《일본군위안부》

물라도 될 말을
울면서 외우노라

입에 옮기기조차 창피한 말을
온몸의 피를 끓이며 외우노라

《일본군위안부》
우리 사는 세월에
이리도 낮은 말이
나의 이 붓끝을
장검처럼 비껴들게 하느냐

날새도 낮을 붉힐 그 뜻을
알고싶지도 않는 그 의미를
아, 나는 왜 심장이 아프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이 가슴에
새기고 새겨야 하느냐

내 이 땅에 태어나기도전에
없어야 할것이 생겨난 이 말
일제의 죄악에 찬 대명사로
세월을 넘어 외워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나는 무엇인지 아노라
나는 더욱 사무치게 깨치노라

이 땅, 이 민족을
수십년동안이나 짓밟고
이 나라 너인들의 순결한 정조마저 짓밟은
침략자가 남긴 말이건만

나는 외우노라 이 말을
움켜쥔 이 두주먹 풀지 않고 외우노라
조국을 잃으면
나의 어머니
나의 안해
나의 딸, 나의 민족이

또다시 걸머져야 할
노예의 이름이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나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는 외우고외우노라

돌처럼 굳어진 이 주먹으로 기어이 부셔야 할
원쑤의 이름처럼
복수의 과녁처럼

내 문득 어머니라 불렀을 때

내 진정을 담아
스스럼없이 어머니라 불렀을 때
깊은 생각없이
문득 어머니라 불렀을 때

너인의 눈에서
말보다 먼저 솟음치는 눈물
너인의 입가에서
옥뿔어 삼켜도 끝끝내 터지는 오열

눈물이 말해주는 그 사연
흐느낌이 말해주는 그 분노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고
너인이라면 웅당 지냈어야 할 그 이름을
칠순이 넘도록 못지냈다고
오, 흐느낌이 웨치는 절규여

막을수 없는 저 눈물

이 가슴에
쇠물같이 흘러드는 물줄기여

아, 달랠수도 없는 저 흐느낌
빼앗긴 봉선화시절이 있어
짓밟힌 봄시절이 있어
모질게 밝히고 찢긴 가슴에서
복수하기전에는
끝끝내 멈출수 없었던 심장의 오열이여

내 문득 어머니라 불렀을 때
그 이름 잃어 서러운 모습
오, 어머니라 다시 부를수 없는
떨어진 꽃잎의 흐느낌앞에서
할말을 잇은 사나이 이 가슴에
꿈틀 용을 쓰는 불덩어리
철퇴같은 불덩어리여

수난자의 초상

치렁치렁 검은 머리 내물에 행굴적엔
요람속 아기의 재롱도 그려보았으리
가랑머리 곱게 따서 땀기를 엷을적엔
정다운 련인의 눈길도 그려보았으리

버들꽃 망울지던 고향의 샘가에서
가슴 부풀던 시절도 있었으련만
그 순결한 처녀의 꿈마저 짓밟히고
온몸이 그대로 증오의 화산이 된듯
용암같은 분노를 토하는 너인들
아, 마주보기조차 이 가슴 찢어지는

수난자의 모습이여

볼깊이 패인 주름주름
저 한갈피를 헤쳐도
한동이의 피눈물이 고여있으리

저 하얀 머리
그 한오리만 헤쳐도
타고탄 마음의 재가루
한줌은 실히 남아있으리

어머니였다면 저 한품에서도
옥같은 자식들이 젖모금을 빨며 자랐으련만
어머니가 못된 저 가슴에 얼굴 묻고
다 자란 사람들이 순간에 복수자로 자라거니

순결한 너인의 몸이
돌이 아닐진대
군도로 찌르고 철사로 옥죄인 자옥
세월이면 그 어이 지울소냐
그보다도 순박했던 처녀시절이 찢긴
마음의 상처야 그 어이 아물랴

버들꽃 부푸는 고향의 내가에
오늘도 봄빛은 예대로 푸르는데
어이하여 그 겁던 머리 오리오리
원한만을 안았느냐

맑은 물 조롱박에 떠들던 샘가에서
정든이앞에 수집던 그날의 정은
오늘도 맑게 출렁이는데
어느놈이 그날의 정은 빼앗고
저 얼굴에 주름주름

피멍만 깊이도 새겨놓았으나

수난자의 초상은
타고난 초상이 아니다
모성과 자애, 순결한 사랑만이 깃들 생에
그처럼 아픈 상처 남겨놓은 일제야수들

없어
지울수도 잊을수도
없어
리해할수도 보상받을수도

진한 허물을 내들고
수난자의 모습은 피값을 원커니
오 그 값을 위해
끝끝내 모진 생을 이어온 삶이여
너나없이 분함을 디디고 일어나 옮기는
복수의 세월앞에 노한 모습으로 언제나 서있을
분노의 화신이여!

속죄는 짐승들앞에서나 하고...

가난의 설음을 씻어도
하얀 빨래돌이 티없던 이 땅의 내가들에서
허기진 발걸음을 모여들어도
동이 가득 인정만은 채우던 우물가에서

《삽살개》를 내세워 얼리다 못해
군복을 입고 《사냥개》가 된 놈들아
《처녀사냥》, 《노예사냥》
이 어이 인간의 입에 올릴 말이나

10 대의 애 어린 소녀를
20 대의 연약한 처녀를
총칼로 위협하고 족쇄로 결박하고
수십명씩 달려들었다고

그래도 낯을 들고
사람처럼 중얼거리느냐
이미전에 이 땅을 딛고
설자리조차 없었어야 할 악마들아

짐승이라고 하면
짐승도 격분할 살인귀들아
인간세상을 희롱한 낯강도들아
천만번 무릎 꿇고 사죄한들
이 강토 이 민족
아니 인류의 량심에 아량이 깃들랴

옥깨무는 이 불편에 꿈틀대는 증오가
피가 뚫는 가슴에 불을 다는 분노가
어찌 천만금의 보상엔들 풀리랴

아니!
아니!
허끝의 속죄로 마음 풀릴 우리 아니니
속죄는 저 장글속 짐승들앞에서나 하고
이 지구밖으로 영영 사라지랴
날강도!
살인귀!
이 야만들아!

인류의 가슴을 두드려

하얀 적삼의 긴 고름을 다 적시던
눈물마저 이제는 말라버리고
가리마 고운 머리태가
이제는 서리발만 안고있어라

한몸의 상처만이라면야
고운 눈동자에 저렇듯 피발이 서라
노예로 짐승처럼 산 어제가 아니었던들
저 어린 입술에서 피의 토설이 터지랴

피는 피여서
짓밟혀도 찢겨도 변하지 않노니
인류의 가슴을 두드리는
이 나라 너인들의 피의 웨침이

무엇을
무엇을 깨우쳐주느냐

다시는 잃지 말아야 할 조국이 있듯이
다시는 잃지 말아야 할 민족의 딸들이다
자기의 딸들을 다시 침략자가 끌고다닌다면
그 민족에겐 어머니가 없으리니

오늘과 래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흔들며
피의 력사가 웨치는 절규
자기자신을 지키듯이 지키라
우리의 운명-조국을!
인간의 권리-조국을!

쇠물빛

리영봉

한점의 티도 없이
닭고닭은 맑은 거울인가
출강전 쇠물빛에
내 마음도 비칠듯

숫구치는 불길속에
탈것은 다 태워버리어
그리도 맑고
그리도 순결한가

수천도의 고열속에
끓고 또 끓어
출강의 기쁨에 젖어서
그리도 열렬히 정열에 찻는가

순결하고 열렬한 그 모습
다시 보고 또 보고싶어
보안경 내리고 바라보면
너의 후더운 숨결 온몸에 흘러들듯

그렇게 용암처럼 끓었기에
영원히 변함없이 굳세고
그렇게 그렇게 끓고 불탔기에
한점의 때도 묻지 않은 쇠물빛

아 내 마음과 함께 끓인 쇠물
언제나 조국의 맑은 하늘가에
붉게 물드는 쇠물빛이 있어
내 이 땅의 하늘 향해 머리들고 산다오

불굴의 인간상앞에

-비전향장기수 리인모로인을 두고-

김휘조

량심과 지조

그에겐 작은 보따리 하나 없었더라
마포에서 부산형무소로
이감 갈 때
남다 들고 가는
때묻은 보따리 하나도

차디찬 감방에 추위를 가릴
내의 한벌 넣어줄 가족도 없었거니
고달픈 몸
포승줄에 옥죄이고
수갑을 차고

전향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라고
매질로 해저문 감방에
살은 빠져 여위디여윈 얼굴
하나 놈들의 낯짝에 침을 뱉고 일어서던
정열의 인이며 의지의 인이여

비록 빈몸이여도 힘있는 발걸음
그는 저벅저벅 내디디었나니
량심과 지조를 티검불처럼 버린
거리의 배부른자들을 경멸하며

그는 웃으며 바라보았나니
고향으로 비껴간 푸른 하늘을
눈망울에 흘려드는 푸른 하늘을

아, 만일
죽음이 입을 벌린 고문대아래
량심과 지조를 버리었다면
바라볼 푸른 하늘이 있었으랴
불러볼 정은 고향이 있었으랴

그는 뗏목이 부를수 있었더라
종다리 우짖는 밀보리언덕
두고온 고향을 내 고향이라고
멀리 다심한 어머니 기다리는
창밖은 집을 나의 집이라고
그리고 크나큰 조국땅모두
나의것이라고

아, 비록 빈몸이여도 가장 부유한 사람
저벅저벅 울리는 그의 발걸음소리는
세상에 말하고있었더라
량심과 지조보다
더 큰 재부는 세상에 없다고

보리 두줌

한끼 식량으로도 모자랐으리
보리 두줌
겉보리 두줌

전투의 후퇴길에 모여앉은 토굴속
북쪽 출신이라 말씨도 다르니
앞으로 제일 곤란할거라고
급할 때 그거라도 깨물라고

자신들은 굶으면서도

헤여지는 전우들이 주머니를 털어
그에게 모아준
비상미의 전부
보리 두줌

기름진 입쌀도 아니었다
허지만 서로서로 못잊는
후더운 마음들이 모여
무겁던 보리

소물아 밭을 갈던
싱그런 보리밭냄새도 풍기어울듯
푸른 달빛아래 그려보던 고향집
단란한 식탁에 둘러앉은 식구들
맑은 얼굴들이
소중한 얼굴들이 어려오던 보리

잊지 못했다
34 년간
긴긴 감옥살이에도
잊지 못했다

일신의 향락에 넋을 잃은자들의
진수성찬에 비길건가 보리 두줄
얼음같은 주먹밥
그는 씹으면서도
죽지 않고 일어섰나니 그 보리 생각하며

잊지 못했다 보리 두줄
그것은 34 년간
긴 세월 《삶의 양식》이었다
보리 두줄

이 땅의 장한 아들이여

이 땅의 장한 아들이여
조국의 아들이여
그대 갇혔던 감방은
너비 다섯뿔반, 길이 열세뿔
해빛도 바람소리도 끝난곳

전향하라고
내려치는 몽둥이아래
갈비뼈도 다리도 부서지고
그래도 바위처럼 입을 다문 사람이여

한모금 두모금 감방에 물을 주며
그대 피운 진달래꽃잎은
눈속에서도 오고야말 봄처럼
통일을 그리는 그 마음 아니었던가

몸에 얼룩지는 붉은 피방울
분계선없는 이 땅에
꽃으로 활짝 피어나길 바래
애끓는 마음 시줄에 담으며
쓰러지면 산악처럼 일어선 사람이여

오늘은 온 조국이 그대를 알더라
아버지의 이름처럼 형님의 이름처럼
그대 이름 부르며

하늘 높은 황홀한 집
그대 위해 더 짓고싶어
해빛밝은 거리거리
그대와 함께 걷고싶어
넓은 조국땅 어디서나
그대를 생각하나니

아, 조국애의 불타는
사랑에 산 사람이여 열정에 산 사람이여
의로운 마음을 안아주는
세상은 언제나 넓구나
그대는 그 좁은 감방에서도
가장 넓은 조국의 품에
안기고있었구나
이 땅의 장한 아들이여, 조국의 아들이여

그대의 어머니

육체도 세월을 이기지 못해
그대를 기다리던 팔순의 어머니
이제는 계시지 않아도 그대여 돌아오라

어머니 오늘도 기다리는줄 알고 돌아오라
전선으로 그대를 바래던 어머니
문가에 흰옷입고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라

산에 들에 꽃을 피운 봄바람소리
못견디게 귀가에 속삭이거든
어머니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인줄 알고 돌아오라

북녘의 하늘가에 아침노을 비끼거든
아들을 반기는 어머니
따뜻한 미소인줄 알고 돌아오라
밤별들이 총총 꺼질줄 모르거든

내 아들은 돌아온다고 돌아온다고
기다려 잠 못 드는 어머니
애끓는 눈동자인줄 알고 돌아오라

그대에게는 어머니가 있다
고향멀리 아까운 청춘을
채찍아래 다 잃어버렸기에
한시도 그대를 잊지 않은 어머니
차디찬 감방에
너무 오래 가시밭길을 걸었기에
큰 집을 지어놓고 기다린 어머니

고생많은 자식이어서
더 못 잊는 어머니
들마다 오곡을 가꾸면서도
못 잊는 어머니
고향의 시내물에 푸른 꿈을 띄우던
그대 젊은 시절처럼 오늘도

그 사랑 변치 않는 어머니

그렇더라 그대를 낳은 이 땅은 그대의 어머니
가없이 푸른 바다이고
이삭크는 풍요한 벌이고 따뜻한 햇빛인
람홍색 공화국기 날리는 이 땅은
그대의 어머니

돌아오라, 장한 아들이여
통일의 불타는 념원으로
원썹을 이긴 아들이여

참된 아들에게는 언제나
다심한 어머니 있나니
돌아오라, 그대에게는 어머니가 있다
람홍색 공화국기 날리는 이 땅은 영원히
그대의 어머니 그대의 어머니